

학생지원 프로그램 생생 가이드
THEME BOOK 전남대학교 테마북

CNU

연결하는
꿈과
희망

드림 매뉴얼



발행일 2012.02.

발행처 전남대학교 기획처 (홍보팀)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062-530-1132 / www.jnu.ac.kr

발행인 김윤수(총장)

편집인 복문수(기획처장)

기 획 한재만(홍보실장)

취 재 엄 현, 정선희, 강현미 | **사진** 박성배 | **일러스트** 홍원표

편집디자인 (주)신광씨링_ 062-232-2478

인쇄 (주)신광씨링_ 062-232-2470

이 책은 전남대학교 기획처 홍보팀이 기획하고, 기초교육원, 국제협력본부, 학생지원과, 언어교육원, 취업지원과, 교육지원과, 학사관리과, 여수캠퍼스 교학과 등 학생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 부서와 학생들의 참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의 저작권은 전남대학교에 있습니다.

글과 사진은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 드림매뉴얼은

2012년 월 일부터

를 꿈꾸는

소유입니다.

연락처:

이 매뉴얼은 내 꿈을 향한 우여곡절의 여정과 함께 할 것입니다.
뜨거운 4년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책이오니 습득하신 분은
위 연락처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림매뉴얼

100%

활용법



받는 즉시 이름을 적어 소유관계를 표시한다. ▶ 목차를 찬찬히 확인하고 끌리는 내용부터 읽는다. ▶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을 꼼꼼히 읽으며 나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체크한다. ▶ 프로그램 완전정복을 위한 나만의 로드맵을 그린다. ▶ 자격조건이 있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세운다. ▶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실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 나만의 프로그램 만족도를 체크해보고 주위에도 권한다. ▶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인맥은 수시로 관리한다. ▶ 보람 있는 대학생활, 성공적인 사회진출의 시작점으로 삼는다. ▶ 졸업한 뒤 흐뭇하게 꺼내볼 수 있는 대학시절 추억의 소장품으로 삼는다.





- 004 드림매뉴얼 '100% 활용법'
- 006 목차
- 008 드림매뉴얼 입문자가 새겨야 할 교수 비법
- 010 교수들이 들려주는 시기별 가이드라인

012

알찬교육 프로그램

- 016 알찬교육 드림캘린더
- 018 공부일촌
- 021 한울학습
- 024 누리드리
- 027 이밋고-교학상장
- 030 다독다독
- 034 U-makers
- 037 온라인 글쓰기 상담도우미
- 040 문제해결능력 향상 프로그램
- 049 학습법 워크숍
- 051 알찬교육 보고서, 비법을 훑쳐라
 - 공부일촌 학습보고서
 - 한울학습 학습보고서
- 060 나만의 알찬교육 드림캘린더



062

국제화 프로그램

- 066 국제화 드림캘린더
- 069 국제화 과정
- 072 합격생 영어캠프
- 075 합격생 영어캠프 교육조교
- 078 제2외국어 연수
- 081 교환학생
- 085 국제여름학교(영어)
- 088 국제인턴
- 091 국외봉사
- 095 세계교육기행
- 098 외국인 초년생 길잡이
- 101 이코미-따르미
- 104 국제여름학교 2기(일본어) 및 국제겨울학교
- 106 나만의 국제화 프로그램 드림캘린더



Contents



108

통섭인재 프로그램

- 112 통섭인재 드림캘린더
- 114 올곧은 인성함양 프로그램
- 116 자기계발을 위한
코칭리더십 집중 캠프 프로그램
- 119 국토대장정
- 125 지리산 종주
- 128 남도문화유산 기행
- 131 전공멘토링
- 134 전공학문 연계 사회봉사
- 135 학생교류
- 138 나만의 통섭인재 드림캘린더



140

취업지원 프로그램

- 144 취업지원 드림캘린더
- 146 경력 및 직업개발시스템
- 147 취업 에이스 프로그램
- 150 취업두드림 한마당
- 152 심리검사 및 진로적성탐색검사
- 153 취업능력증진 프로그램
- 154 취업보장형 단기취업교육 프로그램
- 155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 생애와 직업탐색
- 156 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상담 / 현장실습
- 157 One stop 취업코칭 프로그램
- 158 청경! 도전100
- 159 여수캠퍼스 취업지원 공간
- 161 선배들의 자기소개서 비법을 훑쳐라
- 자기소개서 1, CJ 제일제당
- 자기소개서 2, GS 건설
- 170 나만의 취업도전 드림캘린더

173

드림플러스

- 174 장학금
- 178 자기계발활동기록부
- 180 도전점수



드림매뉴얼 입문자가 새겨야 할 고수 비법

일상 총만, 내공 만땅 끝없는 욕심의 세계

늘 자신 있어 보이고, 어딘가 활기차 보이고, 뭔가 바빠 보이는 선배나 동기들이 있는가? 학교에 내는 등록금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은 것만 같은 그들은 분명 여러분이 안 하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소위 '프로그램 고수' 들은 매우 흡사한 행동특성을 보여 주었다. 이것을 읽고 한 가지라도 따라하기 시작한다면 당신도 고수 코스 입문자

1

시작 페이지는? CNU홈!

“오늘은 또 무슨 공지가 났나?” 아침 눈뜨자마자 체크한다. 그들 PC의 시작 페이지는 틀림없이 CNU홈 확률이 90% 이상. 국제협력본부, 취업지원과, 기초교육원, 언어교육원 등등, 학교 관련 홈페이지는 모두 즐겨찾기로 고정되어 있다. 학교 게시판도 그들의 눈을 피해갈 수 없다. 정보를 찾아 온-오프라인을 훑는 그들은 매의 눈!

2

'될까?' 보다 '일단 하자!'

그들은 실력보다는 마음 가짐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쟁률이 높지 않을까? 안 빠지고 내가 잘 참여할 수 있을까? 머리 무겁게 이것저것 고민하지 않고, '들이땀의 미학'을 실천한다. 생각보다 경쟁률이 높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걸 기억하라. 선착순으로 뽑는 것도 있으니 느장부리다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빠른 정보 습득과 번개 같은 클릭은 기본이다.

3

안 되면 준비해서 하면 되지!

'이거야!' 생각했는데 자격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 그들의 대처법은? 준비해서 다시 도전하기 특히 해외 파견 프로그램은 여학생적 등을 요구하니 최소 6개월~1년을 꼬박 투자하기도 한다. 꼭 그럴 필요까지 있는나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1년이 대수인가? 면접에서 플러스 알파가 될 만한 다른 프로그램까지 섭렵할 정도는 되어야 진정한 교수!

4

스펙만 얻나? 사람도 얻는다!

교수는 교수를 알아보는 법. 학교 프로그램에 여러 번 참여해 본 그들은 서로를 알아본다. 저 프로그램에서 만났던 그 사람, 여기서 또 만난다. 프로그램에서 만난 그들은 서로의 열정과 재능을 알아보고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 함께 스터디를 하거나 서로의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그들만의 '막강 인맥'을 완성한다.

5

꼬리에 꼬리를 무는 프로그램 욕심

그들은 학교 프로그램은 종속성이 강하다고 말한다. 좋다는 걸, 얻는 게 많다는 걸 아니까 다른 것들도 자꾸 욕심이 난다. 그러다 두세 가지 활동이 겹쳐 비명을 지를 정도가 되기도 하지만 만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프로그램에 도전하는 비율도 높아진다.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기업체 홍보대사나 정부 부처 인턴 등 교외 활동으로 진출하는 것도 정해진 코스.

고수들이 들려주는 시기별 가이드라인

차근차근 꼼꼼하게 핵심은 적시태!



핵심 포인트

취업정보 수집,
구직활동 시작

전공

면접 등 취업 관련
강의 및 특강을
꼼꼼하게 챙겨 듣자

영어

매회 어학시험 응시
통해 최고점수 확보,
영어 면접 준비, 영어PT,
비즈니스 영어회화 준비

4
학년

취업목표 기업을
정하자, 구체적인
취업준비 시작

본격적인
학점 관리 시작,
평균 3.5 이상 유지

영어회화능력 집중
향상(OPIC, TOEIC
Speaking)

3
학년

학점관리에도
좀더 신경 쓰자

전공과목 기초 다지기,
학점은 최소 평균 B학점
이상 유지
정기 토익시험 응시,
꾸준히 준비하자

해외 어학연수나
배낭여행 도전

2
학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나의 적성을
파악하자

여러 분야 강의를
수강하며 나의 적성을
파악하자
학습공동체 등을 통해
전공에 흥미 붙이기

토익시험 등으로
나의 수준 파악,
나에게 맞는 영어공부
방법 찾기

1
학년

전남대학교 학생 모두가 대학생활 동안 같은 과정을 거칠 수는 없다.

‘남들은 이렇게 한다더라’ 해서 무작정 따라 할 필요는 더욱 없다.

자기 자신의 결심과 계획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지만 먼저 그 과정을 거쳐 간 선배들의
공통적인 조언이라면 대학생활을 안내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될 수 있을 듯 하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차근차근 건강한 사회진출을 준비해가는 방법을 알아보자.

인맥

취업에 도움되는 인맥 형성,
캠퍼스 리크루팅 적극 참여,
취업 성공 선배 및
인사담당자 만나기, 명함수집

학원수강이나 스터디그룹 등
회화공부 / 매회 어학시험 응시
통해 최고점수 확보 /
나의 롤모델 찾기 /
성공한 CEO, 전문가 등 강연에
적극 참가, 직접 만남도 시도

인맥 넓히기, 타과,
타동아리, 타대학 학생과
다양한 인맥 형성

인맥 쌓기 중점 준비
선배, 교수님, 강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에
자주 참여하자

동아리

같은 회사나 직종 취업
스터디 그룹 결성
입학 전형 등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스터디

보다 전문적인 동아리 활동
취업 관련 소규모 스터디
모임이나 공모전 준비모임
활동

학과나 동아리 행사 등을
직접 기획, 진행해보기
그 과정에서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노하우 등
배우기

취업이나 경력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를 꼼꼼하게 알아보고
가입하자

공모전

인턴 기회를 주거나 입사
특전 및 가산점을 주는
공모전에 집중 도전

취업이나 진로에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특정 분야
공모전에 도전
(디자인, 기획전략, 마케팅 등)

해외탐방이나 문화답사,
대장정 같은 경험 중심의
공모전 도전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말고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이벤트성 공모전 참여

“공부하는 재미 좀 느껴볼래요?”

“우리 관심사는 오로지 하나예요. 어떻게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게 해 줄 것인가? 신입생이라면 좀더 빠른 대학 적응과 전공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수와 함께하는 ‘이뤘고-교학상장’이 큰 도움이 됩니다. 교수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걸 망설이지 말아야 내 전공이 선물해주는 많은 가능성이 열립니다. 선배와 함께 하는 ‘한울학습’은 시험 보기 전에 보는 ‘족보’와도 같죠. 함께 공부하면서 학문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진짜 대학 아닐까요?”

알찬교육 서포터
기초교육원 교수학습지원센터 박덕희 선생님



일차교육

Dream Manual

학교, 학원, 독서실, 집, 다람쥐 쳇바퀴 돌던 시절 끝났으니
이제 공부는 좀 쉬고 싶다고? 천만의 말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공부의 재미,
제대로 공부하는 법을 배울 시간이 되었다.

교수님, 선배, 동기들과 자유롭게 팀을 짜고
내 전공의 즐거움을 느껴보자.

대학생다운 글쓰기 실력과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길러보자.

학문의 재미를 느껴보지 못하고 졸업하는 자,
얼마나 불행한가?

지금 당장 **알찬교육 프로그램으로 GO! GO!**



기
념
이
가
이
런
것
들
은
거
였
어?
?



일차년도교육 프로그램 캘린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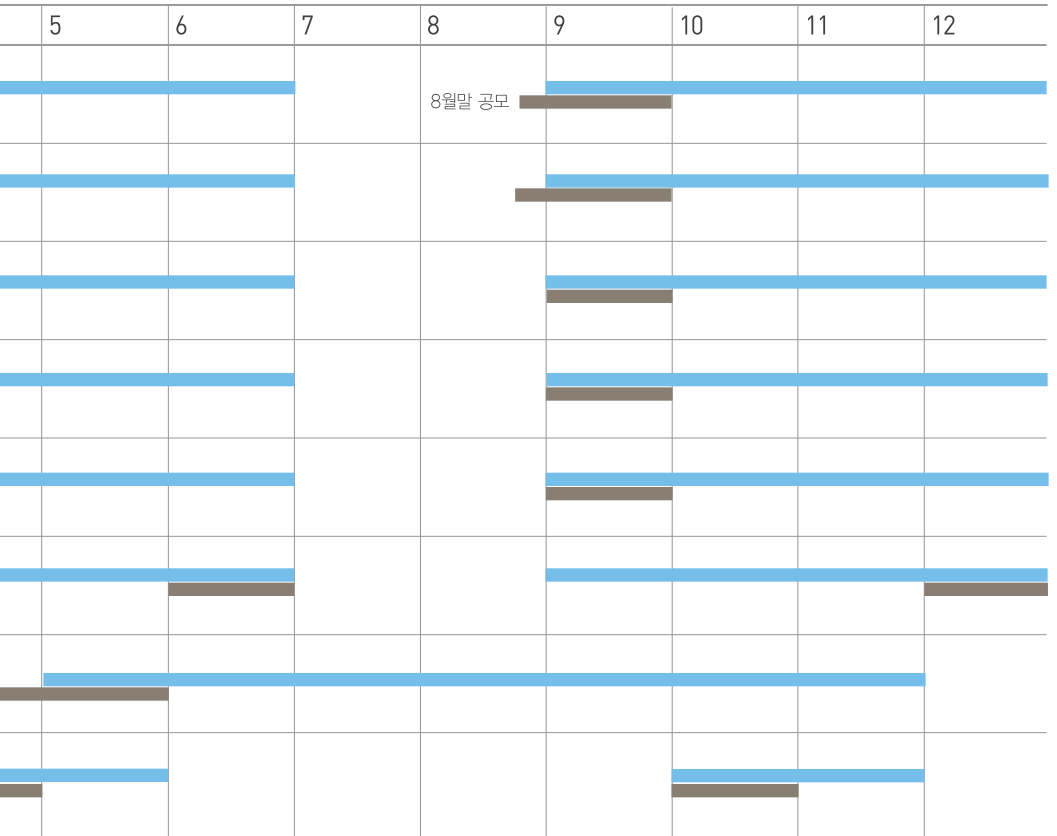
관심있는 프로그램의 시행 시기를 놓치면 후회막급이다. **꼼꼼한 일정 챙기기는 실속있는**

프로그램/운영기간 (월)	1	2	3	4
<아하! 학습공동체 : '공부일촌·한울학습'> 기초교육원 062-530-2332		2월말 공모		
<세계 학습공동체 : '누리드리'> 기초교육원 062-530-2333				
<신입생-교수 세미나 : '이뤘고-교학상장'> 기초교육원 062-530-2334				
<독서토론 공동체 : '다독다독'> 기초교육원 062-530-2335				
<U-러닝공동체 : 'U-makers'> 기초교육원 062-530-2336				
온라인 글쓰기 상담도우미 기초교육원 062-530-2334				
문제해결능력 향상 프로그램 교육지원과 062-530-1023				
학습법 워크숍 기초교육원 062-530-2332				



프로그램 고수가 되는 중요한 덕목!

활동기간 ■ 모집기간 ■



01

공부하자 친구야!

공부일촌

‘공부일촌’은 창조적·도전적·협력적 대학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아하!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이루어 전공이나 교과목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일정한 학습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준다. 마음 맞는 멤버들끼리 학기마다 팀을 이뤄 신청할 수도 있다. 서로에게 자극 받으면서 성장하는 ‘스스로 학습’, 우리 한번 ‘공부일촌’으로 공부에 중독되어보자.

Program 01. Tip

● **모집대상(학부생 및 대학원생)** 공부일촌 교과목(S1) : 동일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 4~7명 / 공부일촌 자유주제(S2) : 공동 관심 주제를 공부하는 학부생 4~7명 ● **모집 시기** : 매년 2월말~3월초, 8월말~9월초 ● **운영 기간** : 매년 3~6월, 9~12월 ● **신청 방법** ① 대표 : ‘공부일촌’ 운영계획서 작성해 담당교수 확인 →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 ‘공부일촌’ 선택 → 신청하기 → 공동체 등록 및 운영계획서 첨부 ② 구성원 : 공동체 개설된 후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 ‘공부일촌’ 선택 → 신청하기 → 해당 공동체 선택 → ‘참여하기’ ● **활동 내용** : 8주간 주 1회 이상, 2시간 이상 정기적 학습, 학습 후 주별 학습보고서 제출, 운영 기간 동안 1회 이상 교수면담 실시, 8주 학습 후 최종보고서 제출 ● **참여 혜택** 그룹 지원금(그룹당 150,000원) (추후 변경 가능), 자기계발활동기록부 기재, 우수 그룹 시상 ● **문의** 기초교육원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력 연구개발부 062-530-2332~3

Program 01
제대로 맞춥시다!

경제신문으로 경제와 세상 마스터

경제학부 <MK STUDY>

권혜성, 이소라, 송다빈, 김민희_ 2010년도 S2 참가팀

MK STUDY는? 작년 2학기, 전공을 좀 더 쉽게 공부해보자고 신문 스테디를 시작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경제공부를 하기 위해 올해 1학기 공부일촌을 신청했다. 국내외 정세 파악, 기사 요약과 발표를 통해 발제 능력도 기르고 매경 TEST를 풀면서 경제지식을 쌓는 것이 목표였다.

우리의 공부법 일주일 동안 신문을 읽고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사 요약본과 관련 자료를 우리가 만든 싸이월드 클럽에 미리 올린 뒤 일주일에 한번 모여 스테디를 했다. 주마다 돌아가면서 조장을 하고, 그 주의 조장이 스테디 자료 준비와 보고서 작성을 맡았다. 각자 주제 발표를 한 후 질의응답과 토론



공부일촌은 한마디로 '오미자'. 시작할 때 느낀 도전 의식,
스터디 분위기가 화기애애할 때의 즐거움, 그 반대인 경우의 갈등,
다시 또 어우러지면서 느끼는 협동심, 결과가 좋았을 때 느꼈던 성취감 등
공부의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을 모두 느끼게 해주었다.

시간을 가졌다. 매경 TEST는 기출 문제집을 구입, 자기가 맡은 문제를 완벽히 마스터해온 뒤 서로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매경 TEST는 각 기업들에 서도 최근 직원 채용 시 고려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시험이다.

이건 우리가 좀 잘한 듯? 성실한 보고서와 싸이월드 클럽. 공부일촌 운영진들이 보고서만으로도 우리 학습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자세히 풀어쓰려고 노력했다. 또 스터디를 위해 싸이월드 클럽도 개설했다. 각자 발표 내용과 스터디 시 답변하지 못했던 질문에 대한 답, 함께 보면 좋을 자료들을 올려서 준비·복습에 능률을 올린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프로그램 참여 전 VS 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공부일촌 하기 전에 우리나라 국무총리 이름을 아무도 몰랐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참 무관심했다. 그런데 매주 공부일촌에 대한 의무감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 뉴스나 수업에서 아는 용어가 많이 들리더라. 또 하나, 꾸준히 신문 읽는 습관을 가지게 됐다. 스터디는 해제되었지만 지금도 각자 신문을 읽고 어려운 용어가 있으면 이야기 해 본다.

세가지 TIP 첫째, 보고서는 상세히 풀어서 써라. 운영진이 우리의 보고서를 보고 경제지식이 향상될 만큼. 그렇게 상세히 쓰다보면 그날 공부 내용이 피드백 되고 놀라운 복습효과가 있다. 둘째, 보고서는 돌아가며 써라. 다른 팀들은 조장 한 명이 매주 보고서를 쓰는 것 같더라. 우리는 주마다 조장을 돌아가면서 하고 그 주의 조장이 보고서를 썼기 때문에 더 책임감 있게 열심히 썼다. 셋째, 날짜와 시간을 지켜라. 보고서를 정해진 날짜에 올리라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은 지켰다. 과 엠티가 있어 모두들 피곤에 절었을 때도 그 주의 조장은 보고서를 꼭 올렸다.

02

선배님 도와주세요! 한울학습

선배는 때로 하늘처럼 보인다. 어려워만 보이는 전공공부를 거침없이 하고, 나는 잘 모르는 학교 프로그램 정보도 환하다. 그런 선배에 기대서 전공교과 학습능력을 높이고 싶다면 지금 바로 '한울학습' 팀을 짜보자. 전공실력도 쌓이고 선후배 간 돈독한 정도 쌓일 것이다. 교과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끄미와 교과학습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따르미가 참여한다.

Program 02. Tip

● **모집 대상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한울학습 일반(T1) : 교과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대학원생 이끄미 1명과 학습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따르미 4~6명 학습 모임 / 새내기 한울학습(T2) : 교과목 성적이 B학점 이상인 학부 3·4학년 이끄미 1명과 동일 교과목을 수강하는 신입생 따르미 4~6명 학습 모임 ● **이끄미 자격** 지도교수 추천서 의무 ● **모집 시기** 매년 2월말~3월초, 8월말~9월초 ● **운영 시기** 매년 3~6월, 9~12월 ● **신청 방법** ① 이끄미 : '한울학습'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교수 확인 →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포탈 ID 로그인) → '한울학습' 선택 → 해당 프로그램(T1/T2)선택 → 신청하기 → 공동체 등록 및 운영계획서 첨부 → 공동체 개설 → 신청 완료 ② 따르미 : 공동체가 개설된 후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포탈 ID 로그인) → '한울학습' 선택 → 해당 프로그램(T1/T2)선택 → 신청하기 → 해당 공동체 선택 → '참여하기' 선택 → 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 **활동 내용** 8주간 주 1회 이상, 2시간 이상 정기적 학습, 학습 후 주별 학습보고서 제출, 운영 기간 동안 1회 이상 교수면담 실시, 8주 학습 후 최종보고서 제출 ● **참여 혜택**(모든 지원은 '한울학습'의 운영 규칙을 따른 그룹에게만 지급됨), 그룹 지원금 (그룹당 150,000원) (추후 변경 가능), 이끄미 지원금, 자기계발활동기록부 기재, 우수 그룹 시상 ● **문의**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력 연구개발부 062) 530-2332~3

타의 추종 불허하는 꼼꼼 보고서

농업경제학과 <여신과 아이들>

변아름, 권혜령, 김성백, 윤진환, 양휴영, 정솔, 이현희_ 2010년도 T2 참가팀

활동 자체도 열심히 했지만 보고서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매주 돌아가면서 보고서를 썼는데, 그때마다 토론 내용을 마치 현장 녹취처럼
생생하게 작성했다. 사진도 꼭 첨부했고 작성자 이외에
모든 팀원들의 감상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팀명이 참 특이하다 상당히 이기적인 팀명이다. (웃음) 이끄미 아름 선배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이해> 과목을 듣는 1학년들이 모였다. 이후에 팀원들이 경제원론도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두 과목 공부를 함께 했다.

어떻게 공부했나 일주일마다 한 시간씩 두 번 모였다. 한 번은 <한국경제의 이해>와 관련된 주제를 정해서 자료조사 후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한 시간은 이끄미 선배가 경제원론 내용의 개념과 이론을 설명해주는 수업을 했다.

특별했던 점 없나 이끄미 선배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금융권 선배님들을 직접 초청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진로계획도 세워보고 진지하게 상담도 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날이 좋을 땐 야외에서 토론수업을 하기도 했다. 아름 선배가 모임 시간뿐 아니라 따로 시간을 내어 부족한 것을 보충수업 해 준 것도 고마웠다.

프로그램 전 VS 후 이끄미 내가 일반적으로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업준비하면서 내가 더 많이 배운 것 같다. 선배노릇이 힘들다는 생각도 들었고. (웃음) 따르미 성적이 눈에 띄게 올랐다. 다른 팀들은 시험준비를 하면서 족보풀이에 치중한 반면, 우리팀은 시험범위 전체를 이해한 뒤 문제를 푸는 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좀더 심도 깊은 학습이 됐다.

세가지 Tip 첫째,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라! 매주 보고서에 사진을 첨부한 팀은 우리밖에 없었다. 둘째, 팀원들의 열정을 보여 주어라! 한 사람이 기초교육원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올리면 우리는 모두가 들어가서 체크하고 댓글을 달며 피드백해 주었다. 보고서에 댓글이 7~8개씩 달리는 팀은 많지 않았다. 셋째, 토론과 발표 스킬을 배우는 기회로 활용하라! 내 생각을 정리해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잘 익힌다면 강의시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03

글로벌 스터디 그룹

누리드리

캠퍼스를 거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모습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다양한 전공의 유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글로벌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이들과 함께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국제적인 지식 교류에 도전해 보자. 교과목 관련 주제를 학습하는 그룹과 외국인 학생의 전공·한국어 학습을 도와주는 그룹을 선정하여 학습비까지 지원해 준다.

Program 03. Tip

● **모집 대상** (우리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학부생 및 대학원생) ① 글로벌 공부일촌(G1) : 외국인 학생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7명으로 구성 / ② 글로벌 한울학습(G2) : 1명의 외국인 또는 한국인 이끄미와 3~6명의 외국인 또는 한국인 학생 따르미로 구성 ※ '공부일촌·한울학습' 프로그램과 중복 참여 불가 ● **모집 시기** 매년 2월말~3월초, 8월말~9월초 ● **운영 기간** 3월~6월, 9월~12월 ● **글로벌 공부일촌(G1) 신청 방법** 글로벌 공부일촌 대표 :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교수 확인 →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포탈 ID 로그인) → '누리드리' 글로벌 공부일촌(G1) 신청하기 → 공동체 등록 및 운영계획서 첨부 → 공동체 개설 및 대표 신청완료 / 글로벌 공부일촌 구성원 : 공동체 개설된 후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포탈 ID 로그인) → '누리드리' 글로벌 공부일촌 선택(G1) → '신청하기' → '참여하기' → 신청서 작성 → 신청완료 ● **글로벌 한울학습(G2) 신청 방법** - 이끄미 :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교수 확인 → 교수

학과 공부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많다. 국제적인 마인드와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고 사고의 폭도 넓어졌다. 갈수록 우리 학교로 유학 오는 외국인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공대, 사범대 등 각 학문의 특색을 살려서 세계를 보는 눈을 길렀으면 좋겠다. 또 취업 위주로 돌아가는 대학생활에서 진지한 지식의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누리드리' 를 강력 추천하고 싶다.



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포탈 ID 로그인) → '누리드리' 글로벌 한울학습(G2) 선택 → 신청하기 → 공동체 등록 및 운영계획서 첨부 → 공동체 개설 → 신청완료 ※**이코미 자격 기준(아래 3가지 항목 중 1개 이상 기준 충족, 지도교수 추천서 의무)** ① 전공 학습 : 해당 교과 B학점 이상인 학생이나 전공 대학원생 ② 외국어학습 : 공인 외국어 시험 기준 점수 이상 획득한 자 - 따르미 : 공동체가 개설된 후 홈페이지 접속(포탈 ID 로그인) → '누리드리' 글로벌 한울학습(G2) 선택 → 신청하기 → '참여하기' 선택 → 신청서 작성 → 신청완료 ● **활동 내용** 매 학기 8주간 주 1회 이상, 2시간 이상 학습, 주별 학습보고서 제출, 1회 이상 교수 면담 및 지도교수와 함께 찍은 사진을 학습보고서 첨부, 8주 학습 후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활동 혜택** 그룹 지원금 (그룹당 150,000원)(추후 변경 가능), 이코미 지원금, 자기개발활동기록부 기재, 우수그룹 시상 ● **문의** 기초교육원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력 연구개발부 062-530-2333

국제적인 지식 교류 뿌듯해요

국어국문학과 <국어문화연구>

재학생_ 이수진, 김서라_ 2010년도 참가팀

어떻게 모였나? 모두 손희하 교수님의 지도제자들이다. 교수님 제안으로 누리드리를 하게 됐다. 월간석보, 국어사를 함께 했는데, 정해진 부분을 공부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공부의 기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꾸준히 참여했다. 학습 준비와 내용이 얼마나 알찬가, 구성원들이 열심히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도움이 된 것 특히 ‘국어사’에서 고대국어와 몽골어의 연관성 등을 연구하는데, 잘 몰랐던 발음의 차이, 옛날 중국어와 비슷한 한국어의 특성 등을 유학생들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국제적인 지식의 교류가 이런 것인가, 뿌듯한 생각이 들었다.

유학생_ 유가양, 김미월, 장춘희 : 2010년도 참가팀

이게 참 좋았다 한국어 교사가 꿈이어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있다. 한국어 공부는 아직도 많이 어렵다. 하지만 누리드림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했다.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편하게 질문할 수 있어서 좋았고 학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 한국의 한자음에 대한 공부는 옛날 중국어를 연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우리가 더 이상 전남대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억에 남는 것 스터디가 다 끝난 뒤 지원금으로 강원도에서 열린 국어사학회에 다녀왔다. ‘어휘사’가 주제였는데, 다른 학교 외국인 학생들도 만나고 실제 발표 분위기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04

교수님과 함께, 대학생활의 매력을 찾아서

이뭇고-교학상장

내가 원하던 전공이 아니라서,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도무지 전공에 애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전공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이 전공으로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것 투성이라면 '이뭇고-교학상장'에 참여해보자. 어렵게만 느껴졌던 교수님과 팀을 이뤄 전공과 진로의 윤곽을 알아가는 동안 대학생활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다. '이뭇고-교학상장'을 통해 자기 전공의 매력에 눈뜨고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만들어간 선배들이 많음을 기억하자.

Program 04. Tip

● **대상** 교수(전임교원) / 학생(신입생, 1학년 복학생, 전과생 및 편입생, 외국인 유학생 (단, 학생은 1회만 인증 가능)) / 도우미(2학년 이상 학부 재학생) ● **구성** 전임교수 1명, 학생 4~5명, 도우미 1명(선택) / ● **모집 시기 및 운영 기간** 매년 3월, 9월 초/ 매년 3~6월, 9~12월 ● **신청 방법** ① 지도교수 :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 '이뭇고-교학상장' 선택 → 신청하기 게시판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지도교수가 활동계획서 작성·첨부 → 공동체 개설 및 신청 완료 ② 학생 및 도우미 :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포탈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 프로그램 선택 → '이뭇고-교학상장' 선택 → 신청하기 게시판 선택 → 해당 공동체 선택 → 참여하기 → 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 **활동 내용** 주제 : 대학생활, 전공, 진로에 관한 신입생의 이해를 돕는 내용 / 모임 : 2주 1회 모임을 원칙으로 4회 이상, 교수와 동행 / 모임 유형 : 대학 생활 적응과 전공 및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형태 / 제출 자료 : 모임보고서, 도우미 활동보고서, 최종보고서, 개인소감문 ● **참여 혜택** 자기계발활동기록부 기재, 우수 그룹 및 우수 개인소감문 시상 ● **문의** 기초교육원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력 연구개발부 062-530-2334

교수님의 열정에 감염됐어요

영어영문학과 <Radiant 7>

노승희 교수, 정요한, 조해리, 정은솔, 강선희, 김한나, 진옥임_ 2010년도 참가팀

우리가 다른 팀보다 뛰어났던 것은 무엇보다 교수님께서 열정적이셨다는 것이다. 지켜온 토론학습이 아니라 현장학습도 하면서 팀원들 간에 친목을 다지고 교수님과도 더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학과 수업에 도움이 될 만한 발표를 하면서 학습적인 효과도 거둔 것 같다. 특히 월봉산 등산이 기억에 남는다.
함들어 하면서도 서로 손을 끌어주며 등산을 해서 팀워크가 향상됐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교수님이 편해지는 계기가 됐다.

팀명은 무슨 뜻? 노승희 교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빛나는 7개의 별을 뜻한다. 영어영문학과 학생들과 교수님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학과 관련 공부를 하고, 진로에 대해 생각해보는 데 모임의 목표가 있다.

어떻게 공부했나? 2주에 한 번씩 모였다. 영어권 대표 국가에 대해 각자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와서 영어로 발표하기도 하고, 자기의 진로에 대해 고민해 본 뒤 발표하는 시간도 있었다. 다함께 교수님댁 근처 월봉산을 등산한 일이 참 특별했다. 일종의 현장학습이었는데, 협동심도 기르고 교수님과도 좀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 미국대학의 한국인 영문과 교수가 초청강의 차 우리대학에 왔을 때 다 같이 강의를 듣기도 했다.

프로그램 참여 전 VS 후 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막연하기만 했다. '이뵈고-교학상장'을 통해 교수님을 만나고 팀원들과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눈 후, 각자의 진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세가지 TIP 첫째, 교수님과 꼭 친해져라! 1학년은 지도교수가 정해지지 않아 도전장학생 등 여러 프로그램의 추천서가 필요하거나 조안을 구하고 싶을 때 마땅히 찾아볼 교수님이 없다. '이뵈고-교학상장'을 통해 교수님과 친분을 쌓으면 꼭 도움을 주실 것이다. 둘째, 보고서 작성을 꼭 해보자! 보통 보고서 작성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몇몇은 쓸 기회가 없기도 한다. 귀찮다고 안 쓴다 하지 말고 꼭 해보자. '이뵈고-교학상장' 활동 중 무엇을 했고, 그를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볼 수 있는 기회이다. 셋째, 열심히 하라! 이뵈고 활동이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고, 교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귀찮아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면 분명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05

행복한 책 읽기, 마음 속 스펙을 쌓아라

다독다독 多讀多督

영어점수, 학점, 봉사활동, 해외연수만 스펙이 아니다. 사회생활에 필요한 진짜 스펙은 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인지 모른다. 책 읽는 즐거움 속에서 나와 세상의 관계를 깨닫고, 어떤 삶이 의미 있는지 고민하면서 마음의 스펙을 쌓아보자. 교수님, 동료들과 함께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토론 공동체에서 인문학의 향기에 취해보자.

Program 05. Tip

- **목적** 전남대학교 학부생으로서 교양을 갖춘 학문 통섭형 인재 양성, 학부생들의 비판적 사고력,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등 기초 능력 배양, 학부생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 유도 및 독서 문화 확산
- **모집 대상** 전임 및 비전임 교수와 학부생(2~4학년, 참여 횟수 2회로 제한) 4~5명으로 구성된 그룹
- **모집 시기** 매년 3월, 9월 초 ● **운영 기간** 매년 3월~6월, 9월~12월 ● **신청 방법** 기초교육원 교수 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l.jnu.ac.kr>) 접속 **교수 신청 방법** ① 참여 학생이 있는 경우 : 학생과 함께 운영계획서 작성 후 접속 '다독다독' 선택 → '신청하기1' 클릭 → 공동체 등록 및 운영계획서 첨부 ② 참여 학생이 없는 경우 : 운영계획서 작성 후 접속 '다독다독' 선택 → '신청하기2' 클릭 → 공동체 등록 및 운영계획서 첨부 **학생 신청 방법** ① 참여 교수 및 동료가 있는 경우 : 공동체 개설 후 접속 '다독다독' 선

다독다독을 통해 책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됐어요.
교수님께서 평소에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스펙을 쌓아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책을 읽고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양해졌음을 느끼고 책 속의 교훈이 일상생활에서도
좋은 지침이 되는 것 같아서 기뻐요.
말하기 능력이 길러지는 건 덤이고요.



택 → '신청하기1'에서 해당 공동체에 찾아가 '참여하기' 클릭 ② 참여 교수 및 동료가 없는 경우 : 접속 '다독다독' 선택 → '신청하기2'에서 공동체 선택 후 '참여하기' 클릭 ● **활동 내용** 2주 1회 총 4회 이상 독서 토론 / 모임보고서 4회 이상 / 최종보고서 1회 제출 / 개인별 서평(희망자에 한해 제출, 우수 서평 선정 및 시상) ● **활동 혜택** 도서 구입 및 운영비 그룹 당 30만원 / 4회 이상 모임에 참석한 학생은 자기계발활동기록부 인증 / 우수 그룹 및 우수 서평 시상 / 독서 토론 대회 실시 ● **문의** 기초교육원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력 연구개발부 062-530-2335

다른 활동이 그냥 커피라면, 다독다독은 T.O.P!

법학과 <팍순세>

김원준 교수, 하종숙, 손버리, 안아람, 이두훈, 신경록_ 2010년도 참가팀

우리 팀 '팍순세'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의 줄임말이에요. 법의 본질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법학도인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할 원칙이라고 생각해서 팀 이름을 팍순세라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모였다 항상 마음만 있고 리포트, 시험을 핑계로 독서는 뒷전이었죠. 평소 김원준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풍부한 지식과 교양에 늘 감탄했어요. 인문학에 조예가 깊은 교수님과 함께 한다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을 지도해주실 것을 부탁드렸어요. 2주에 한번 정기 모임을 하고, 중간에 한 번씩 예비모임을 가져 토론의 질을 높였습니다. 모임마다 리더를 정하고 각자가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고 교수님 의견도 듣는 방식으로 진행했어요.

네 권의 책 <링컨의 일생>, <정의란 무엇인가>, <정약용의 목민심서>, <자유론>입니다. 고전과 현대서적을 적절히 섞었어요. 미래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가치관과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들을 골랐습니다. 외우기만 하는 법학도가 아니라 '생각하는 법학도'로의 발전이 우리의 목표예요.

다독다독이 좋은 이유 책은 많은 가르침과 생각의 기회를 줍니다.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다각적인 사고를 할 수도 있어요. 수업 이외에 교수님과 개별적인 모임을 갖게 되어서 좋아요. 교수님 말씀은 늘 신선하고 우리 시야를

넓혀 주시거든요.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쓰고, 발표한 뒤 토론을 하다보면 책의 내용이 진짜 내 것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짜릿해요.

세가지 TIP 첫째, 팀 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책을 읽고 모임에 참여해야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둘째, 책을 읽고 현실과 연결시켜 보세요.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사회의 문제와 대안을 토론하면서 지성인으로서의 지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셋째, 매 모임마다 리더를 선정하는 게 좋아요. 리더에게 각 구성원들이 작성한 발표문을 주면 리더가 보고서를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06

공부도 작품이다

U-러닝공동체 ‘U-makers’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UCC가 인터넷에 한가득이다. 남이 만든 것을 보고 즐기는 것을 넘어서 내가 직접 동영상 제작에 도전해보자. 단, 테마는 강의, 파트너는 교수님이다. 평소 관심 있고 흥미로웠던 전공 강의를 e-learning용으로 촬영하고 편집하여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본다. 영상기획부터 촬영기술, 동영상 편집과 활용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Program 06. Tip

● **모집 대상** 전임 및 비전임 교수 1인을 포함한 학부생 및 대학원생 3명 이내 ● **모집 시기** 매년 3월, 9월 ● **운영 기간** 매년 3~6월, 9~12월 ● **신청 방법** ① 지도교수 : '기초교육원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tl.jnu.ac.kr>) 접속 → 로그인 → '아해! 학습공동체 U-makers' → 신청하기 → 우측 하단 '신청하기' 선택 → 활동계획서(알림마당 자료실 서식모음 또는 첨부파일 참고) 작성하여 첨부 → 공동체 개설 ② 학생 : 지도교수가 공동체 개설한 후 '기초교육원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tl.jnu.ac.kr>) 접속 → 로그인 → '아해! 학습공동체 U-makers' → 신청하기 → 해당 그룹에 참여 ● **활동 내용** 10주 동안 5회 이상 브레인스토밍, 스토리보드 작성 통해 분야별 교과 콘텐츠 제작 / 2주 1회 모임 후 모임 보고서 게시/ 최종 결과물 6개 이상의 콘텐츠 제출(콘텐츠는 한 차시 당 25분 ~ 30분 이내로 제작) ● **학생 혜택** 인증 학생 지원금 200,000원 및 자기계발활동기록부에 등재 / 우수 그룹 구성원은 e-러닝 활성화를 위한 교수 보조 요원으로 추천 / 우수 그룹에게는 그룹 지원금 외에 별도 시상금 지급 / 지원금 및 시상금(우수 그룹은 인증 그룹의 20%) ● **문의** 기초교육원 교수학습지원센터 U러닝 연구개발부 062-530-2336

Program 05
제대로 맛보기!

입체적 촬영 · 신선한 편집으로 완성도 높였다

독일언어문학과 <피닉스>

조길예 교수, 이주아, 나은주, 고승희, 정경이, 박진호, 김나윤_ 2010년도 참가팀

아이디어가 많았다.

깔끔하고 입체적인 화면과 성의 있는 편집도 좋은 점수를 얻은 것 같다.

교수님께서 촬영경험이 많아서 카메라 각도나 촬영법 등은

즉석에서 배웠고 의상이나 메이크업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

다른 팀 결과물을 보니 교수님 얼굴만 계속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진짜 강의처럼 박수도 치고 토론도 하면서 활기차고 생동감 있었다.



〈피닉스〉 우리팀은? 3, 4학년 전공수업인 〈독일영화분석〉에서 만났다. 교수님께서 무료 동영상 교육도 받고 영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소개해 주셨다. 3명 이내였는데,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여섯 명이 참여했다. 오리엔테이션 때 작년 우수팀 등 쟁쟁한 학생들을 보고 긴장을 많이 했지만 즐겁게 해보자고 의기투합했다.

우리의 작업 방식 매주 한 번씩 모여 촬영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획, 촬영, 편집, 내레이션 등 역할을 분담해서 진행했다. 독일영화분석 수업 틀을 바탕으로 〈화니핑크〉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를 주제로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모습을 촬영했다. 30분짜리 영상 두 개를 촬영하는 데 6~7시간이 걸렸고, 편집도 그만큼 걸렸다. 우리는 특별히 카메라를 두 대 대여했다. 하나는 교수님을, 나머지는 우리들이 수업 듣는 모습을 측면에서 촬영했다. 촬영 후에 영상 중간 중간에 영화 장면이나 관련 영상, 감독 인터뷰 등을 편집해서 삽입해 완성도를 높였다.

기억에 남거나, 아쉽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즐거웠다. 도입부에 쓰일 벚꽃 풍경을 찾아 돌아다녔고, 촬영세트로 쓰인 강의실을 리모델링 수준으로 바꾸었다. 주말에 자정 넘도록 편집 작업을 하기도 했고 최우수상 상금은 복한 어린이 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 하지만 함께 고생했는데 규정상 두 사람만 인증을 받아 안타깝고,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영상 결과물을 다른 학생들이 볼 수 없다는 게 아쉽다. e-러닝 콘텐츠 제작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용에 대해 더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 참여 전 VS 후 모두 기계치에 가까웠고 동영상 편집에 능숙한 두 친구를 빼고는 컴퓨터 작업에 대한 두려움도 컸다. 기초교육원에서 사이버강좌 제작도구인 'eStream Presto'를 배울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 교수님과도 정말 가까워졌다. 카메라 각도, 화면배치, 구성 등을 고려하면서 주체적으로 영상을 볼 수 있을 만큼 발전했다. U-makers는 우리들의 'e-성장 프로젝트'였다.

세가지 TIP 첫째, 즐겁게 해라. 즐겁게 하다보면 아이디어가 솟고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 둘째, 깔끔한 화면을 연출하라. 카메라에 잡히는 공간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인물들의 옷은 밝게, 화장은 평소보다 진하게 이목구비를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 좋다. 셋째, 겁먹지 말고 참여해라. 하다보면 다 된다.

07

상담하며 글에 눈을 뜨다.

온라인 글쓰기 상담도우미

보고서, 서평, 체험담, 자기소개서... 대학생할 하면서 써야 할 글이 참 많다. 내 것 쓰기도 정신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의 것을 뜯어보고 조언하면서 더 좋은 글쓰기에 눈뜰 수도 있는 법. 잘 이해되지 않던 것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다보면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글쓰기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이라면 기초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글쓰기 상담실의 도우미에 도전해보자.

Program 07. Tip

● **모집대상 및 인원** 학부생 15명, 대학원생 5명 ● **지원 자격 - 학부생** 학부 3~4학년 재학생 중 평균 학점 3.5 이상 / '글쓰기' 교과 또는 '논술 중심 전공 교과'에서 A학점 이상 취득자/ 글쓰기 상담(피드백) 기법 교육 참석 가능자 / 글쓰기 관련 경력 우대(수상 실적 포함) / 글쓰기 상담 도우미 활동 경험자 우대 (단, 최대 2회까지만 활동 가능) ● **지원 자격 - 대학원생** 대학원 재학생 전공 불문 / 글쓰기 상담(피드백) 기법 교육 참석 가능자 / 글쓰기 관련 경력 우대(수상 실적 및 연구 실적 포함) / 글쓰기 상담 도우미 활동 경험자 우대 ● **모집 시기 및 활동 시기** 매년 6, 12월 모집 / 매년 3~6월, 9~12월 활동 ● **선발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서류 전형 통과자만 해당) ● **참여 혜택** 글쓰기 상담(피드백) 기법 교육 제공, 자기계발활동기록부 활동 내용 기재 / 매달(3~6월, 9~12월) 활동비 지급 ● **문의** 기초교육원 062-530-2334

남의 글 읽다보면 좋은 글쓰기 보여요

이지연_국어국문학과_2010년도 참가자

글쓰기 상담 도우미와의 인연 2009년 기초교육원 근로장학생으로 일할 때 제 1기를 뽑는다는 걸 알았다. 평소 글쓰기에 관심이 많아서 지원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글쓰기 교과 A학점을 충족하지 못해서 지원조차 못했다. 2학기 때 논술중심전공교과를 수강하고, 결국 2010년 1학기에 합격했다.

도우미는 주로 국문과생?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전공이 다양하다. 인문·사회계열 뿐만 아니라 이공계열 학생들도 아주 많다. 자신의 전공 계열과 관련된 글쓰기 상담을 할 수 있어서 능률도 높고 자기계발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어떤 준비를 하면 되는지. 가장 먼저 글쓰기 교과목이나 논술중심 전공강의 수강. 그리고 다양한 글쓰기 활동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학생기자 경험이나 글쓰기 관련 프로그램 참가 경험도 상담 도우미로 선발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주로 어떻게 활동하나? 온라인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 활동 장소는 집이다. 활동에 앞서 상담 가능 날짜를 조사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요일에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활동의 장점 같다.

활동 원칙이 있다면?

‘글을 직접 고쳐주지 말자.’ 조언과 대안만 제시하고 의뢰인들이 직접 글을 고칠 기회를 줘서 그들의 글쓰기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다. 학부모 도우미는 학생들이 기초 교육원 홈페이지에 올려 준 글을 1차 상담하고 우리가 상담한 글을 대학원생 선생님들이 2차 상담해 준다.

글쓰기 상담의 핵심은 이것 의뢰자가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잃지 않게 돕는 것. 아무리 좋은 약도 입에 쓰면 뱉기 쉽듯이, 아무리 완벽한 상담도 의뢰자에게 비수가 된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 100% 완벽한 상담보다는 의뢰자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조언하는 것이 좋다.

세가지 Tip 첫째, 글쓰기 전 개요를 먼저 짜자.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그리듯이, 글쓰기도 개요를 먼저 짜보면 탄탄한 구성을 가진 글을 쓸 수 있다. 둘째, 시간 여유를 두고 여러 번 글을 반복해서 고치자. 급하게 쓴 글 중에 훌륭한 글은 드물다. 정말 잘 쓴 것 같은데 며칠 후 읽어보면 창피했던 경험들 있을 거다. 몇 번씩 읽어보면서 다듬어보자. 셋째, 다른 사람에게 내 글에 대한 조언을 구하자. 내 글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실수나 더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주변에 조언을 구할만한 곳이 없다면 온라인 글쓰기 상담실을 이용해 볼 것을 강추한다.

상담 도우미가 되기 위해 받은 피드백 교육이 큰 도움이 됐다.
어떤 글이 잘 쓴 글이고, 좋은 글이 되기 위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배웠다. 이런 집중교육을 받는 건 큰 행운이다.
내 글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보게 된 것도 큰 수확이다.
상담횟수가 늘고, 대학원생 선생님들의 2차 피드백을 받으면서 점점 내가 발전하고 있음을 느꼈다.

08

연구로 승부하자

문제해결능력 향상 프로그램

취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당장 해결해야 할 프로젝트가 떨어진다
면? 당황하지 않고 성공적 결과로 상사들을 놀라게 해줄 방법이 있다. 바로 학교에서 미리 그 과정을 훈련해 보는 것. 전공과 관련한 연구 과제 선정부터 진행계획 수립, 계획서 작성, 프로젝트 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과정을 교수님이나 대학원 선배의 지도 아래 6개월 동안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문제해결능력 향상 연구프로젝트로 사회현장 적응능력 지수를 끌어올려보자.

Program 08. Tip

● **모집 대상** 공고일 현재 전남대학교 학부 2~4학년에 재학(2학기 휴학예정자는 지원 불가)하고 있는 자
① 약 220개 과제 : 신규 참가자 선정 지원 ② 약 20개 과제 : 통섭형 과제 및 심화 과제 선정 지원 ✎ 통섭형 과제는 학부(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지 않고 전공 영역을 넘어서 팀원을 구성하여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학문융합(통섭학문)형 연구과제를 선정한 자를 선발 ✎ 심화 과제는 전년도 우수보고서 제출자 및 잠재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심화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우수연구자 계속 지원 ● **모집 시기** 매년 4, 5월경 ● **활동 기간** 매년 5월~11월 ● **접수 방법**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 ※먼저 이코미(지도교수 또는 대학원생)를 정하고, 이코미와 협의하여 프로젝트 수행과제를 정한 후 지원신청서 제출 ● **선발 방법** ① 학생은 이코미(지도교수 또는 대학원생)를 정하고, 이코미와 협의하여 프로젝트 수행

과제를 정한 후 소정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부(과)에 제출 ② 학부(과)장은 과제의 타당성, 연구 수행팀 구성 내역 등을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발하여 해당대학 행정실에 제출 ③ 단과대학장이 단과대학 지원팀에서 정한 자체 기준에 의거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의 과제 선정의 타당성, 연구수행자(팀) 자격 및 구성 내역 등을 평가하여 대학별 배정 과제수 범위 내에서 최종 과제 수행 대상자를 선발 ● **활동 내용** 프로젝트 진행은 1:1로 구성된 이교미(지도교수 또는 대학원생)의 지도하에 과제 선정, 프로젝트 진행계획 수립, 계획서 작성, 프로젝트 수행, 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등으로 이루어짐 / 과제 수행 결과는 프로젝트 수행 결과보고서 및 연구보고서(논문)를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 ● **활동 혜택** 과제의 규모를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여 지원(소형 : 학생 1인이 단독과제 수행 / 중형 : 학생 2인~5인 이내 팀과제 수행 / 대형 : 학생 2인~5인 이내 실험(설문 포함)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 과제 수행 ● **문의** 교육지원과 062-530-1023

2011년

236과제, 연구도 도전이다

2011년에는 통섭형·심화 과제 13개를 비롯해 총 236개 과제를 수행했다. 인문계열에서는 경영대학 옥상 리모델링, 교수매체 개발 원리를 적용한 태블릿 PC(Tablet-PC)용 전자책(App-book) 개발, 분청사기의 형태와 문양을 모티브로 광주의 브랜드 상품개발 등에 관한 과제를 연구하고, 자연계열에서는 Smart Plug, 자율주행자동차에 필요한 주요 시스템 분석 및 보완, 옥상녹화 재료에 따른 실내 온도 변화 분석, 트로코이드에 대한 이해 및 트로코이드를 이용한 곡선탄구, PTP1b 단백질과 저해제 복합체의 3차 분자 구조 연구 등에 관한 과제를 진행했다. 각 단대와 학부(과)별 주요 과제를 살펴보고 나는 어떤 연구에 도전할지 계획을 세워보자.

간호학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와 정신보건문제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 : 광주광역시 일 지역을 중심으로

간호학과

기관지 천식환자에서 기관지 확장제 사용법에 따른 폐기능과 안전성에 미치는 효과

간호학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부관계만족도, 건강증진행위, 노후불안 간의 관계

경영학부

광주-전남의 지역경제와 중소기업

경영학부

수급권 중심의 기업연급제도 발전에 대한 연구

경영학부

대학생의 녹색마케팅 인지정도와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경영학부

SNS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 고찰

경영학부

옥외간판의 실태와 정부규제와의 괴리

경영학부	소셜커머스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그 단면과 해결
경영학부	학생들이 건의사항을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경영학부	전남대학교 에코캠퍼스정책의 현상진단과 발전방향 제시
경영학부	고령화시대의 인적자원관리
경영학부	연금의 IFRS과 GAAP의 차이점
경영학부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
경영학부	저축은행 사태로 본 투자자들 자세
경영학부	SNS 마케팅의 순기능과 역기능 : 블로그 마케팅을 중심으로
경영학부	학생들의 불공정한 성적취득 실태 조사 및 해결
경영학부	경영대학 옥상 리모델링
경영학부	녹색 성장 사례 연구
경영학부	전남대생 기숙사 수요 해결방안
경영학부	국내산업 발전과 대기오염
경영학부	오감 마케팅
경영학부	고도화되는 한국의 산업구조
경영학부	일본지진이 한국 경제, 산업에 미친 영향
경영학부	신용협동조합 청년 조합원 증대 방안
경영학부	단과대학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경영학부	제1학생식당의 개선
경영학부	우리나라 청년 실업의 원인 규명과 해결방안 모색
경영학부	SNS 기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와 요인분석
경영학부(경제학부)	탄소세의 영향과 도입방안
경영학부(물류학과)	농산물 유통에 관한 연구(인삼유통,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경영학부(불어불문)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본 녹색성장전략
경영학부(응용생물공학부,사학과)	고객만족을 위한 고객센터 품질관리 개선과 올바른 모델
경제학부	통일재원 축소를 위한 한국 기업과 북한 기업의 전략적 제휴
건축학부	무시멘트 그린 콘크리트의 물리적 특징
건축학부	도시형 생활주택 마감공사의 TACT공정관리 적용방안
건축학부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을 통한 도시의 공간 구조 연구
건축학부	교통소음의 레벨에 따른 성가심 반응 비교 연구
건축학부	현대 한옥의 음향성능 평가 연구
고분자·섬유시스템공학과	PDA와 PVA 함량에 따른 센서의 민감성 측정
고분자·섬유시스템공학과	Sol-gel 법을 이용한 발수 발유 표면 접촉각 측정

고분자·섬유시스템공학과	PP/PU의 블렌드 제조를 통한 대전 방지성과 도장성의 향상 모색
고분자·섬유시스템공학과	나노과학을 적용한 담수화용 역삼투막 개발
고분자·섬유시스템공학과	폴리(이릴이크릴아마이드)의 Photo-Fries 전위반응에 의한 형광 화상 기록에 관한 연구
고분자·섬유시스템공학과	Sol-gel 법을 이용한 수분산성 Polyurethane/Silica hybrid 제조
고분자·섬유시스템공학과	수분산 폴리우레탄 아크릴레이트 제조 및 물성 측정
고분자·섬유시스템공학과	고분자 나노소재의 제조 및 에너지 장치의 적용
고분자·섬유시스템공학과	리튬이온이차전지 분리막용 UHMWPE/SiO ₂ 복합체의 제조 및 물성 연구
기계시스템공학부	자작 자동차
기계시스템공학부	자작 자동차 연구 및 개발
기계시스템공학부	연료전지 수소재순환용 Ejector 최적 설계
산업공학과	지울주행자동차에 필요한 주요 시스템 분석 및 보완
산업공학과	국내 뿔나무 잎의 천연추출조건과 알칼화 최적배합비율의 결정을 위한 실험계획법의 적용
산업공학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공유
산업공학과(경영학부)	동문소핑몰 구축을 통한 장학기금 확충 모델 제시
산업공학과(화학공학)	특허 Database를 활용한 해양 구조물 기술 동향 분석 및 특허 전략 제시
신소재공학부	양극산화법을 이용하여 제조된 나노튜브 구조의 TiO ₂ 광촉매 특성
신소재공학부	저온수열합성법을 이용하여 GaI 도핑된 ZnO 박막제조 및 특성평가
신소재공학부	Ag첨가에 의한 TiO ₂ 광촉매의 특성평가
신소재공학부	Eco-friendly, Healthy Lamp
신소재공학부	에어라이프 표면에 코팅된 TiAN 및 CrN층이 용융아연과의 반응성에 미치는 영향
신소재공학부	ZnO를 Mg와 Ga를 이중도핑한 투명전극 제작
신소재공학부	c-BN 박막의 Sputtering 공정조건과 내마모성 연구
신소재공학부	Li4Mn5O12 합성화 최적화
신소재공학부	스퍼터링 방법을 이용한 CIS 흡수층 개발
신소재공학부	염료감응형 태양전지(Dye-sensitized Solar cells)용 TiO ₂ 합성
신소재공학부	OLO 합성 최적화
응용화학공학부(광·전자화공소재전공)	LCD 특성 분석 및 광시야각, 응답속도 개선
응용화학공학부(광·전자화공소재전공)	고분자 재료를 이용한 유기광소자 제작 및 평가
응용화학공학부(광·전자화공소재전공)	블루투스는 왜 성공하지 못했나?
응용화학공학부(광·전자화공소재전공)	Ge ₂ Sb ₂ Te ₅ 박막의 비정질 결정질 천이 특성
응용화학공학부(광·전자화공소재전공)	전남대학교 학생 편의시설 현황과 개선방안
응용화학공학부(광·전자화공소재전공)	PLLA/현무암 섬유 복합체의 특성분석
응용화학공학부(정밀화학전공)	ALD(원자층증착) 반동기 설계 및 문제 해결 방안

응용화학공학부(정밀화학전공)	SOFC 성능 향상을 위한 대체 공기극 물질 개발
응용화학공학부(화학공학전공)	Aspen plus를 이용한 Depropanizer 공정모사 및 최적화
응용화학공학부(화학공학전공)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고삼으로부터 genistein의 추출과 항산화 효과 측정
응용화학공학부(화학공학전공)	전남대학교의 조명 및 냉방 에너지 소비 현황 실태조사
응용화학공학부(화학공학전공)	제어기 종류별 제어특성 분석
전기공학과	Smart plug
전기공학과	온도감지 LED조명
전자컴퓨터공학부	무선통신을 이용한 POV
전자컴퓨터공학부	Smart Presentation
전자컴퓨터공학부	제스처인터페이스를 활용한 3D DJ 장치
전자컴퓨터공학부	무선통신(블루투스)을 이용한 마우스패드 안드로이드 어플
전자컴퓨터공학부	OpenFlow 기반 미래인터넷 테스트베드 구축
전자컴퓨터공학부	GUI를 기반으로 한 뇌파 출력을 위한 다목적 시스템 구현
전자컴퓨터공학부	RFID,USN Systems와 근거리 통신을 위한 저전력, 송신 스위칭 Alarm 알고리즘 구현
전자컴퓨터공학부	안드로이드 게임 컨트롤러
전자컴퓨터공학부	무선통신을 이용한 모터제어
전자컴퓨터공학부	코골이 및 무호흡 감지를 위한 착용형 시스템 개발
전자컴퓨터공학부	LED 통신 전송 시스템
전자컴퓨터공학부	모바일 원격 제어를 통한 주말농장 가꾸기
전자컴퓨터공학부	탐사로봇
전자컴퓨터공학부	LED를 이용한 가시광 무선통신 모듈레이션 연구
전자컴퓨터공학부	음원의 시간 감성변환
전자컴퓨터공학부	소형의 마이크로스트립 삼중모드 공진기 개발
전자컴퓨터공학부	LED를 통한 무선 광통신 음원전송 및 주파수 대역 가시 구현
전자컴퓨터공학부	소방장비 탑재 음성보조시스템 개선
전자컴퓨터공학부	이중모드 공진기를 이용한 다중대역 필터 설계
전자컴퓨터공학부	TTS 엔진과 QR코드를 이용한 다국어 음성지원 전자도서 어플리케이션
전자컴퓨터공학부	영상처리를 통한 모바일 기기 움직임 추정
전자컴퓨터공학부	OpenCV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페이퍼 구현
전자컴퓨터공학부	무선통신 라인트레이서
전자컴퓨터공학부	실시간 날씨 정보에 기반한 식물 육성 애플리케이션
전자컴퓨터공학부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토목공학과	차량진동에 의한 연약지반 침하 평가 연구

환경공학과	대기입자 크기분포 측정을 위한 다단 입액터 설계 및 입자크기별 화학적 성분 특성 연구
환경공학과	Bacterial Cellulose를 이용한 인공혈관제조
건축학과	전라남도형 패시브하우스 모델 개발연구
기계자동차공학부	고고도 관측장비 유도착륙
기계자동차공학부	폭기설비용 라인믹서의 압력손실 특성
응용수학과	실소와 복소수에서 특성들의 비교
전기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LabVIEW를 이용한 지표면 환경 탐사로봇
전기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ZnO를 이용한 LED투명 전도막
환경시스템공학	하수 고도처리를 위한 연속 회분식 반응조 (SBR)운전 및 설계
환경시스템공학	친자원 자원 활용을 위한 폐각의 소성온도에 따른 특성연구
환경시스템공학	폐수슬러지의 특성 및 혐기성 생분해도 연구
동물자원학부	한우난자의 동결보존과 체외수정란 생산
동물자원학부	돼지미성숙난포란의 동결보존
산림자원학부(임산공학전공)	목재건축물 보존을 위한 수분 측정 및 건조도 예측
산림자원학부(임산공학전공)	바이올린 동체의 동적 거동 규명
산림자원학부(임산공학전공)	Oxalic Acid 전처리를 이용한 버섯 폐배지로부터 바이오에탄올 생산
산림자원학부(임산공학전공)	바이오에너지 생산용 미래 바이오매스 자원 개발
산림자원학부(임산공학전공)	목조건축물 부재의 수분 역제를 위한 방안 연구
산림자원학부(임산공학전공)	구조용 집성재의 접착제 종류에 따른 특성 비교 연구
산림자원학부(임학전공)	전남대학교 캠퍼스 식물(목본)의 중구성 분석
식물생명공학부(원예생명전공)	배추흰나비의 Leboicin(antimicrobial peptide)유전자 클로닝 및 발현양상 규명
식물생명공학부(원예생명전공)	배추흰나비 FK506 binding protein 12의 유전자 클로닝 및 발현 패턴 연구
식물생명공학부(원예생명전공)	지구 온난화에 따른 배 흑성병 발병에 대한 연구
식물생명공학부(응용식물학전공)	지상 원격탐사를 이용한 벼 생육 모니터링을 위한 식생지수 도출
응용생물공학부	효율적인 취업 프로그램 홍보방안 수립-정기 인세매제를 중심으로
응용생물공학부(분자생명공학)	STAT5 muscle K,O mouse에서 Growth Hormone의 Glucose와 Lipid metabolism에 대한 영향
응용생물공학부(생명화학전공)	농산물 중 약제의 잔류경향 및 안전사용기준 설정
응용생물공학부(생명화학전공)	매실에 사용되는 살균제의 안정성 평가
조경학과	옥상녹화 재료에 따른 실내 온도 변화 분석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소셜네트워크의 현 추세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역기능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기후변화에 따른 농촌 지역의 유출 분석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농업 기계의 지능형 주행 알고리즘 개발에 관한 연구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트랙터의 친환경 연료이용의 가능성과 그 전망

멀티미디어전공	웹 최신 표준을 준수하는 홈페이지 제작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친환경 파고라 디자인에 관한 연구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에 있어서 사진의 관련성 연구
시각정보디자인학과	Public Graphic 디자인 창출을 위한 타이포그래피의 유용성 연구
영어학전공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집에 대한 분석
일본학전공	EXPO 대비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탐색
중국학전공	중국의 음식문화에 대한 연구
법학과	대한민국 여성노동시장분석과 문제점 고찰에 따른 개선방안 모색
행정학과	행정학과 학생들의 공무원시험 준비에 관한 현황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
가정교육과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이미지와 교복변형행동에 관한 연구
가정교육과	전남대학교 학생의 식습관 실태 조사
교육학과	웹기반 학습에서 교육용에이전트(Pedagogical Agent)의 이미지와 나레이션의 유형이 학습자의 인지부하 및 학습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과	교수매체 개발원리를 적용한 타블렛PC(Tablet-PC)용 전자책(App-book)개발
국어교육과	방언의 가치와 방언교육의 필요성
수학교육과	스피로그래프에 관한 연구(On the Spirograph)
수학교육과	그래프의 인접행렬의 고유값, 고유벡터 연구
역사교육과	백제사 교육을 위한 현장답사 배움책 제작 - 공주·부여지역을 중심으로 -
영어교육과	현장에서의 영어교사와 학생간의 인식 차이 연구
영어교육과	면역과 레트로바이러스
윤리교육과	한국인의 이중적 가치구조를 고려한 도덕윤리와 수업방안 탐구
지구과학교육과	천체운동방향 학습모듈이 예비교사들의 개념변화에 미치는 효과
지리교육과	GIS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와이파이 명당 찾기 : 전남대 주위를 중심으로
지리교육과	경관, 장소성, 장소 마케팅에 대한 지리적 해석
체육교육과	규칙적인 운동이 장애청소년들의 신체조성 및 기초체력과 혈중 지질에 미치는 영향
체육교육과	흡연과 운동습관이 남자대학생의 신체조성과 폐기능, 혈중지질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부	지역교육청 홈페이지 분석 연구 - 특수교육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
문헌정보학과	독서캠프 운영 프로그램을 통한 독서지도 방법 연구
사회학과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생 인권의식 실태 조사
심리학과	학교에서 나타나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그리고 차별
인류학과	탄화물 분석을 통한 백제 음식 문화 복원
정치외교학과	동북아(한중일) FTA와 경제공동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책적, 외교안보적측면을 중심으로
정치외교학과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과정 조사연구

식품영양학과	분열효모의 스트레스 저항성에 대한 TRP32의 기능연구
의류학과	한국과 중국의 교복 패션 비교 분석
의류학과	홍콩 패션 시장 조사-아시아 최대 패션도시의 시장조사
의류학과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위한 한국 패션계의 움직임에 관한 조사와 가상 글로벌 브랜드 런칭
양식생물학전공	국내산, 중국산 미꾸라지의 형태 및 유전적 비교연구
양식생물학전공	제브라다니오(Brachydanio rerio)의 난발생 및 자치어 형태 발달
해양경찰학과	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 재결례 분석
해양경찰학과	소말리아 해적 퇴치 방안에 대한 고찰
수의학과	랫드에서 Adriamycin의 교환독성에 대한 Melatonin의 보호효과
수의학과	난소적출술에 의해 유발된 뼈손상에 대한 당귀의 효과 평가
수의학과	랫드에서 hexachromium의 정지독성에 대한 pycnogenol®의 보호효과
수의학과	Trimethyltin 투여 뇌손상 모델 연구
약학부	PTP1b 단백질과 - 저해제 복합체의 3차 분자 구조 연구
국어고(철학과)	한국불교의 기복신앙과 제례음악
미술학과	분청사기의 형태와 문양을 모티브로 광주의 브랜드 상품개발
미술학과	DC-Study
국어국문학과	문학과 회화의 상호 텍스트성 연구 - '뽕장어스투'와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과	박민규 '아침의 문'에 나타난 정신병리학적 징후
국어국문학과	고산 윤선도 시조 연구 - '오우가'와 '어부사시사'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과	한국 현대소설의 문체 양상 연구를 통한 표현방법론 습득
국어국문학과	다시래기로 통해서 본 죽음의 신명(장례)
국어국문학과	박조열 작가의 희곡 '토끼와 포수' 희극성 연구
국어국문학과	1990년대 이후의 여상의 타자성 극복과 한계에 대한 작품 분석하기
국어국문학과	스토리텔링을 통한 호남 관광자원의 활용 방안
독일언어문학과	생태도시 프라이부르크의 친환경정책 연구
독일언어문학과	남·북한통일 정책에 독일 통일 정책의 수용가능성
독일언어문학과	영화로 본 독일통일 과정 연구
독일언어문학과	독일교육을 통해 본 대한민국교육의 발전방향
독일언어문학과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에 대한 대책 연구
독일언어문학과	독일 나치 시기의 재즈음악 정책
독일언어문학과	제2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육
독일언어문학과	문화차이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문화간 의사소통 방안 이문화간 의사소통 방안
불어불문학과	'서래마을' 프랑스인의 삶과 한국인과의 문화적 교류

불어불문학과	전라도 음식 그리고 프랑스 와인 그들의 짜릿한 만남
불어불문학과	원어 연극이 프랑스어 교육에 미치는 학습효과
사학과	1950년대 한국전쟁 영화의 성격과 양상
사학과	고려시대 선박의 역사적 의미
사학과	고구려, 백제의 건국신화 - 소서노에 대한 고찰 -
영어영문학과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과 '위대한 유산' 에 나타난 빅토리아시대의 문제점과 현대의 문제점 비교
영어영문학과	현 중 · 고교 영어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일어일문학과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사건에 대한 패해의식
중어중문학과	老舍의 '月牙兒' 에 나타난 '달' 의 의미에 관한 연구
철학과	예술의 종말 이후
철학과	공화주의를 통해 본 대학생 인권
철학과	사랑의 의미 -플라톤의 '향연' 을 중심으로-
철학과	무상급식과 아동인권
철학과	독재의 그늘의 제주 4.3에서부터
철학과	노동자들의 보수화
물리학과	RENO 실험에서 선형알킬벤젠 기반 액체섬광검출용액의 광학적 특성 연구
생물학과	메타게놈에서 발굴한 신규청색형광단백질(mMFP)의 monomerization
생물학과	전남대 학생의 공인영어성적 향상을 위한 소그룹 활성화 방법
수학과	자기동형사상군과 리만함수의 합성반복함수에 대한 역학기하구조
지구환경과학부(지질환경전공)	토양 내에 존재하는 자연발생석면의 광물학적 특성 연구
지구환경과학부(지질환경전공)	탄산염암 내 자연발생석면에 대한 광물학적 연구
지구환경과학부(해양환경전공)	강화도 여차리 조간대 사구의 형태 특성 및 이동 양상 연구
통계학과	고교내신성적, 수능성적에 따른 성취도(학점) 분석
통계학과	해양심층수와 일반 물이 이용된 화장품이 인체에 미치는 효능 비교
통계학과	일원배치분산분석과 이원배치분산분석의 자료를 통한 비교
통계학과	이원배치법에서 결측치 예측방법에 대한 민감도 분석
화학과	광학 On-off형 양이온 검출센서 개발
생명과학기술학부	Identifying genes involved in ovarian stem cell self-renewal and differentiation
생명과학기술학부	흡연의 인체 위해성과 사회적 갈등 연구
생명과학기술학부	효소전환 방법을 통한 약물대사체 제조 방법 연구
자율전공학부	국내 블로그 이용현황과 바람직한 블로그 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09

공부 잘 하는 방법 알려준다고요?

학습법 워크숍

대학에서 공부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 학습전략, 전공공부를 재미있게 소화하는 방법, 마인드맵을 활용한 시간관리 및 노트필기 방법,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작성과 발표 요령, 학습유형에 맞는 나만의 학습 방법, 자기주도 학습전략(학습동기 향상 전략, 시간관리 전략, 기억력 및 집중력 향상 전략, 노트필기 및 시험관리 전략) 등 다양한 학습방법을 알려주는 워크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학습법 워크숍은 효과적인 학습법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광주·여수 캠퍼스에서 각각 4회 실시하며, 4회(8시간) 참여한 학생들에게 자기계발활동기록부 인증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Program 09. Tip

● **모집 시기** 매년 4월, 10월 중 ● **강좌 기간** 매년 4~5월, 10~11월 중 ● **신청 방법** 기초교육원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tl.jnu.ac.kr>) 로그인 → 프로그램 → 학습법 워크숍 → 해당학기 학습법 워크숍 → 캠퍼스 선택 ● **워크숍 내용** 매학기 마다 다름 ● **참여 혜택** 자기계발활동기록부 기재 (4회, 8시간 참여학생) ● **문의** 기초교육원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력 연구개발부 062-530-2332

일차교육
보고서 상 상 상



함켜라!

‘공부일촌’ 5주차 학습보고서

참여 프로그램 한울학습 T1 한울학습 () T2 새내기 한울학습 ()

공부일촌 S1 공부일촌 (●) S2 공부일촌 ()

교과목(주제) 지구촌 시대의 소통전략(외국어강의) 공동체 명 고상한 야만인들Vol.4

지도교수 면담 여부 (X)

면담내용

학습목표 문화 간의 비언어 communication에 대해 알아보자.

학습내용 및
과정

- 문화 간의 비언어 communication에 대해서 각자 예를 조사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를 들어 직접 설명해주고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혼자서 하기 쉽지 않은 양을 그룹이 되어서 하니 양질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 비언어 Communication

우리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정보원과 환경의 이용에 의하여 생기고 정보원과 수신자에게 메시지 가치를 지닌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모든 비언어 자극을 포함한다.”고 제안한다. 이 정의가 좀 긴데 그 이유는 비언어 communication의 경계를 확실히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작용하는 과정을 반영하는 정의를 제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의는 또한 모든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의도적 행위는 물론 비의도적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당신의 비언어 메시지들이 남들에게 전달하는 의미를 알지도 못한 채 수많은 비언어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법은 현실적인 것이다. 언어 communication에서 당신은 의식적으로 어휘를 생각하여 어떤 단어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당신은 종종 의식적으로 웃거나 착용할 보석을 고르지만 또한 상호작용의 일부가 되겠다고 의도하지 않은 수많은 메시지를 보낸다. 그 예로 햇빛 때문에 눈을 찡그리면 어떤 이는 당신이 화났다고 생각하고, 머리에 남아 있는 샴푸는 당신을 바보처럼 보이게 만들고, 지나치게 오랫동안 상대방의 손을 잡고 있는 자세는 당신의 의도와는 달리 시시덕거리는 것으로 생각하게 할 수 있다. 이들이 모두 당신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가 된다.

이러한 비언어 communication이 중요한 이유는 고상한야만인들은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결론을 지었다. 비언어 행위의 중요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태도와 가치에 관한 단서를 수집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문화적 차이가 비언어 communication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문화에 따른 비언어 communication의 표준 규칙을 원활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Assignment에 대한 토론, 이제까지의 학습 내용 복습

우리는 각자 조사한 문화에 따른 비언어 communication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태우는 비언어 communication 중 '자세'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태우는 자세와 앉는 습관은 문화의 구조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자세의 예로 격식이 없는 자세가 흉이 되지 않는 미국의 문화를 예로 들었다. 무의식적으로 의자에 걸터앉거나 단정치 못한 자세로 설 때 이러한 가치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자세는 격식을 요구하는 스웨덴과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는 무례한 것으로 인식된다고 말하였다. 주연은 시선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시선을 6가지 역할로 분류하였다. 주의력, 관심과 격려를 나타내고 태도 변화와 설득에 영향을 미치며, 인관관계를 조절하고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선은 힘과 신분관계를 규정하고 인상의 관리에서 중심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진수는 신체접촉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진수는 '호밀밭의 파수꾼'의 한 구절을 직접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나는 그 애와 손을 잡고 다녔었다. 대수롭지 않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녀의 손을 잡으면 기분이 무척 좋았다. 많은 여자아이들은 손을 잡으면 죽은 듯이 가만히 손을 맡기거나 지루하지 않게 하려는 듯 설새 없이 꿈지락거리곤 한다.>. 진수는 우리가 사춘기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문화는 접촉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문화 자체와 마찬가지로 의식, 무의식적으로 당신은 접촉을 정중함의 표시로, 성, 위안, 지지 및 통제를 위해 이용한다고 발표하였다. 누리는 비언어 communication의 한 종류인 '냄새'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코를 비비는 행위로 알려진 전통적 에스키모의 키스는 또한 '서로 냄새 맡는 알'이 포함된다. 발리에서 연인들이 서로 인사할 때 이들은 깊게 숨을 쉬면서 서로 냄새를 맡는다. 필리핀인들 사이에서 냄새는 감각정보수집에 큰 역할을 한다. 이렇듯 냄새는 비언어 communication으로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평가 및 소감 - 기대 이상의 모임을 가진지 4번, 이번이 5번째 모임이었다.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 고상한 야만인들은 또 다른 신선한 충격을 주듯 토론에 열심히 임하고 정보를 수집하여왔다. 혼자서는 힘들 수 있는 막대한 양을 그룹을 지어 서로 공부하니 시간

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이해할 수 있어 양질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다음이 6번째 모임이다. 물론 훌륭히 해낼 우리의 고상한 아만인들을 믿으며 마지막 모임까지 완벽한 모임이 되길 기원한다.

과제 다음 주 진도인 10, 11단원을 서로 공부해오고 각자 맡은 파트를 발표할 준비를 해온다. 추가로 jane의 3번째 report의 draft를 작성해오고 상의해 볼 시간을 갖기로 한다.

피드백 의견 중간고사 공부도 열심히! 모임 준비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벌써 5번째 모임이 아쉬울 정도로 서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고상한 아만인들의 모습을 기대해주시고, 다음 주 보고서 또한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주 계획 다음 주 진도인 10,11단원을 미리 공부해와 수업 참여도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며, report의 draft를 작성하여 질 높은 report를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온다.

2011년 11월 5일
이끄미 및 공부일촌 대표 : 김주연
제출자 : 김주연

‘한울학습’ 5주차 학습보고서

참여 프로그램 한울학습 T1 한울학습 일반 (●) T2 새내기 한울학습 ()

공부일촌 S1 공부일촌 () S2 공부일촌 ()

교과목(주제) 식품화학의 개념 및 식품과 건강에 밀접한 관계를 알아본다. 공동체 명 Food Chem

지도교수 면담 여부 (×)

면담내용

학습목표 유지의 변질에 대한 개념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알고 산패 mechanism을 알아 본다.

학습내용 및 과정

- 이번에 모임을 가진 날은 11월 3일로, 모두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주라 마음에 부담은 조금 덜고 모였다. 다 모이자마자 가장먼저 이끄미 언니가 식품화학 교과목의 시험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물었고, 저번주 때 말씀해 주셨던 전분의 호화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출제 되었으며 맨 처음에 배웠던 식품 구성성분에 대한 문제도 나왔다고 말해주었다. 모두들 시험을 두고 공부했던 터라 열심히들 했지만, 특히 최근에 배웠던 호화과정이가 가장 머리에 이해도 잘 되었고 개념정리도 잘 돼서 모두들 시험지에 막힘없이 썼다고 하여 이끄미 언니가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셨다.

이번에 배우는 주제는 유지의 변질(Deterioration of fats and oils)로 말 그대로 식품에 유지의 변함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는 단원이었다. 유지란 상온에선 oil, solid상태를 한 글자씩 따서 명명한 개념으로, 이는 성분차이로 인한 특징을 바탕으로 지었다고 한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똑같은 지방인데 상온에서 기름인 형태(식용유)와 고체인 형태(버터)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유지는 L-glycerol과 3분자의 지방산이 결합하며 3분자의 물이 빠져나가게 되어 Triacylglycerol을 형성한 것이며, 탄소수가 12개 이하는 저급지방산, 13개 이상은 고급지방산이라 일컫는다. 이끄미 언니가 소의 젖이나 가축의 유(乳)종류가 갖는 지방이 탄소수 12개 이하의 저급지방산이라 산패시 냄새가 좋지 않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저번주에 내주었던 과제대로 이끄미 언니께서 유지 변질에 미치는 인자에 대해 알아보았냐고 하자 따르미들 모두가 깨알같이 적어온 내용을 한명한명 돌아가면서 말했고, 대체적으

로 pH, 효소, 수분함량, 항산화제등을 중복적으로 말했다. 조사해온 내용처럼 유지변질의 종류에는 가수분해, 산화적 산패, 중합, 변향에 의한 변질이 있으며 가수분해에 의한 변질은 빠졌던 물 분자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산, 알칼리, 효소등과 함께 만나 변질하는 것이며, 산화적 산패에 의한 변질은 산화적 자동산화에 의한 산패가 있다. 자동산화는 말 그대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으로, 이는 불포화도가 클수록 (즉, 이·삼중 결합이 많을수록) 산화속도가 증가한다. 이러한 자동산화는 식품에서 매우 두드러야하는 반응인데, 이러한 반응 mechanism은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①초기반응, ②전파반응, ③Hydroperoxide의 분해, ④종결반응으로 나뉜다.

이 4단계의 mechanism은 다음 시험때 꼭 나올 것이라며 이끄미 언니가 신신당부했던 내용이었다.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 화학반응식이 나열되어 따르미들이 알기에는 나름 어려운 단계였는데, 이끄미 언니가 식품을 구성하는 요소인 탄, 단, 지방에 대한 개념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숙지해야된다고 말해주어 천천히 화학식 반응을 이해해가며 공부할 생각이다. 그리고 중합과 변향에 의한 산패는 불포화도가 큰 지방산에서 많이 일어나며 중합은 탄소의 이중, 삼중결합의 재배치가 일어나 공액이 중결합체계를 갖고 다른 유지 분자의 이중결합과 부가반응을 일으켜 이중결합에서 환상구조물질로 만들어 버리는 반응을 말하며, 변향은 말 그대로 산패 발생 전에 고유의 향 변화로 산패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이끄미 언니께서 변질요인4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건 자동적 산화에 대한 변질이라며 다시한번 천천히 이해되 모르겠거나 이해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물어보라고 해주셔서 감사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전체적인 유지 변질에 대한 요인에는 산화촉진제, 항산화제가 있으며, 산화촉진제에 대표적인것은 수분함량과 광선, 금속이온 등이 있고, 항산화제에 대표적인 건 Vit E, Sesamol, Gossypol등이 있다. 유지에 수분함량은 촉매작용으로써 작용이 크며, 수분함량이 어느정도 있어야 산패작용도 일어난다. Vit E나 Sesamol, Gossypol등은 천연 항산화제로 유지의 구조를 안전하게 유지시켜주어 산패를 억제시켜주는 물질이다.

평가 및 소감

시험이 끝나고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여 오랜만에 한 스터디였는데, 생각보다 이번 배운 내용이 어려워서 스터디 도중에도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 따르미들이 기말시험을 미리 걱정하였다. 하지만 이제 한 단원 배운건데 미리 겁먹지 말고 모르는게 있으면 제발 찾아와 물어봐서 얼어가라며 이끄미 언니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평소 스터디때도 궁금해서 물어보면 다음 스터디때 꼭 찾아와서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후배인걸 넘어 친언니처럼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다.

과제 단백질의 성질, 단백질의 변성 원인에 대하여 알아본다.

이꼬미 역할 이꼬미 언니는 스터디 전반적인 진행을 도와주는것 뿐만 아니라, 선배로서의 역할, 친 언니 역할을 도맡아 잘못된 부분도 바로잡아주고 전공에 있어서 알아야 할 부가적 지식이나 대외활동, 교과목 수업들에 대한 개념과 이론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도 어려모로 말씀을 많이 해주어 이꼬미 언니께 얻어가는게 많아 감사하다.

피드백 의견 4주차 보고서 내용이 전반적으로 좋으시다는 말이 써있어서 이번 보고서를 쓸 때 부담을 조금 많이 느꼈습니다. 따르미들이 돌아가며 보고서를 쓰는 터라, 서로 글 쓰는 스타일이 달라 문체며 나열하는 형식이며 그대로 따라하는것도 아닌것 같아 최대한 학습내용이 잘 드러나게, 학습에 대한 개념과 목차나열을 중점적으로 스터디 도중에 나온 질문이나 내용들과 이꼬미 언니의 설명을 적었습니다.

다음주 계획 아미노산의 성질, 단백질의 성질, 단백질의 변성과정 및 변성 원인에 대하여 알아본다.

2011년 11월 5일
이꼬미 및 공부일촌 대표 : 송민유
제출자 : 유가은

드림캘린더로 설계하는
나만의 알찬교육
프로그램



나만의 일차년도교육 프로그램 캘린더

16~17p 캘린더 일정을 참고로 자신의 프로그램 참여 일정을 설계해보세요.

프로그램/운영기간 (월)	1	2	3	4
<아해! 학습공동체 : '공부일촌·한울학습'> 기초교육원 062-530-2332				
<세계 학습공동체 : '누리드리'> 기초교육원 062-530-2333				
<신입생-교수 세미나 : '이뤘고-교학상장'> 기초교육원 062-530-2334				
<독서토론 공동체 : '다독다독'> 기초교육원 062-530-2335				
<U-러닝공동체 : 'U-makers'> 기초교육원 062-530-2336				
온라인 글쓰기 상담도우미 기초교육원 062-530-2334				
문제해결능력 향상 프로그램 교육지원과 062-530-1023				
학습법 워크숍 기초교육원 062-530-2332				

“두드리세요. 세계로 가는 길이 열려요”

“외국어 올림증을 극복해보고 싶다는 열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국제협력본부의 문을 두드리세요. 경쟁률을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다양하고 큰 혜택에 비해 우리 프로그램의 경쟁률은 그리 높지 않아요. 정확하게 자기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취업에 필요한 스펙보다 자기계발을 위해 참가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교내 국외파견 프로그램만 잘 이용해도 졸업할 무렵에는 어느덧 글로벌 인재가 되어 있는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국제화 서포터
국제협력본부 장지영 선생님



극제화

Dream Manual

초등학생도 연수를 떠나는 시대라지만

여전히 해외 체험은 대학생들의 로망이다.

외국 체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비단 외국어 실력뿐일까.

참된 자기를 발견하고

더 큰 꿈을 꾸게되는 게 진짜 수확은 아닐지.

외국어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사용할 줄 아는

세계인이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는 국제화 프로그램들에

지금 도전해보자.

그리고 많은 경험자들이 외국어보다 소중한 것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이유를 찬찬히 되짚어 보자.

여러분 안에 꿈틀거리는 글로벌 DNA를 깨워줄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국제협력본부 <http://international.jnu.ac.kr>

언어교육원 <http://language.jnu.ac.kr>



네이안의 7번째 DNA를 가워라!

학기중 파견 프로그램

국제화 과정, 교환학생,
국약봉사, 국제인턴

방학중 파견 프로그램

세계교육기행,
제2외국어연수,

교내 프로그램

외국어 캠프,
국제여름학교(1기, 2기)
국제겨울학교
외국인 초년생 길잡이
이코미-따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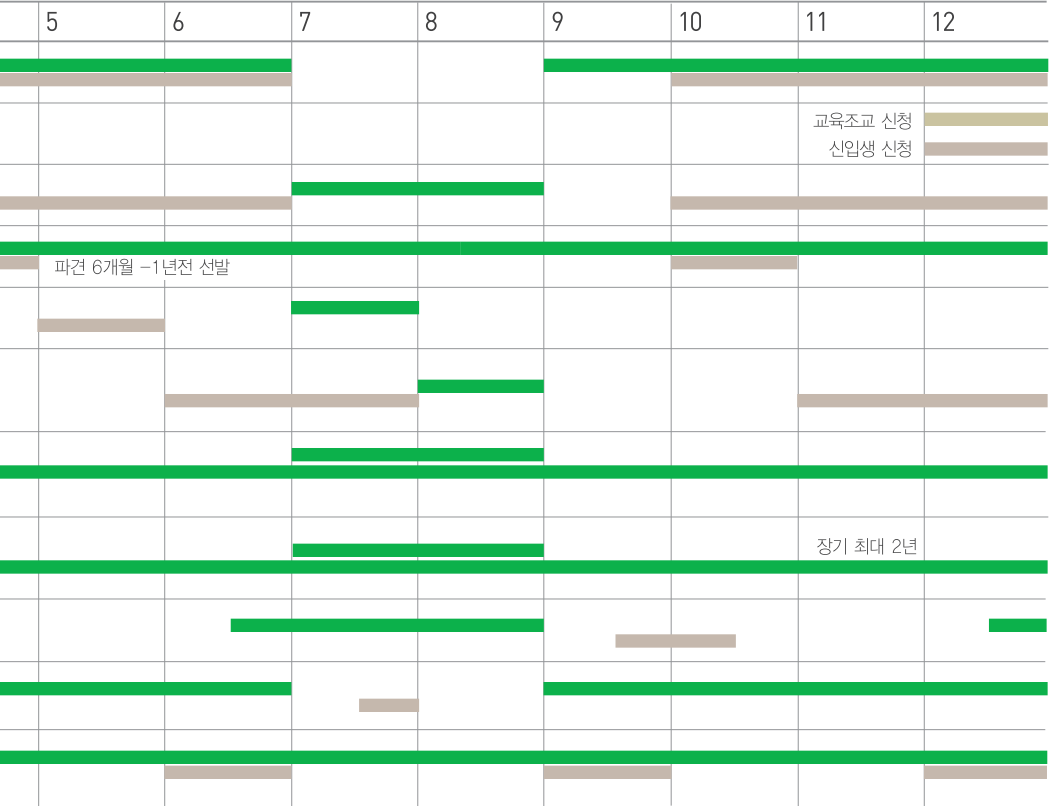
국제화 프로그램 캘린더

관심있는 프로그램의 시행 시기를 놓치면 후회막급이다. 꼼꼼한 일정 챙기기는 실속있는

프로그램/운영기간 (월)	1	2	3	4
국제화 과정 국제협력본부 062-530-1271				
합격생 영어캠프 언어교육원 062-530-3641			교육조교 참여 신입생 참여	
제2외국어연수 국제협력본부 062-530-1271				
교환학생 국제협력본부 062-530-1271				
국제여름학교(영어) 국제협력본부 062-530-1273				
국제여름학교 2기 및 국제겨울학교(일어) 국제협력본부 062-530-1267				
국제인턴 국제협력본부 062-530-1270			방학 중 6-8주	
	2-7월/9-1월 중 15주 이상(1년 4회 모집)			
국외봉사 학생지원과 062-530-1083				
세계교육기행 국제협력본부 062-530-1268				
외국인 초년생 길잡이 국제협력본부 062-530-1274				
이꼬미-따르미 언어교육원 062-530-3630				
	봄·여름·가을·겨울학기 각 10주간			

프로그램 고수가 되는 중요한 덕목!

활동 및 파견기간 ■ 모집기간 ■



교육조교 신청
신입생 신청

파견 6개월 -1년전 선발

장기 최대 2년

제공된 드림캘린더는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알면 알수록 혜택 많아지는 국제화 프로그램 자격과 시기 잘 알고 신청하면 꼭 지원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복수 참가

남들보다 지원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 국외파견 프로그램의 구분 및 종류에 관계없이 재학기간 중 최대 3회에 한하여 본부 지원을 받아 참가 가능 ▶ 3회를 초과하여 본부 주관 국외파견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할 경우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함
- 대학본부 지원금을 받지 않은 국외파견 사업(CCUSA 등), 세계교육기행, 봉사활동 등은 위 3회 참가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음 ▶ 참가자에게 직접 경비지원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외국 대학과의 교류에 의해 상대교에서 학생에게 대응 경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기본 참가 자격

이런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교환학생, 인턴 프로그램의 경우 파견일 기준 우리대학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한 학부·일반대학원 재학생으로 기 이수학기 평점 평균이 3.0이상인 자
 - 수업연한 범위 내에서 재학 중 파견이 가능하여야 하며, 파견 후 마지막 학기(또는 졸업 최종학기)를 본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자
 -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우리대학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이면 지원 가능하며, 학점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대학원생은 '체험' 프로그램인 세계교육기행, 국외봉사 등에 한하여 참가 가능)
 - 대학 프로그램 이외에 학생 주도로 가는 자비유학, 국제인턴의 경우 심사를 거쳐 본부 지원 가능
-

01

국제화 지수를 높이자

국제화 과정

대학에 들어온 뒤 외국어 공부를 새롭게 시작했는데 학원이나 동아리, 스터디그룹에서 하는 공부에 한계가 느껴진다면? 제자리걸음인 외국어시험 점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계기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 당장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를 클릭하라. 수많은 국제화 프로그램 중 학부 초년생을 외국의 우수대학에 파견하는 국제화 과정을 눈여겨보자. 튜터들의 꼼꼼한 지도를 받는 언어 연수와 그 대학의 정규 교과과정을 이수하면서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도전정신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Program 01. Tip

● **개요** 말레이시아, 프랑스, 독일 등 영어권, 독일어권, 프랑스어권 자매대학에 한 학기 동안 학부 저학년 학생들을 파견하여 언어연수 과정과 정규교과과정을 이수한다. ● **대상** 학부 초년생 ● **모집 인원 및 선발 방법** 학기당 50명 내외 면접 선발 시험 ● **모집 시기** 매년 4~6월(2학기 파견), 10~12월(1학기 파견) ● **파견 시기 및 기간** 매년 3~6월(16주), 9~12월(16주) ● **신청 방법**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 신청 ● **활동 내용** 자매대학의 언어연수 과정과 정규교과목 이수 / 해당 지역의 각종 문화프로그램 참여 ● **참여 학생 혜택** 학점 인정, 파견 소요비용 일부 지원 ● **문의** 국제협력본부 062-530-1271

영어실력 확실히 쌓고 대학 강좌도 들어요

김제영_ 기계시스템공학부_ 2010년도 참가자

하루 10시간 수업 주말엔 즐거운 여행 지난해 1학기에 필리핀 Cebu Doctor's University에서 연수하고 돌아왔다.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짝 짜인 스케줄에 맞춰 수업을 받았다. 1대1로 진행되는 회화, 문법, 독해수업, 4명이 함께 듣는 토론수업 이외에 CDU대학의 정규교과목인 Philippine culture, mass media 강의를 수강했다. OPIC, TOEIC, TOEFL 중 1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는 special class도 있다. 그래도 주말에는 튜터들과 함께 지역 명소를 찾아다니거나 여행을 다닐 수 있었다.

짧은 기간 토익점수 올리기엔 그만 많은 국제화프로그램 중 국제화 과정이 좋은 이유는 짧은 기간임에도 토익점수를 올리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매달 토익시험, level test, 중간 기말고사까지 엄청난 양의 시험을 봤다. 잦은 시험이 힘들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됐고, 특히 대학교 학생들의 시험 성적 결과가 다른 대학 학생들보다 월등히 높아서 기분이 참 좋았다. 나는 연수가 끝난 뒤 일단 토익점수가 800점대로 올랐고, 회화가 대세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회화 스테디에 들어가 말하기 스킬을 닦고 있다. 학부에서 시행하는 Global Project를 통해 서울대, 미국의 Penn University 학생들과 매주 화요일 영어로 화상회의도 하고 있다. 필리핀 친구 한 명을 사귀어 한국 문화를 소개해주면서 영어 회화의 동반자가 되었다.

찾은 시험이 힘들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되었다.

영어공부가 1차적인 목표겠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닐까.

학교홈피 체크해보며 좋은 기회 잡길 나는 국제화 과정에 대한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에서 얻었다. 평소에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했고 국제협력본부 사이트도 즐겨찾기 해놓았기 때문이다.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인터뷰 관련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공부했고, 영어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또 최신 전자사전을 사서 단어와 속어 공부를 열심히 한 덕분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후배들에게도 국제화 과정을 꼭 추천해주고 싶다. 당장은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만, 학교에서 300만원이라는 많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한국을 벗어난 그 순간, 당신은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닌, 하늘을 나는 매가 되어 있을 테니 말이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외국경험인 것 같다. 영어공부가 1차적인 목표겠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닐까 싶다.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보고 즐겁게 영어공부를 해보길 권한다.



02

미리 느껴보는 대학의 맛

합격생 영어캠프

합격증 받아 놓은 뒤부터 입학 전까지, 머릿속은 복잡하고 몸은 게을러지기 쉬운 기간이다. 합격생 영어캠프는 아무런 소득 없이 버려지기 쉬운 이 천금 같은 시간 동안 대학생화에 필요한 마음가짐과 공부 페이스를 미리 익히는 캠프다. 원어민, 한국인 강사와 함께 하는 합격생영어캠프는 대학공부에 대한 의지와 흥미를 일깨워준다. 또 대학 기관별 소개, 유명 연사의 초청강연 등 알찬 내용의 특강이 여러분의 대학생활을 한발 앞서게 도와줄 것이다.

Program 02. Tip

● **개요** 우리 대학 학생의 소속감을 높이고 대학 입학 초년생의 학습 동기와 의지를 강화하여 지역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영어집중캠프다. 국외연수 없이도 우수한 외국어 능력을 키우고, 국제교류에 참여할 수 있는 인재 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모집 대상 및 인원**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 / 1기(수시모집 합격자) : 300명, 2기(정시모집 합격자) : 200명 ● **모집 시기** 매년 12월, 1월중 ● **교육 기간** 1기 - 1월중 3주, 총 120시간 / 2기 - 2월중 3주, 총 120시간 ● **선발 방법**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http://admission.jnu.ac.kr>) 공고 및 지원서 접수 교육지원과에서 선발 (1기 300명, 2기 200명) / 언어교육원에서 프로그램 운영 ● **교육 내용** 영어집중교육 : 90시간(15일×6시간) / 특별강의(영어로 책 한권 읽기, 미드로 배우는 영어) : 총 24시간(12일×2시간), 유명연사 초청강연 : 6시간(3일×2시간) ● 문의 언어교육원 062-530-3641

대학생활 8할을 영어캠프에서 배웠다



윤지연_ 수학과_ 2010년도 참가자

내 열정 불태운 첫 스테이지 대학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들 한다. 4년을 어떻게 보람차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의욕에 불타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 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입생 jump-in영어캠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열정을 불태울 첫 번째 스테이지가 바로 여기라고 생각했다. 대학생활은 듣고 싶은 강의도 자기가 정해야 하고, 꿈을 위한 로드맵도 누가 대신 만들어주지 않는다. 누가 강요하지도, 알려주지도 않기 때문에 입학 전에 전반적인 흐름을 알지 못하면 입학 후 당황할 수밖에 없다. 영어캠프는 그런 점에서 정말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영어로 생각하고 말하고 쓰고 하루 종일 영어로 말하고, 생각하고, 써야 했던 날들이지만, 하루가 갈수록 점점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인 선생님이 내주신 journal writing 숙제, 외국인 선생님 시간에 친구들과 만든 포스터를 발표하면서 영어가 많이 늘었다. 캠프가 끝날 때쯤엔 ppt로 개인별 주제발표를 했다.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환경 관련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위해 나는 일주일 전부터 다큐멘터리를 보고 사진 자료를 모아 집에서 큰소리로 발표연습도 해보았다. 힘들긴 했지만 이 경험도 개강 후 강

의시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캠프 중간에 했던 캠퍼스 내 건물 찾기 미션도 기억에 남는다. 비 내리는 날 달려 다니느라 땀과 비로 흠뻑 젖었지만 캠퍼스 지리를 익힐 수 있어 좋았고 우리 조가 1등을 해서 상품도 받았다.

선배들의 귀중한 노하우 고스란히 영어캠프에서 영어만 배운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영어는 기본이요, 대학생활의 노하우, 인간관계, 자신감, 협동심, 성실성 그리고 무엇보다 열정을 배운다. 특히 교수님·유명 인사분들의 특강과 선배와의 대화 시간은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에게 한줄기 빛과 같았다. 삶에 대한 태도, 독서의 가치 같은 광범위한 것부터 장학금, 학점 관리, 공모전, 해외연수 등 구체적인 것까지, 그분들만의 귀중한 노하우를 고스란히 전해 받는 기분이었다. 또 언어교육원 선생님들과 조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생활하시는 모습은 나태했던 내 모습을 반성하는 자극이 되었다. 매번 뿌듯한 가슴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영어캠프 이렇게 활용해라! 일단 망설이지 말고 캠프에 참가해라!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얻어갈 수 있다. 둘째, 캠프 친구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라! 대학생활 중엔 타 학과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다. 영어캠프로 쌓은 인맥은 나의 소중한 자산이 된다. 셋째, 조교 선생님과 선배들을 귀찮게 해라! 내가 묻고 들은 만큼 내 대학생활이 풍성해진다.

또 다른 시작,

대학생활의 첫 프로그램인 영어캠프는

정말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영어는 기본이요, 대학생활의 노하우,

인간관계, 자신감, 협동심, 성실성

그리고 무엇보다 열정을 배웠다.



03

예비 신입생들 담임 맡아 볼까

합격생 영어캠프 교육조교

누군가의 선생님이 된다는 건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다. 하지만 그를 통해 얻는 기쁨과 보람 또한 크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입학학을 앞둔 예비 신입생들의 영어캠프에서 담임 선생님 역할을 하는 교육조교. 3주 동안의 영어집중교육을 함께 하며 학생들의 내적 성장과 대학생활 적응을 돕는다. 돈 내고도 받기 힘든 기획력·리더십 훈련을 돈 받으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Program 03. Tip

● **개요** 전남대 합격생 영어캠프에서 각 분반의 담임 역할을 수행하며 봉사활동을 할 교육조교를 선발하는 프로그램이다. ● **모집 대상 및 인원** 전남대학교 재학생으로 영어 능력과 지도력을 갖춘 책임감이 강한 학생 20명 내외 ● **모집 시기** 12월중 ● **활동 시기** 1기 - 1월중 3주, 2기 - 2월중 3주 ● **활동 내용** 캠프 교과운영 보조 및 학습상담 ● **접수 방법** ① 방문: 언어교육원 1호관 4층 강사실2 / ② 이메일: sujeong1201@gmail.com ● **제출 서류** 지원서, 재학증명서, 영어공인인증시험 성적표 사본(해당자에 한함), 사무능력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선발 방법** 서류 전형 - 면접 - 언어교육원 홈페이지 최종합격 발표 - 조교워크숍 ● **혜택** 수당 지급 (600,000원 및 점심 제공) ● **문의** 언어교육원 062-530-3642

후배들에게는 사랑을 나에겐 책임감을 선물했다

조미영_ 영어영문학과_ 2010년도 참가자

나도 드디어 교육조교 되다 2009년도에 처음으로 합격생 영어캠프가 생겼을 때 합격생으로서 참가했었다. 당시에 분반 담임 역할을 하는 조교 선생님들이 정말 멋져 보였다. 나와 겨우 2~3년 차이 나는 선배들이네도 진짜 대학생답게 우리를 통솔하는 리더십이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다. 나도 꼭 조교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수시로 홈페이지를 체크했고 드디어 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되었다.

예비 신입생들과 사제시간으로 각 분반에는 12~13명 정도의 학생들이 배정된다. 수능을 마치고 한없이 자유로워지고 싶은 예비 신입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다. 나는 카리스마 있는 조교보다는 언니, 누나같이 친근한 모습으로 함께 공부하고 생활해 나갔다. 점점 하루 종일 붙어 지내는 시간이 친숙해지고 정말 즐거워졌다. 낯설어 쭈뼛거리던 아이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풋풋한 모습이 예뻐고 영어 이외의 것들을 배워가는 모습이 대견스럽기도 했다. 마지막 날 행사를 마치고 다시 캠퍼스에서 선·후배로 만났을 때는 정말 뿌듯했다.



영어수업·게임 등 하루 9시간 함께 조교는 원어민·한국인 강사가 영어집중수업을 진행할 때 함께 수업을 들으며 잘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도우미 역할을 한다. 한국어를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지적해 주어야 한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꼭 학생들에게 그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었다. 1기 조교는 15명 정도였는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피드백 회의를 가졌다. 고민과 힘든 점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영어 수업 이외의 스케줄과 게임 기획 등이 모두 조교들의 몫이었다. 캠퍼스 투어, 분야별 교수 선배 섭외 등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내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거쳤지만 값진 경험으로 남았다.

책임감·내적성숙·성취감 3종 세트 이 활동으로 '책임감'을 얻었다. 나를 믿고 대학에서의 첫발을 내딛는 예비 신입생들에 대한 책임감, 그것은 무겁고 막중했지만 나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원어민 강사의 강의를 같이 듣다보니 듣기가 많이 향상되고, 영어로만 말해야 하니 회화능력이 늘어난 것도 당연하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진 누구에게라도 도전을 권하고 싶다. 책임감, 내적성숙, 성취감 3종 세트를 교육조교 활동에서 얻길 바란다.



나를 믿고 대학에서의 첫발을 내딛는
예비 신입생들에 대한 책임감,
그것은 무겁고 막중했지만 나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04

외국어가 영어만 있나요?

제2외국어연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외국어가 영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중국어도 있고, 유럽 제1의 언어 독일어, 세계적으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배운다는 일본어도 있다. 영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욕심 많은 재학생이라면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대학 부설 어학원으로 떠나는 제2외국어연수를 권한다. 다양한 세계 언어와 사람들을 접하면서 좀더 다각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해 보는 건 어떨까?

Program 04. Tip

● **개요** 제2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외국대학 어학원에 파견하여 언어능력 향상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 **대상** 학부 재학생 ● **모집 인원 및 선발 방법** 학기당 5명 내외 면접 선발 시험 ● **모집 시기** 4~6월(여름방학 파견), 10~12월(겨울방학 파견) ● **파견 기간** 매년 7~8월, 1~2월 ● **신청 방법**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 신청 ● **활동 내용** 자매대학의 언어연수 과정과 정규교과목 이수 / 해당 지역의 각종 문화프로그램 참여 ● **참여 학생 혜택** 학점 인정, 파견 소요비용 일부 지원 ● **문의** 국제협력본부 062-530-1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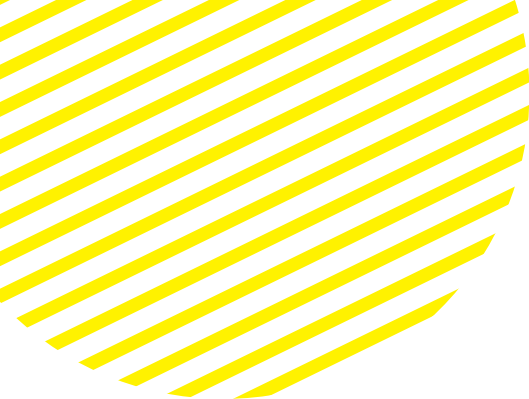
내 안의 틀 깨고 나온 소중한 4주

정다정_ 영어영문학과_ 2010년도 참가자

너무 짧아 아쉬웠던 독일 연수 독일 만하임대학에서 경험한 4주 동안의 독일어 연수. 하루에 3시간씩 문법과 회화 중심의 수업을 들었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활동이나 다른 단체 활동을 했다. Stuttgart의 벤츠 박물관, Heidelberg를 다녀왔고 Hofenheim 볼링장과 클럽에서의 단체 모임에도 참가했다.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게 아쉬웠지만 교환학생이나 유학을 준비중인 학생들에게는 좋은 맛보기 경험이 될 것 같다.

교수님 추천으로 연수 도전 여름 방학이 시작되기 전,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언어 연수 신청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다. 독어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나로서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것은 아닐까 망설였는데, 교수님들이 적극 추천해 주셨다. 나도 이 기회에 유럽 땅을 다시 밟아,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다.

나와 세계를 알아가는 즐거움 가장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나만 힘든 것이 아니고, 전 세계 학생들 역시 어려워하면서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생기는 과도기는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도 느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친구들과 만나면서 나를 알아가는 것도 즐거웠다.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존중함으로써 나 역시 존중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다른 학생들도 이런 기회를 얻어서 자신의 틀을 깨고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도전하라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는 두려워하지도, 미루지도, 남의 눈치를 보지도 않는 것이 중요하다. 스무 살은 인생에 딱 한 번뿐이며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다. 새로운 시도에는 좋은 일도 있겠지만 안 좋은 일이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니 너무 걱정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지금부터 스스로 문제 해결의 맛을 본다면 앞으로 더 큰 일도 용감하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도 학교에서 주는 소중한 기회니, 잘 이용해서 자신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깨닫고 거기에서 자극 받아 자기 발전에 힘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05

외국 자매대학 캠퍼스를 맘껏 누비다

교환학생

‘외국대학 캠퍼스에서 그 학교 학생들과 똑같은 수업을 받고, 각종 모임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거운 대학생활을 한다.’ 대학생이라면 한번쯤은 꿈꿔 봤을 교환학생 프로그램. 국외 자매대학에 파견되어 전공과 교양 과목의 정규과정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파견 기간이 그대로 재학 기간으로 인정된다.

Program 05. Tip

● **개요** 우리대학과 협정을 맺고 있는 국외 자매대학에서 등록금 면제를 받고 1학기~2학기 동안 파견되어 학점이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교환학생 파견기간 동안 우리대학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수학 후 우리대학에서 마지막 학기(또는 최종학기)를 수료해야 한다. ● **대상** ① 외국 자매대학 정규과정에 파견된 적이 없는 자 ② 파견일 기준 2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수업연한 범위 이내에서 수학 후 마지막 학기(또는 최종학기)를 본교에서 수학이 가능한 자 ※편입생은 우리대학에서 1학기 이상 이수자 ※지원가능 졸업소요 잔여학점(파견일 기준) ※ 뒷페이지에 내용 있음.

※파견국가 :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홍콩, 독일, 프랑스, 리투아니아, 터키, 탄자니아 : 1년 파견 40학점 이상 / 1학기 파견 25학점 이상 ③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④ 재학 중 학칙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⑤ 해당 언어권 공인 어학능력성적이 있는 자 ● **모집인원** 연 150명 내외 (언어권별, 기관별 차이 있음) ● **선발방법** 교환학생 신청서류 제출 → 선발시험 (외국어구술 및 일반면접) → 학교 추천자 결정 → 자매대학에 추천 → 수학허가(최종합격) ● **모집 시기** 매년 4월, 10월중 (파견 6개월~1년 전에 선발) ● **파견 시기 및 기간** 매년 3월, 9월(지역별 차이 있음) 6개월 ~ 1년 과정으로 파견 ● **신청 방법** 국외 자매대학 파견 교환학생 신청서, 지도교수 추천서, 외국어 능력 증서 원본 및 사본을 국제협력과에 제출 ●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외국어능력(30%) : 해당언어권 어학능력시험 점수 환산 후 점수 부여/ 외국어 구술 및 일반면접(40%) : 적극성, 태도 및 외국어 구술능력 평가 / 성적(30%) : 환산 후 점수 부여 ● **참여 학생 혜택** 파견시 학교지원금 장학 혜택(2011년 파견 기준) // 첫학기 - 중국·동남아 : 150만원 / 일본 : 200만원 / 유럽·미주 : 250만원 // 두번째 학기 - 중국·동남아 : 75만원 / 일본 : 100만원 / 유럽·미주 : 125만원 (파견지역에 따라 미래에셋 해외교환장학생 신청 가능 / 파견지역에 따라 해당 국가 장학금 신청 가능 (JASSO 등) / 파견기관에 따라 해당 자매대 장학금 지급 (학교별로 다름) ● **문의** 중국 : 062-530-1275 / 일본 : 062-530-1267 / 동남아 : 062-530-1272 / 미주 : 062-530-1273 / 유럽 : 062-530-1270 / 아프리카 : 062-530-1271

완벽한 미주리주립대 학생으로 보낸 1년



유아미_ 식품공학전공_ 2010년도 참가자

주립대생으로 누린 즐거운 대학생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두 학기 동안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교환학생으로 다녀왔다. 1년 동안 미주리주립대학교의 정식 학생으로서 참 많은 경험을 했다. 첫 학기는 수업 듣고 과제 하고 시험 보느라 금세 지나가 버렸다. 겨울 방학에는 한 달 동안 학교 내 아시아센터에서

열린 한국 초등학생들을 위한 영어캠프 도우미로 일하게 됐다. 캠프 선생님들을 도우면서 나 스스로도 영어 실력이 늘었고 하루가 다르게 쑥쑥 향상되는 아이들의 실력을 보면서 정말 뿌듯하고 즐거웠다. 봄 학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수업들을 들으면서 더 바쁘게 생활했다. 수업 이외에도 주말에 공짜영화를 상영해 주거나 교내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다. Women Center 프로그램 중 language partner는 일대일로 친구를 소개시켜줘 영어 연습도 하고 좋은 친구도 사귄 수 있었다.

1학년 때부터 회화·토플 준비 나는 대학에 들어오기 전부터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꼭 참가하고 싶었다. 그래서 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서 확인하고 정보를 얻었다.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분께 조언도 듣고 미리 영어공부를 열심히 했다.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언어교육원을 다니며 회화와 토플공부를 했고 2학년 여름방학 때는 미리 외국 경험을 해보기 위해 국외봉사활동도 다녀왔다. 교환학생이 매력적인 이유는 학년, 학점을 동시에 인정받는다는 점이다. 연

수나 유학을 위해 휴학하는 등의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또 언어연수생이 아니라 정식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 개설되지 않은 전공과목이나 그 나라에서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강의들을 들을 수 있어 참 좋다. 현지 학생들과 수업을 듣고 어울리면서 그 나라 문화를 더욱 잘 알게 된 것 같다.

두려움 극복하고 자신감 키워줘 돌이켜 생각해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았던 게 아쉽다. 무슨 일이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더 많은 친구들도 만들었다면 1년 동안의 교환학생 생활이 더욱 보람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이후 나는 새로운 일에 부딪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고 약간 수줍음이 많았던 예전에 비하면 자신감도 커졌다. 교환학생은 대학생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언어 연수나 유학과는 확실히 다르다. 직접 그 학교 학생이 되어 그들과 똑같은 대학생살을 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깊은 곳으로부터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생살에 잇을 수 없는 경험이 될 이 프로그램을 다른 학생들에게도 꼭 추천해 주고 싶다.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이후 나는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고
수줍음이 많았던 예전에 비하면 자신감도 커졌다.
직접 그 학교 학생이 되어 그들과 똑같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깊은 곳으로부터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06

이번 계절학기, 미주리대 교수님 강의 어때? 국제여름학교(영어)

2009년부터 양방향 국제화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국제여름학교'는 학교 안에서 세계 캠퍼스를 실현한다. 매년 7월 초 부터 4주 동안, 영어로 진행되는 세계적 수준의 전공강의를 체험할 수 있다. 2011년 여름에는 미국 UCLA, 유타대학, 미주리대학, 캐나다 위니페그대학, 대만 성공대학 등의 교수 17명과 국내 유명교수 7명을 초빙해 24개 과목을 개설했다. 미국 델라웨어 주립대학 4명, 미국 미주리대학 15명, 미국 코핀주립대학 4명, 말레이시아 멀티미디어대학 9명 등 총 54명의 해외 자매대학 학생들도 참여해 함께 강의를 들었다. 어학실력 향상은 물론 다양한 국적의 외국 학생들과 자연스러운 교류도 이뤄지는 알찬 강의이다.

Program 06. Tip

● **개요** 비싼 비용을 부담하고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하계 계절학기 기간 동안 해외자매대학 교수 및 교내교수가 영어로 진행되는 양질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 ● **대상** 재학생 전체(전공불문) ● **모집 시기** 매년 3월 중 1차 접수를 하며, 5월중 2차 접수(하계계절학기 수강신청 시기와 동일) ● **운영 기간** 매년 7월 초 ~ 7월 말 ● **신청 방법** 하계계절학기 수업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 ● **수강료** 학점당 6만원(3학점 18만원) ● **참여 학생 혜택** 우리대학 지원자 중 타 대학 친구와 함께 수강시 장학금 지급 ● **문의** : 국제협력본부 062-530-1273

Keep challenging!

이진아_ 식물생명공학부_ 2010년도 참가자

미국 스타일 토론수업 힘들지만 보람 2010년 여름 계절학기 동안 Eric Castle 교수님의 일반식물학(Botany 1) 강의를 들었다. 일반식물학은 주로 식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이, 그 외 식물과 영어수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수강했다.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된다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에릭 교수님은 기존 강의들과는 완전히 다른 미국 스타일의 토론식 수업을 진행했다. 그래서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교수님의 열정에 이끌려 마지막까지 모두 최선을 다했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 수업은 강의실에서 이론 한 시간, 바로 아래층의 현미경실에서 실험 두 시간을 진행했다. 가끔씩 학교를 돌며 학교에 있는 식물들의 영어이름과 특징들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한마디라도 더’ 미드 보며 회화 실력 닦아 ‘국제여름학교’는 학과 조교 선생님 이 추천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린다. 이 기회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외국 대학 교수님들의 수업을 듣고 친해질 수 있었겠는가. 그것도 외국에





외국인 교수님들에게 한 마디라도 더 하기 위해 미국드라마 속의 유용한 회화 표현을 외워가기도 했다. 국제여름학교에 참여하면서 '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을 얻었다.

나가지 않고 학교에서 말이다. 일반식물학은 이론뿐 아니라 실습이 많기 때문에 실습 재료 등을 같이 준비하면서 많이 가까워졌다. 원래 이 과목을 담당했던 학과 교수님과도 친해져서 더 뜻 깊고 얻는 것도 많았다.

항상 수업 시작 30분 전에는 꼭 가서 강의실 준비와 실습 세팅을 했다. 외국인 교수님들에게 한 마디라도 더 하기 위해 미국드라마 속의 유용한 회화 표현을 외워가기도 했다. 이 과목 담당 학과 교수님께서 에릭 교수님과 나를 이끌고 함께 산에 가서 미국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식물들을 보여주고 채집하기도 했던 것은 참 특별한 체험이었다.

영어자신감 다지고 한국 알린 좋은 경험 에릭 교수님의 부인인 하이드가 한국에 와서 함께 템플 스테이를 갔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평소 동양의 절 문화에 관심이 많던 에릭 교수님 부부와 함께 화순의 쌍봉사를 찾아갔다. 담당 과목 교수님께서 직접 절 탐방을 시켜 주셨고 나는 하이드와 함께 템플스테이를 했다. 580배를 하고 절음식도 먹고 전통차도 마시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려줬다는 사실이 뿌듯하고 기쁘다.

국제여름학교에 참여하면서 책임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인지 알았고 또한 나 스스로 책임감이 강해진 것을 느낀다. 외국인에 대한 공포증도 사라졌고 내 영어 실력이 모자라도 '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을 얻었다. 더 많은 학생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길 바란다.

07

이번 학기엔 외국 기업체에서 일해 볼까?

국제인턴

국내기업만 인턴을 뽑는 게 아니다. 눈을 세계로 돌리면 외국 정부기관, 관공서, 연구소, 기업체, NGO, 대형 유통점 등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다. 6주~1년 동안 유급 또는 무급으로 현지 사람들과 업무를 수행하며 외국의 직무 환경을 익히고 직무 경험을 쌓는다. 본부주관인턴(미주리대학, 워싱턴센터, 텔라웨어주립대학-디즈니월드)과 개별인턴(외국 공공기관, 국제기구, 기업 등)으로 나뉜다.

Program 07. Tip

● **개요** 세계 각국의 인턴 기관(공공기관, 회사, 시민단체) 등에서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 경험을 쌓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우리대학 학생들의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에 대한 도전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대상** ① 본부주관인턴 : 본교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② 개별인턴 : 국외의 대학, 기관, 단체, 회사에서 6~24주의 인턴 근무 허가를 받은 후 우리대학에 사전 신고한 대학생 ● **모집 인원 및 선발 방법** 매 학기 10~15명 내외 / 지원자의 인턴계획서, 어학, 학교 성적, 면접, 외부 기관 인터뷰를 종합하여 선발 ● **모집 시기** 본부주관인턴 : 1·2학기 및 하계·동계학기 시작 2~3달 전 / 개별인턴 : 1·2학기 및 하계·동계학기 시작 1달 전 ● **파견 기간** 하계·동계학기 : 6~8주 / 1·2학기 : 2~7월, 9~1월 중 15주 이상 ● **신청 방법** ① 본부주관인턴 : 홈페이지 공고 후 온라인 접수와 서류 제출 → 학교 선발 전형 → 외부 기관 인터뷰 → 파견(지원금 지급) → 귀국보고, 수료증 제출 / ② 개별인턴 : 개별인턴 업체 구직 → 계약 및 비자 확정 후 온라인 접수와 서류 제출 → 서류전형 → 파견 → 귀국보고, 수료증 제출 후 지원금 지급 ● **참여 학생 혜택** 6주 이상의 인턴 수행으로 학점(2~15학점) 취득 ※단, 우리대학 등록 후 수강신청 시 / 급여 지급 유·무와 지역에 따라 100만~400만원 지원 ● **문의** 국제협력본부 062-530-1270

20대, 익숙함 벗어난 새로운 도전

한성신_경영학부_2011년도 참가자

세계인과 함께 한 영어 회사 건물 내 2,000여명의 직원 중 50여명의 HR 부서
원들과 함께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다양한 영어를 접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예전보
다 향상된 커뮤니케이션 수준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개인주의를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경계를 허물고자 노력하다 보니, 적응력·
학습력·이해력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기술도
향상되었다.

선진 기업문화 안에서의 보람감 Flexible Work Time과 ROWE (Result Only
Work Environment) 라는 대표적인 사내 제도를 통해 업무와 일상생활의 균형을
철저히 추구하는 회사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업무 능률이 향상됨은 물론, 내
부고객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복미 기업의 선진문화를 체득한 값진 시간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매주 새로운 업무가 주어졌고, 수많은 지점 매니저들, 사원들,
변호사들과 소통하면서 업무를 직접 처리하게 되었을 때는 적잖은 성취감을 느
낄 수 있었다. 그리고 6월, 분기별 선발하는 부서별 MVP사원으로 뽑혔을 때는
형용할 수 없는 보람감에 잠을 못 이루기도 했다.

실무를 통해 얻어진 책임감 캐나다로 날아가기 전까지는 마케팅 업무에 관심을
가졌었지만, 이 연수활동을 통해 HR을 경험함으로써 모든 생각이 바뀌었다. 학
교 도서관이나 선배들의 조언 등을 통해서도 결코 얻을 수 없는 정보와 매력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인턴십 기간 동안은 내 자신을 더 이상 학생이라고 생
각하지 않았다. 3만여명의 직원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부서인

만큼, 최대한 실수를 줄이고 주의를 기울이려고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나만의 To-do List가 생겼고 이를 바탕으로 매사에 맡은바 최선을 다했다. 짧지도 길지도 않았던 이 경험은 대학 4학년, 진로 선택의 갈림길에 서있던 내게 정말 큰 자극으로 다가왔다.

‘어디에서’의 중요성 무엇을 하느냐 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흔히들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나 이번 연수를 통해 한가지를 더 배웠다. 어떻게 하느냐 만큼 어디서 하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도서관에 앉아서, 선배들과 카페에 앉아서, 뉴스를 읽으면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매우 많다. 국외(國外), 말 그대로 나라 밖은 우리나라에서는 느낄 수 없는, 우리나라보다 더 나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이다. 우리나라를 낮춰 보는 말로 생각하진 않길 바란다. 가슴이 조금이라도 더 뜨거울 때, 생각이 조금이라도 더 많을 때,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국외로 나가보길 권한다는 뜻이다. 국제협력본부의 지원까지 받는다면 금상첨화일테니 목적이 어떻든, 목적지가 어디든, 기간이 얼마든, 존경하는 우리대학 후배님들이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아나서길 바란다. 부디 경력이 아닌, 경험을 쫓길.

08

가슴 뜨거운 세계인이 돼보자

국외봉사

KOICA, 대학사회봉사협의회, 세계재난구호회, 한국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등 국내외 기관의 해외 봉사활동 대원이 되어본다. 캄보디아, 미얀마, 탄자니아, 우즈베키스탄 등 세계 각 지역에서 건축, 문화 교류, 언어 및 기술교육, 의료봉사, 환경보호 등의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내 가슴 속에 흐르는 뜨거운 인류애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Program 08. Tip

● **개요** 우리대학 학생들을 세계 각국에 파견하여 봉사활동을 통한 국제경험 확대와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대상** 1학기 이상 수료한 학부생으로서 대학 또는 주관단체의 전형에 통과한 재학생 (각 단체별 모집 기준 상이) ● **모집 인원 및 선발 방법** 매회 10명 내외 추천, 지원서 및 계획서 작성 후 증빙 서류 제출 후 심사 ● **모집 시기** ① 장기 - 매년 2~3회 모집 ② 단기 - 방학 2~3달 전 모집(각 단체별 상이) ● **운영 기간** ① 단기 - 방학 중 2~3주 ② 장기 - 최대 2년 ● **신청 방법** 본교 홈페이지 모집 공고 → 지원서 작성 제출 → 대학 추천자 선발 → 해당 단체 자체 전형 → 최종 합격자 결정 → 파견 ●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프로그램에 대한 열의, 국내 봉사시간, 어학 성적, 국외 봉사 경험, 학업 외 활동의 우수성, 파견지역 별 우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추천 순위 결정 ● **참여 학생 혜택** 참여 학생에게 각 단체별 학교 부담금(총 비용의 50% 내외) 지원 / 수강신청 시 국외봉사 과목 학점(1~9학점) 인정 가능 ● **문의** 학생지원과 062-530-1083

사소한 재능이 그들에겐 큰 도움 돼요

김지은_간호학과_2010년도 참가자

한국대표 대학생 30명의 열정 여름방학에 약 보름 동안 태국 방콕의 Wattanothaipayap School, 람퐁의 Chalermprakiet 48 Pansa School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 30명이 한국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정 가득한 일정을 보냈다. 첫 이틀 동안은 Watpradoo School에서 놀이방을 꾸몄다. 실내, 복도, 청소, 페인트 팀으로 나누어 땀 흘려 일한 결과 밝고 예쁜 공간이 탄생했다. 람퐁 Chalermprakiet 48 Pansa School에서는 약 10일간 기숙사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학교수업과 미니올림픽을 운영했다. 리본공예, 한국어, 요리, 모자이크, IT, 심폐소생술 등 각자의 역할과 재능에 맞는 Class를 진행했다. 한류 덕분인지 아이들이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잘 따라주었고 즐겁게 수업할 수 있었다.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한국 음악이나 가수를 공통 주제로 뭔가 통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함께 만든 떡볶이를 맛있게 먹은 아이들은 우리에게 태국에서 즐겨먹는 간식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아이들

의 순수함에 동화되면서 팀원들과도 끈끈한 우정을 다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1년 전부터 국내 봉사경험 쌓아 국외봉사에 대해서는 몇 년 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 알았다. 선발 기준을 확인하니 국내봉사경험, 해외봉사경험, 봉사 관련 자격증, 영어능력 등이 필요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국내에서 여러 봉사 활동 경험을 쌓으면서 페이스페인팅도 배우고 풍선아트 자격증도 취득했다. 전공과 관련된 응급구조 자격증 덕분에 이번 봉사에서 심폐소생술 Class를 운영할 수 있었다. 방학 동안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점수를 따두었기 때문에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는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 같아 무척 기뻐다. 국외봉사는 자기의 재능을 바탕으로 스스로 봉사활동을 기획해 볼 수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의지력과 지혜를 키울 수 있어 참 매력적이다. 순수하고 예쁜 아이들에게서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한국인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덤으로 얻는 수확이다.

어떤 어려움도 헤쳐 갈 힘 얻어 우리가 갔던 학교의 아이들은 절반 이상이 부모님이 없었다. 정에 목말라 있고 쉽게 상처 받는다고 들어서 일부러 약간 거리를 두며 지냈는데, 떠나오기 전날 밤 서툰 한국어와 영어로 쓴 편지와 자기들이 아끼는 물건을 전해주었다. 왠지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프로그램 참여 이전에는 다른 나라의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 잘 몰랐고, 그 나라 언어나 문화에도 큰 관심이 없었다. 이제는 미디어에 나오는 태국의 이슈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세계인으로서의 내 위치에 대한 자각도 생겼다. 무더운 날씨에 냉방기구도 없는 교실에서 하루 9개 Class의 선생님이로 설 수 있게 해준 힘은 한국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이었다. 30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매일 밤새 토론하며 어려움이 닦쳐도 서로 격려하며 헤쳐 나갔던 경험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가든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국외봉사는 자기의 재능을 바탕으로
스스로 봉사활동을 기획해 볼 수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의지력과 지혜를 키울 수 있어 참 매력적이다.
순수하고 예쁜 아이들에게서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한국인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덤으로 얻는 수확이다.

09

어느 나라에서 무엇을 해 볼까? 세계교육기행

해외에 나가고는 싶은데 긴 기간은 부담스럽고, 정해진 매뉴얼도 싫다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가고 싶은 나라를 정해서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교육기행에 도전해보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국외체험학습, 국외봉사, 국제교류활동 등 계획을 짜서 제출하면 팀을 선별해서 지원해준다. 세계화시대 글로벌 인재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어보자.

Program 09. Tip

● **개요**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해외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다. 팀 별로 주제 및 탐방 기관을 선택한 뒤 현지에서 탐방 일정을 수행한다. ● **대상** 전남대학교 학부, 대학원 재학생(휴학, 교류학생 제외) 최대 1회 참여 가능 ● **모집 인원** 매 회별 100명 ● **선발 방법** 탐방 계획서를 통한 탐방 일정의 체계화 수준, 교육적 효과, 팀원의 어학 능력, 외부 기관과의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모집 시기** 하계방학 중 파견 3월 말~4월 초 / 동계방학 중 파견 : 9월 말~10월 초 ● **운영 기간** 하계 및 동계 방학 기간 중 5일 이상 자율 일정 ● **신청 방법** 팀 구성 후 온라인 지원, 증빙서류 제출 ● **국외봉사 분야** 빈곤 아동 교육, 주택 및 학교 건설, 환경 캠페인, 의료 봉사 참여 ● **국제교류 분야** 자매 대학 및 연구소, 국제기구,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학술, 문화 교류 ● **학술연구 분야** 학회 및 워크숍 참석, 현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연구과제 수행 ● **참여 학생 혜택** 지역별로 50만 ~ 90만 원의 지원금 지급, 우수탐방보고서 시상 ● **문의** 국제협력본부 062-530-1268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을 다시 보다

임양순_ 신소재공학부_ 2010년도 참가자

철저한 준비로 완성도 높은 탐방계획서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14박15일 동안 카자흐스탄으로 세계교육기행을 다녀왔다. 삼성전자, 대종유통회사, 우림건설, 신한은행 등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을 돌아보고, 우리학교 동문인 김병학 시인도 만났다. 강제이주 당한 고려인들의 집성촌인 '우슈토베'를 탐방하고, 고려인 협회 청년부와 '한류열풍과 국제관계'에 대한 교육과 학술교류를 갖기도 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세계교육기행 공고를 본 뒤 우리는 팀 선정의 평가 척도가 되는 탐방계획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 온힘을 쏟아 부었다. 탐방 배경과 분명한 목적의식이 담긴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팀원들이 계속해서 피드백 해 가면서 완성도를 높였다. 체계적 활동을 보여주는 계획서를 작성하고, 외국인 통역학생과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섭외해 첨부자료로 제출했다.

한국현대사 '빛'과 '그림자' 함께 보여 일정 중에 들른 '우슈토베'라는 고려인 집성촌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강제이주 당한 고려인 3·4세 어르신들이 아직까지 한국어를 기억하고 있는 것에 감명을 받았고, 우리 민족의 아픈 현대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어려운 조건에서도 한국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여러 기업들을 보며 참 자랑스러웠다.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갔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도 남는다. 기본적인 카자흐어나 러시아어를 배우고 갔으면 좀 더 그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세계교육기행 이후 큰 세상을 보았고,
좀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
꿈을 가지니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고 목표도 생겼다.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그렇지만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고 책이나 TV에서나 보았던 카자흐스탄을 직접 가보았다는 것만도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학교의 지원을 받아 세계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점에 감사한다.

목적의식 **분명한 여행의 교훈** 느껴보길 돌아켜보면 이전에는 한국, 그리고 그 안의 광주라는 작은 테두리 안에 갇혀 우울 안 개구리처럼 살아온 것 같다. 하지만 세계교육기행 이후 큰 세상을 보았고, 좀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 꿈을 가지니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고 목표도 생겼다.

대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자신의 관심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우리 학교에는 자기를 계발하고 개인이나 팀의 역량을 발산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 그 중 세계교육기행을 통해 세상을 향한 시야를 넓히는 기회를 잡아 보기 바란다.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목적의식이 분명한 여행이 주는 교훈과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0

한국적응 도우며 '국제 우정' 쌓자

외국인 초년생 길잡이

'내가 만약 낯선 외국에서 유학생생활을 시작할 때 언어와 생활을 도와주는 현지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생각을 우리 대학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에 적용해 만든 프로그램. 신·편입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내국인 학생과 1대 1로 연결하여 학업과 대학 생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자신의 국제화 마인드도 높이고 국제적 우정을 쌓는 기회로 활용해 보기를.

Program 10. Tip

● **개요** 외국인 신·편입생을 대상으로 같은 학과 한국인 학생과 1대1로 매칭하여, 한 학기 동안 유학생의 대학생활 전반을 도와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 **대상** 우리대학에 신·편입학 하는 학부 외국인과 동일 학과 학부생 ● **모집 인원 및 선발 방법** 신·편입학하는 학부 외국인의 수에 따라 변동 ● **모집 시기** 1학기 - 1월 말, 2학기 - 7월 말 ● **운영 기간** 한 학기(매칭일~종강일) ● **신청 방법**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 (<http://international.jnu.ac.kr>) 로그인 → 인턴/봉사/기타 → 외국인 초년생 길잡이 → 지원서 작성 ● **활동 내용** 수강신청 및 학업시간 계획서 작성, 수강과목별 과제에 따른 개별 학습, 학과 모임 및 행사 참여, 지도교수와의 미팅, 리포트 작성 및 시험공부, 학교 홈페이지 및 학교시설 100% 활용하기, 광주박물관·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영화 관람 등 ●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매월 말 활동보고서, 내국인 참가자 참여 태도, 외국인 참가자 학점, 국제협력관련 대학행사 참여, 학기 말까지 제출하는 체험활동 수기 ● **참여 학생 혜택** 1인당 월 30,000원 활동비 지급 (4개월 간) / 자기계발활동기록부 등재 : 봉사활동 20시간 인정 (중도 포기 학생 제외) / 우수 활동자 포상금 지급 및 해외 교환학생 참가기회 우선 제공 ● **문의** 국제협력본부 062-530-1274

교환일기로 서로의 마음 읽었어요

박시영_중어중문학과_2010년도 참가자

내 단짝, 왕흔 지난 1학기 동안 중국인 왕흔 언니와 '단짝' 처럼 붙어 지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처음 '외국인 초년생 길잡이'를 알게 된 뒤 마음 맞는 중국인 친구를 갖게 된다는 기쁨에 왕흔 언니가 한국에 오기 전부터 메일을 주고받았다. 첫 만남 후부터 교환일기를 쓰면서 친해졌다. 나는 중국어로, 언니는 한국어로 쓴 뒤 서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면서 작문 실력도 늘고 속마음도 털어놓을 수 있었다. 학과 친구들과 함께 하는 공부일촌도 함께 했다. 언니가 듣기 부분을 직접 읽어주고 틀린 부분은 바로잡아 주면서 정말 즐겁게 공부했다. 시험 기간에는 함께 듣는 수업내용을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했다.

나의 성장 느껴 언니와 만나는 시간은 늘 유쾌하고 알찼다.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취미가 같다는 걸 알고 매화가 피기 시작한 캠퍼스를 누비기도 했다. 부모님과 동생, 왕흔 언니와 함께 순천 낙안읍성에 갔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아빠가 한국전통에 대해 많이 설명해 주셨고, 외국인이라고는 학교 원어민 선생님 밖에 만나본 적 없는 동생도 언니를 잘 따랐다. 언니와 함께 지내면서 나 자신도 몰랐던 나의 배려심을 발견했고, 내가 사는 광주, 전남대학교, 한국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다. 최우수상을 받아 내년 상하이 사범대 교환학생으로 가게 됐으니 언니를 통해 얻은 것이 정말 많다.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당장 '외국인 초년생 길잡이'를 선택하기 바란다.



왕흔 박시영

참 고마운 시영 중국에서 한국어를 전공했다. 한국어도 더 배우고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귀어 싶어서 올해 3월 중어중문학과로 편입했다. 전남대에 와서 시영이를 만나 정말 기쁘다. 외국인 등록증부터 통장, 신용카드, 핸드폰 개통까지 나의 모든 것을 챙겨주었고 함께 참 많은 것을 했다. 가족 여행을 가고, 영화를 보고, 스승의 날에 교수님도 찾아뵈었다. 전자상가, 서점에 가서 쇼핑을 하고, 5.18기념관에서 아픈 역사도 알게 되었다. 특히 교환일기를 쓰면서 한국어 작문실력도 늘고 참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아르바이트가 힘들거나 집이 그리다고 쓰면 시영이는 나를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힘이 돼주었다. 늘 나를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꼼꼼하게 챙겨주는 시영이가 참 고맙고 좋다.

즐거운 한국생활 '외국인 초년생 길잡이'가 끝난 뒤에도 우리는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도움을 주고받는다. 얼마 전 교환학생 면접을 보러가는 시영이를 위해 이것저것 알려주었다. 내가 시영이의 중국어 공부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뻐다. 시영이를 통해 많은 친구를 사귀어서 지금은 학과의 다른 친구들과도 교환일기를 쓰고 있다. 나도 내년에 교환학생으로 가는 시영이가 중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고 싶다. 이런 친구를 만나게 된 건 행운 같다. '외국인 초년생 길잡이'는 낯선 한국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준 참 고마운 프로그램이다.



11

한국홍보대사가 돼보자

이끄미-따르미

한국어를 배우러 온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안내, 지도하면서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외국어와 한국어 능력을 활용해보고 한국과 전남대의 홍보대사 역할을 해보는 기회도 될 것이다. 한국에 대한 호의와 기대를 품고 온 따르미와 국제적인 우정을 나눠 보자.

Program 11. Tip

● **개요** 한국어 언어연수생(따르미)에게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알려주는 봉사 활동자(이끄미)로 활동하는 프로그램이다. ● **모집 대상** 학부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 **모집 시기** 3,6,9,12월중 ● **활동 기간** 봄, 여름, 가을, 겨울학기 약 10주간 ● **신청 방법** 언어교육원 홈페이지(<http://language.jnu.ac.kr>)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언어교육원 1호관 한국어실(304호)로 제출 ● **선발 방법** 서류심사(지원 동기 및 이끄미 활동 계획서 내용), 선발 시 고학년,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표 제출자 우대 ● **활동 절차** 지원서 제출 - 발표(한국어강좌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교육 및 연결식 - 한국어강좌 홈페이지에서 활동기간 동안 일지 작성 및 제출 ● **활동 내용** 1주일에 1~2회 이상(전체 12회 이상, 20시간 이상) 만나 한국어 학습 / 한국 문화 소개 및 적응 돕기 / 따르미와 함께 미션 해결(총 4회 중 2회 이상 활동 시 인정) / 이끄미 클럽 통해 상호 문화 소통 노력과 활동 결과 일지 제출 ● **혜택** 전남대학교 포털 봉사활동 등재, 봉사활동증명서 발급(12회 이상 만남, 미션 2회 이상 수행, 최종 평가 기준 통과자) ● **문의** 언어교육원 한국어실 062-530-3630

도움줄 수 있어 즐거워

이꼬미, 최신비_응용화학공학부_2010년도 참가자

내 친구 셀린 작년에 친구가 이꼬미 활동을 해보고 권해줬다. 평소에 영어에 관심이 많았고, 외국인 친구가 있으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아 공고가 뜨기를 손꼽아 기다리다가 신청했고 프랑스인 셀린의 이꼬미가 됐다. 셀린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언어교육원 한국어 강의를 듣는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 2~3시간 동안 시간을 보낸다.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셀린이 배운 내용을 되짚어 주거나 설명해준다. 단어 공부도 같이 하고 주로 대화연습을 한다. 셀린은 언어학을 전공해서인지 언어 습득이 굉장히 빠르다. 영어도 하고 스페인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도 조금씩 한다. 짧은 기간인데도 한국어가 상당히 늘었고, 음식에도 잘 적응했다. 셀린이 좋아하는 오리고기를 함께 먹으러 가기도 했다.

서로에게 배우다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이야기하다보니 나도 저절로 영어와 한국어 공부가 된다. 평상시에 쓸 기회가 없던 영어를 좀더 유창하게, 한국어는 좀더 정확하고 바른 표현을 알려주기 위해 고민하게 됐다. 셀린이 꼭 알고 싶었던 거라면서 좋아할 때면 참 뿌듯하다. 프로그램 미션이 한 번씩 주어지는데, 오늘은 셀린과 함께 읽기 위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다. 너무 어려운 내용은 부담스러울 것 같아 <TV동화 행복한 세상>을 골랐다. 앞으로는 셀린이 관심 있어 하는 사찰이나 민속용





품 판매점 등 한국 전통문화를 알려줄 수 있는 곳에 가볼 생각이다. 이렇게 서로에게 배우는 시간이 나에겐 값진 경험으로 남을 것 같다. 셀린도 프랑스에 돌아간 뒤에 전남대에서 지냈던 시간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바란다.

따르미, Celine Savin_ 언어교육원 연수생

참 어려운 한국어 한국어에 온 지 5주 됐다. 못 알아듣는 말도 많고 표현할 수 없는 말이 많아 어렵기만 하다. 나는 프랑스의 온천지인 비시(MICHY)에 있는 어학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있다. 한국, 중국, 스페인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대학생이나 학위를 위해 온 대졸자들을 가르치는데 한국 학생들이 프랑스어를 많이 어려워했다. 그래서 문장구조나 단어 면에서 프랑스어와 전혀 공통점이 없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그 학생들을 이해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으로 단기 어학코스를 찾던 중에 전남대 언어교육원의 10주 과정을 찾아냈다. 10월부터 12월까지 기숙사에 머물면서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다.

고마워, 신비! 큰 도시이지만 번잡스럽지 않고 음식도 맛있는 광주가 마음에 든다. 전남대는 푸른 자연이 아름답고 조용해서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다. 한국어가 많이 서툰 나를 위해 학교에서 이끄미 신비와 불어불문학과와 프랑스인 교수를 연결해 주었다. 그들을 만나서 참 다행이고 고맙다. 신비와의 만남은 내게 무척 중요하다. 한국어 수업에는 중국인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들의 속도에 맞춰 진행되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힘들다. 신비와 만나면 내가 알아듣지 못했던 것들도 다시 설명해주고 몰랐던 표현도 배울 수 있어 참 좋다.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경험한다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지금 이 시간을 기억해두고 싶어 학내 풍경을 찍어 내 블로그에 올리기도 한다. 프랑스에 돌아가더라도 한국어 공부를 계속할 계획이다.



12

교내에서 일본을 체험한다

국제여름학교2기(일본어) 및 국제겨울학교

매년 여름과 겨울, 일본의 자매대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기 위해 전남대를 방문한다. 또래 일본대학생과 일정을 함께하며,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익힐 수 있는 효율적인 단기 집중 연수 프로그램이 모든 재학생들에게 열려있다. 일본 현지 연수에 참여하는 것 이상의 학습 효과와 더불어 한국 문화를 일본 학생들에게 알리며, 국제 인맥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Program 12. Tip

- 모집 대상 및 인원 일본어 및 일본 문화에 관심있는 본교 재학생
- 모집 시기 6~7월(여름방학 참가) 11~12월(겨울방학 참가)
- 활동 기간 매년 2월 중 3~4주 8월 중 3~4주
- 제출 서류 지원서, 일본어 관련 어학증빙서류(해당자만)
- 활동내용 오전-일본어 집중 수업, 오후-일본 학생들과 한국 문화 체험
- 활동 혜택 수업료, 문화체험, 여행경비 일부 지원
- 문의 국제협력본부 062-530-1267

드림캘린더로 설계하는
나만의 국제화
프로그램



나만의 국제화 드림캘린더

66~67p 캘린더 일정을 참고로 자신의 프로그램 참여 일정을 설계해보세요.

프로그램/운영기간 (월)	1	2	3	4
국제화 과정 국제협력본부 062-530-1271				
합격생 영어캠프 언어교육원 062-530-3641				
제2외국어연수 국제협력본부 062-530-1271				
교환학생 국제협력본부 062-530-1271				
국제여름학교(영어) 국제협력본부 062-530-1273				
국제여름학교 2기 및 국제겨울학교(일어) 국제협력본부 062-530-1267				
국제인턴 국제협력본부 062-530-1270				
국외봉사 학생지원과 062-530-1083				
세계교육기행 국제협력본부 062-530-1268				
외국인 초년생 길잡이 국제협력본부 062-530-1274				
이끄미-따르미 언어교육원 062-530-3630				

“진짜 지성인다운 내 모습을 원한다면”

“대학 문을 들어오자마자 취업문을 두드려야 하는 현실이지만 대학생이 갖는 순수
와 열정의 가치는 아직 유효합니다. 다양한 도전을 통해 정신과 육체를 단단하게
다지는 경험을 쌓는 것은 젊음의 특권이기도 하죠.

저도 학생들과 함께 국토대장정을 다녀오면서 그 젊음의 열기에 전염되기도 했습
니다.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고 싶다면 학생지원과 프로그램과 함께 하세요. 성
숙한 지성인으로 성장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통섭인재 서포터
학생지원과 윤 일 선생님



동생이 꿈을 그려

Dream Manual

대학입학과 함께
취업준비를 해야하는 시대지만
20대는 분명히 진지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다.
이때 아니면 하기 힘든 고민과
다양한 경험에 즐겁게 부딪쳐 보자.
나를 돌아보고, 내가 살고 있는 시대와
지역을 고민하고, 진정 가치 있는 삶의 해답을
찾아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과학기술, 인문사회, 문화예술,
서로 다른 분야의 학문을 이해하고 경계없이 소통할 수 있는
동시성인재의 소양을 갖추어보자.



오지르면 너은
 대남수행으로,
 ☆ 모든 것과
소통하라!



동성인재 드림캐릭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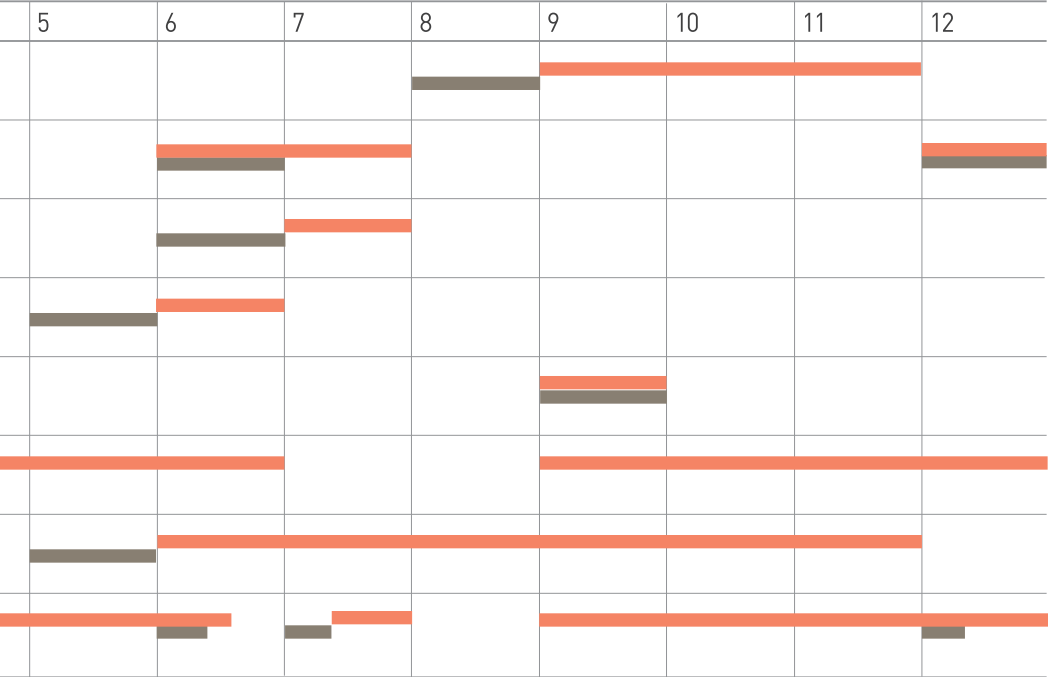
관심있는 프로그램의 시행 시기를 놓치면 후회막급이다. **꼼꼼한 일정챙기기는 실속있는**

프로그램/운영기간 (월)	1	2	3	4
울곧은 인성함양 프로그램 학생지원과 062-530-1072				
자기계발을 위한 코칭리더십 집중 캠프 프로그램 학생지원과 062-530-1104				
국토대장정 학생지원과 062-530-1074				
지리산 종주 학생지원과 062-530-1074				
남도문화유산기행 학생지원과 062-530-1074				
전공멘토링(여수) 여수캠퍼스 교학팀 061-659-6204				
전공학문 연계 사회봉사 학생지원과 062-530-1083				
학생교류 학생지원과 062-530-1104 / 학사관리과 062-530-1063				



프로그램 고수가 되는 중요한 덕목!

활동기간 ■ 모집기간 ■



제공된 드림캘린더는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01

이런 것도 배워요?

올곧은 인성함양 프로그램

쓰레기 버리지 않기, 자원 절약하기, 바른말 쓰기, 상대방 의견 존중하기. 초등학교 때 다 배웠어야 할 법한 공동체 의식, 매너, 배려를 배우는 수업이 있다. 입시 공부에만 찌들어서, 혹은 '함께' 보다는 '혼자'가 익숙해서 사소히 넘겼던 중요한 가치들을 배우고 실천해보는 시간이다. 기업이나 사회에서도 인간미 넘치면서 기본 소양과 자질을 가진 이들을 높이 평가한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성숙한 인격을 다듬는 소중한 체험과 실천을 경험해보자.

Program 01. Tip

- **모집대상 및 인원** 학부생 전체 중 각 분반별 50명(1개 이상 영역 참여 가능) ● **모집시기** 매년 8월중
- **활동기간** 매년 9월 ~ 11월중 ● **신청방법** 경력 및 직업개발(CAPD) 신청, 접수 ● **프로그램 운영 방법** 소그룹별 체험 중심, 문제현장 개선 활동 중심의 능동적 참여 유도 / 생활속 과제 제시 / UCC 제작 및 수상
- **프로그램 내용** 영역 I (공공질서 의식) : 캠퍼스 내 규범과 규칙, 청소, 에너지 절약 등 / 영역 II (매너) : 언어활동 생활, 일상 매너, 글로벌 에티켓 등 / 영역 III (배려) : 입장 바꿔보기, 더불어 함께 하기, 약속과 신뢰 등
- **활동 혜택** 자기계발활동기록부 등재, 학생지원처 주관 프로그램 우선 선발 ● **문의** 학생지원과 062-530-1072.

Program 01
제대로 맞보기!

“친구가 소개해줘서 같이 왔는데,
프로그램이 유익해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송현경_ 전자컴퓨터공학부_ 2010년도 참가자

“알고 있는 건 꼭 실천해야 된다는 것?
액션 의지를 만들어 줬어요.”

이혜민_ 사회학과_ 2010년도 참가자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 참여했어요.
생각과 실천은 한 세트라는 걸 배웠습니다.”

고진호_ 전자컴퓨터공학부_ 2010년도 참가자

“내 안에서 작은 변화가 느껴져요.
무엇이든 한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혜원_ 응용생물공학부_ 2010년도 참가자



왼쪽부터 송현경, 이혜민, 고진호, 이혜원

02

새로운 나를 만나는 2박 3일

자기계발을 위한 코칭리더십 집중 캠프 프로그램

리더가 되고 싶다면 나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 알아내서 목표와 비전, 구체적인 플랜을 세워보자. 진정한 리더라면 자기 자신을 리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타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그 잠재적 능력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코칭 할 수 있어야 한다. 코칭 리더십 집중캠프를 통해 지혜로운 리더가 되자!

Program 02. Tip

● **개요**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타인의 잠재력을 개발해 주고 그 잠재적 능력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코칭하는 능력 개발 ● **모집인원** 총 40명(남 20, 여 20) ● **모집자격** 학부 재학생(코칭 리더십 교과목 수강 대상 우선 선발) ● **운영기간** 6~7월 12~1월 ● **신청방법** 1년 2회(하계 및 동계) 잔남대 포털(CAPD)에 참가신청 ● **주요내용** jobEQ검사 및 결과 해석, 음악과 댄스 명상을 통한 감성 수련, 성공신념 갖기 이미지 트레이닝, 이미지 컨설팅과 스피치 코칭 등 ● **참여학생 혜택** 참가비용 없음 / 자기계발활동기록부 등재 / 취업 추천서 반영 / 각종 장학생 및 해외 봉사단 선발시 가점 부여 ● **문의** 학생지원과 062-530-1104

Program 02
제대로 맞춥시다!

2011학년도 자기계발코칭리더십 하계집중캠프 ‘내 마음에 새긴 것들’

“훌륭한 리더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것 같습니다.”

캠프에 참여 하기전에는 리더와 리더십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해왔습니다. 2박 3일동안 진행된 스피치교육, 리더십 강의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유익한 강의를 들음으로써 훌륭한 리더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손희선_ 심리학과_ 2011년도 참가자



“나를 알고 새로운 나를 창조하자.”

코칭리더십 교육을 통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리더십 자질을 일깨우고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참여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지금까지 해 보지 못했던 “나를 알고 새로운 나를 창조하는” 경험은 매우 즐거웠습니다. 누구든지 꼭 참여해보기를 권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만의 리더십을 기를 수 있습니다.

윤시원_신소재공학과_2011년도 참가자

“서로간에 복돌아 주는 재미 있는 기회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저에게 코칭리더십 캠프는 학교수업에는 들을 수 없었던 많은 것 들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팀별 발표를 자진해서 맡을 자신감도 생겼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지 메이킹 및 스피치 훈련과 심리검사, 댄스스포츠 등 분위기가 굉장히 화목하고 팀원들 서로간에 복돌아 주는 재미 있는 기회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캠프라고 생각합니다.

박소미_중문과_2011년도 참가자



03

해남에서 임진각까지, 패기와 열정의 18박 19일

국토대장정

한반도 땅끝 해남 토말비에서 북녘땅 가장 가까운 파주 임진각까지 530km를 걷는 국토대장정이다. 피약별과 소나기를 맞으며, 긴 길을 걷는 동안 동료애와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오늘을 사는 한국사회 대학생으로서 조국의 의미와 스스로의 한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2011년에도 제5회 국토대장정 'CNU Frontier' 팀이 6월 28일부터 7월 13일까지 530km를 완주,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자신감과 성취감을 맛보는 귀한 경험을 쌓았다.

Program 03. Tip

● **개요** 대한민국 국토를 직접 종단하면서 애국심을 키우고,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극복하는 극기 교육을 통해 자신감과 통찰력을 기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감성에 기초한 인성교육과 배려·공동체의식·창의성·개방성을 키워 학생들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 **대상** 재학생 전체 ● **모집 시기** 매년 6월 중 홈페이지 통해 공고 ● **모집 인원** 40명 (신청인이 40명 이상일 경우 추첨) ● **운영 기간** 매년 6월 초순 ~ 7월 중순 ● **신청 방법** 지원자접수: 1차 선발자 선정(스포츠헤럴에서 체력측정 검사지 제출, 미제출자는 선발병단에서 제외) → 2차선발자 공지 → 사전교육 ● **참여 학생 혜택** 자기계발활동기록부 등재 ● 문의 학생지원과 062-530-1074

전남대의 콜럼버스가 되다!

서봉산_경영학부_2011년도 참가자

'CNU Frontier'

7월 1일, 나는 35명의 전남대학교의 개척자 중 한 명이 되어 대장정을 출발하게 되었다. 이번 국토대장정은 나에게 2번째 국토대장정이었다. 작년에 여수시에서 시행했던 대장정을 출발할 때와는 느낌이 사뭇 달랐다. 이번에는 내가 다니는 모교인 전남대학교의 35명의 대표 중 한 명으로써 전남대를 알리는 장본인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각별했다. 나는 이번에 전남대의 도전정신을 알리는 선구자,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을 개척하는 두가지 목적을 가진 frontier가 되지 않았나 싶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학생들이 있었겠지만 오히려 나는 두 가지 목적에 초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 나름의 목표였고 대장정이 끝난 지금 스스로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마치 여러 가지 광물의 원석이 존재하는 하나의 광구에 들어가는 광부와 같은 마음으로 대장정에 임했다. 똑같은 목적을 가진 'CNU frontier' 라는 조직이라는 하나의 광산에 35명의 각자의 개성이 뚜렷한 '친구들'이라는 반짝이는 광물들이 존재하는 곳을 개척하는 한 사람의 광부가 되어 약 2주간 최선을 다했다. 35명 모두가 서로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 된다면 정말 좋은 일이겠지만 각자의 소신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반짝이지는 않지만 서로에게 에너지가 되는 석탄 같은 사람이, 또 어느 누군가에게는 희소성 있는 금과 같은 사람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힘든 마음을 글로 쓸 수 있는 연필이 되는 흑연 같은 사람이, 또는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빛나는 다이아몬드, 루비와 같은 귀금속과 같은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약 2주간 CNU frontier 라는 하나의 동굴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전진하며 시작할 때의 모습

을 드러내지 않던 원석이 아닌 서로에게 소중한 보석같은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길이 남느냐, 내가 남느냐'

어느 대장정 단체의 구호가 '길이 남느냐, 내가 남느냐' 였다. 우스갯 소리로 대원들에게 "내가 한번 해보니까 내 몸은 남아나진 않고 길이 남긴 해." 라며 농담 따먹기를 했지만 임진각에 도착했을 때 나도 그랬고 다른 대원들도 자신의 마음과 머릿속에는 길이 아닌 조금 더 성숙해지고 변한 새로운 "나" 라는 존재가 되어 길이 아닌 내가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매일 숙소에 당도하기 전 3Km정도가 가장 힘든 구간이었고 가다가도 끝이 나지 않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파이팅을 외쳐주며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며 매번 어떤 코스라도 우리의 도전정신을 꺾을 순 없다고 느꼈다. 단지 육체적 피로는 쌓여갔지만 그 고통 따위는 나를 꺾지 못했고, 2주간 매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길이 남지 않고 나 자신이 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은 향상되어 갔다.



한반도의 아름다움

광주로 복귀하는 마지막 날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할 때 대원들끼리 다들 웃으며 얘기했다. '자동차와 고속도로의 편리함과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낀다' 하며 2주간 온 거리를 믿지 못하겠다는 말투였다. 대장정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국도를 통해 이동했고, 편리함과 신속함을 위해 고속도로와 자동차를 이용했을 당시 느끼지 못했던 주위 경관을 보며 많은 감탄을 했던 기억이 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걷는 동안 바다를 지나치지는 않은 점이 있지만 산과 강, 그리고 푸른 평야와 가끔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은 우리의 맘을 식히기에 충분했다. 총 지휘를 하셨던 '박주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나도 힘들고 모든 대원들이 힘들어 해서 앞사람의 뒷꿈치만 보고 걸어다가 휴식 시간에 힘들다고 투덜덜 때 바로 옆에 펼쳐진 푸른 평야를 보고 "지금은 이래도 가을에 이 곳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라" 하시던 게 생각난다. 이제껏 우리는 밥 한끼를 먹으면서도 이런 아름다움과 농부들의 맘을 잇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 싶었다. 그 말을 들은 이후 걸으면서 앞사람의 뒷꿈치보다는 바람에 흔들리는 푸른 물결과 같은 아름다운 광경들을 보며 걸었던 것 같다.

매일을 도서관과 학교에 갇혀서 그런 사소한 아름다움에도 무감각해지던 나의 젊은 나날에 다시 한번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이제껏 가보지 못했던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많은 길들을 새롭게 경험하는 젊은이들을 보며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CNU frontier의 이름이 적힌 깃발은 더욱 빛나보이지 않았을까.

약천후나 무더위 따위는 벽이 되지 않는다.

대장정을 시작한 지 3일간 우리는 모든 날씨를 다 겪었다. 첫 날은 적당히 흐린 날씨, 둘째 날은 폭우, 셋째 날은 불볕 더위를 겪었다. 매도 빨리 맞는 게 좋다고 초반 3일간 모든 조건을 다 겪어 보았기 때문에 다른 날들동안 오히려 적응력이 더 빨라지지 않았나 싶다. 특히 마지막 이틀간은 장미전선의 북상으로 인해 엄청난 물폭탄 세례를 받으며 파주까지 걸어갔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쇠는 두드릴수록 단단해지고, 불에 달궜다가 물에 식혔다가를 반복하며 더욱 견고해진다. 우리는 땀벌에서 걷고 빗속에서 걷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걸었기에 더욱 단단해지는 강철 같은 사람이 되어갔다.

전국 곳곳에 퍼져있는 지원군들

아무리 정신력이 강하고 날씨에 적응했다고 해도 다리에 쌓이는 피로감은 도무지 어찌 할 수가 없었다.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발에는 늘어가는 물집과 곁을 때마다 오는 무릎 통증은 쉬는 시간에는 잊을 만하지만, 재출발할 때 다시금 고통이 찾아와 나를 짓누르곤 했다. 하지만 그러한 통증을 잊게 해준 것이 35명의 대원들 말고도 더 있었다.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가끔 차에서 창문을 열고 웃으며 '화이팅'을 외쳐주는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경적소리로, 때로는 마주치는 사람들이 어디 학교에서 왔는지 목적지까지 조심히 완주하라는 등의 응원은 걷는 동안 한 번씩 대장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고, 그로 인해 전남대 학생의 넘치는 에너지를 보여줌으로써 대장정을 하는 동안의 큰 원동력 중의 하나였지 않나 싶다. 또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동안 거쳐가는 여러 초등학교나 공공기관들, 일반 상가들에서 가끔 시원한 물을 주시거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주는 것들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텐데 정말 감사한 일이었다. 그렇게 보는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에 쉬는 시간 이후에도 힘을 잃지 않고 다시 힘차게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

내 젊은 날의 초상의 또 하나의 밑그림

인생을 하루로 치자면 내 시계는 지금 아침 7시를 가리키고 있다. 옷자는 소리로 하면 '아직 7시밖에 안됐어? 더 자야겠다' 라고 하는 어리석은 청년들도 있겠지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언제나 깨어있는 젊은이가 되어 벌레 한 마리라도 더 잡을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활 신조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과 늦게 일어나는 사람의 일과를 그림으로 그린다고 친다면 늦게 일어나는 사람의 밑그림이 더 취약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밑그림이 취약한 그림은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없다. 언제나 깨어 있는 젊은이가 된다면 훗날 훌륭한 작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깨어 있다는 것의 의미가 애매모호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생각과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 정신, 젊음을 대표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면 나름대로 깨어 있는 젊은이의 첫걸음은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나는 이번 대장정을 통해, 비단 광주 뿐만이 아닌 우리가 거쳐서 올라간 전국 곳곳에 전남대학교의 깨어 있는 젊은이들의 표상을 표방했다고 생각한다. '묵고 대학생'이라는 말이

있다. 어른들은 방학 때 철저한 계획 없이 먹고 자고를 반복하며 의미없는 대학생 자녀들을 보며 그렇게들 이야기한다. 하지만 CNU frontier를 통해 전남대에 서 더 나아가 우리 나라의 힘찬 대학생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기에, 미 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와 같은 진취적인 이미지 향상에 더욱 기여했을 것이라고 본다.

나의 인생 시계는 이제 7시를 조금 지나가고 있으며 그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CNU frontier를 통해 훗날 내 멋진 인생 작품을 위한 리더십, 협동력, 조직 적응력, 인내력, 자신감, 전남대인의 자부심 등의 밑그림을 조금 더 완성했다. 아직도 그려나가야 할 것은 너무 많다. 하지만 이번에 내 젊은 날의 초상의 밑그림을 제공해주신 CNU frontier에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린다는 말도 꼭 전해드리고 싶다.



04

지리산에서 또 다른 나를 만나자

지리산 종주

어차피 내려올 산을 왜 힘들게 오를까. 성삼재에서 출발해 1박2일 동안 화개재~연하천~세석~천왕봉~중산리 주차장까지 30.5km를 종주하며 얻는 것이 단지 정상에 선 성취감뿐일까. 뒤쳐진 이에게 손 뻗어주는 동료애, 아득한 절경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인간의 존재감, 상처 나고 까진 발로 길을 헤쳐 가며 만나는 수많은 감정 속에서 한단계 성숙한 자신을 느끼게 될 것이다. 초록이 눈부신 6월이 오면 아름다운 도전에 동참해보자.

Program 04. Tip

● **개요** 2011학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극기인성 함양 영역 중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진출하여 어려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발 1,915m 지리산 천왕봉까지 총 30.5km를 종주하는 프로그램이다. ● **대상** 재학생 전체 ● **모집 시기** 매년 5월중 홈페이지 통해 공고 ● **모집 인원** 남학생 20명, 여학생 20명 ● **운영 기간** 매년 6월중 1박 2일 ● **선발 절차** 지원자 접수 → 1차 선발자 선정(스포츠 센터에서 체력측정 검사지 제출, 미제출자는 선발 명단에서 제외) → 2차 선발자 공지 → 사전교육(사전 교육 불참 시 최종 선발자에서 제외) ● **신청 방법** 전남대 포털 CAPD를 통해 신청 접수 ● **참여 학생 혜택** 프로그램 참가비 없음 / 배낭, 반팔, 바지, 랜턴 등 장비 지급 / 자기계발활동기록부 등재 ● **문의** 학생지원과 062-530-1074

역경 이겨야만 정상의 절경 즐길 수 있어

박지현_ 독일언어문학과_ 2011년도 참가자

드디어 새로운 도전의 시작

눈을 감으면 아직도 1915m 천왕봉에서 본 지리산의 아득한 절경이 눈앞에 선다. 새벽 4시, 지리산국립공원에 도착해 단체사진을 찍고 조별로 출발하는 순간 나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는 느낌에 약간 들떴다. 하지만 힘찬 발걸음도 잠시, 10kg이 넘는 배낭을 메고 오르막을 걷다보니 다리는 무거워지고 어깨가 눌러왔다. 힘들었지만 그 날은 운 좋게 며칠 전에 비가 와서 촉촉한 흙냄새가 났고, 등산로 주변에는 사람 손을 거의 타지 않고 자유롭게 자란 여러 나무와 풀이 아름다웠다. 안개에 싸여 아득하게 보이는 식물들의 초록빛은 비현실적일 만큼 아름다워서 지칠 때마다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면 어느새 힘든 것도 잊고 조원들과 탄성을 짓기에 바빴다.

나를 가로막은 세 번의 고비

지리산을 종주하면서 개인적으로 세 구간이 가장 힘들었는데, 그 첫 번째 고비는 바로 토끼봉이었다. 꽤 긴 오르막이었는데, 그 느낌은 기마자세로 전대 대운동장 세 바퀴 정도를 걷는 느낌이었다. 나 때문에 조 전체가 처지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있는 힘을 다 짜내 올랐던 것 같다. 두 번째 고비는 연하천에서 벽소령으로 가는 3.6km구간이었다. 길기도 하지만 큼직하고 뾰족한 바위들이 많아 기둥이 산을 타야 했다. 거기에는 새 등산화에 복사뼈 뒤쪽에 눌러서 아프기 시작했다. 복사뼈에 신발이 닿지 않게 하려고 발목에 힘을 빼고 걷다 여러 번 발을 접지르기까지 해서 종주가 끝날 때까지 나를



힘들 때는 너무 괴로워서
2초마다 한 번씩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앞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을 얻었다.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살았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힘들게 했다. 마지막 고비는 첫째 날 목적인 세석 대피소로 가는 바로 앞 구간이었다. 목표에 거의 도착해간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렸기 때문인지 마지막 오르막과 계단이 끝도 없을 것만 같이 느껴졌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14시간의 산행이 끝나고 오후 6시쯤 세석산장이 눈앞에 보이자 환호성이 절로 나왔다. 정말 도착했구나 하는 생각에 스스로 대견하고 뿌듯했다.

정신 재충전한 소중한 경험

다음날 아침은 다섯 시 반에 일어나 이른 산행을 시작했다. 첫째 날에 비하면 둘째 날은 10km 정도의 코스로 별로 힘들지 않았다. 조원들과 모여 천왕봉에 올라 지리산의 웅장한 산맥과 운무가 깔린 절경을 내려다보는 순간의 성취감은 정말 짜릿한 것이었다. 천왕봉에 오르기까지 힘들었지만 그것을 견뎌낸 사람만이 이 절경을 맛볼 수 있다는 생각에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힘들 때는 너무 괴로워서 2초마다 한 번씩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앞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을 얻었다.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살았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몸은 정말 힘들었지만 정신은 재충전되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다.



05

온고지신의 길을 걷다

남도문화유산 기행

과거 없는 미래는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참 무관심하다. 역사과목은 국영수에 밀린 지 오래고 ‘한국적인 것’은 박물관이나 공연장에서나 만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우리 전통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미래를 발견하기 위해 남도문화유산기행이 매년 개최된다. 2010년 9월에는 2박 3일 동안 진도 역사문화탐방을 다녀왔다. 진도대학교에서 남망산, 소포민속마을, 윤림산방, 진도아리랑비까지 하루 10~20km를 걸으며 진도의 투박한 아름다움과 정겨운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Program 05. Tip

● 개요 옛 문화와 유적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폭넓은 교양을 함양하고 강의실 안에서 전문지식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나 미래에 적용할 수 있는 도리를 일깨워 통섭형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 모집 대상 및 인원 학부생 전체 중 40명 ● 모집 기간 및 실시 시기 매년 9월중 ● 선발 방법 홈페이지 통해 공고 후 참가신청서를 이메일로 접수, 단순 여행이 아니라 참가동기가 명확한 지원자 우선 선발 ● 체험 내용 탐방지 사전교육, 남도 유적지 도보여행, 육자배기, 남도들노래 ● 문의 학생지원과 062-530-1074

은 우는 소리를 내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고 어르신들이 나와서 진짜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소리를 해주셨다. 그 다음 상여를 메고 걷기도 하고, 실제 상여를 메고 부르던 소리를 들었다.

공연마다 다른 즐거움과 애환

세 공연을 모두 돌아보며 느낀 차이점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공연은 공연자들의 즐거움이 느껴졌고, 세 번째 공연에서는 애환이 느껴졌다. 앞의 두 공연은 무대 위 공연자들의 즐거운 표정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직업을 찾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의 연주와 상황을 즐기면서 푹 빠진 것이 눈에 보였다. 반면 세 번째 공연은 시작하기 전에 사회자가 분명 앞의 두 공연과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했는데 사실이었다. 앞의 두 공연은 국악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그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의 공연이었던 반면, 세 번째 공연은 고되게 세상살이한 어르신들의 삶이 그대로 묻어나와 실제적인 느낌이 들었고 한이 전해지는 듯 했다.



남도문화의 새로운 경험과 발견

절도 산행에서는 산행과 바다구경을 모두 할 수 있는 신비한 경험을 했다. 세방낙조에서는 일몰 전 복치는 체험을 했다.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쳐보았던 장구와 팽과리를 오랜만에 들어보니 기분이 새로웠다. 동그렇게 앉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를 북을 치면서 걸으려니 약간 창피한 기분이 들어서 마음껏 즐기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아쉽다.

이번 진도 기행을 통해 전라남도에서 나고 자란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것이 많다니 놀라웠다. 원래 새로운 것을 찾아서 체험하는 것을 좋아해서 이번 기행은 참 즐거웠다.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했을지도 궁금하다. 3일 동안 너무도 많은 것들을 듣고 배우고 익혔다.

06

선배님! 전공 공부 같이해요 전공멘토링

공부하다 모르는 것 물어보기 참 쑥스럽지 않은가. 누구에게 물어볼까 고민도 되고, 혹은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땐 노련한 선배들과 함께 하는 전공 멘토링에 참여해보자. 1학년들은 기본적인 학습 토양을 닦고, 2~3학년은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공부 습관을 다지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Program 06. Tip

● **대상** 여수캠퍼스 학부 재학생 ● **모집 시기** 매년 3월 초(1학기 활동 평가결과 탈락 팀 발생 시 9월 중 추가모집) ● **모집 인원** 학기당 40팀 200여 명 / 팀 구성 : 6명(학년별 1명 이상, 지도교수 1명) ● **신청 방법** 팀 구성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본부 4층 교학과에 제출 ● **활동 기간** 3월~6월, 9월~12월(학기별 운영) ● **활동** 전공과 관련된 팀별 목표에 따라 주1회 2시간 이상 전공 심화학습 / 주별 활동 보고서 및 학기별 결과보고서 제출 / 활동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평가하여 우수활동 팀 선발 ● **지원** 학기별 활동비 지급 / 자기계발활동기록부 등재 및 여수캠퍼스 도전점수 15점 부여 / 우수활동 팀 시상금 지급 ● 문의 여수캠퍼스 교학팀 061-659-6204

일주일 4시간, 천금 같은 시간이죠

국제통상학전공 (we hire)

남근탁, 김준석, 나찬기, 정선영, 강은영, 송수현, 신화진, 2010년도 참가팀

팀명 'we hire'는? 우리는 취업한다는 뜻이에요. 강력한 취업의지를 담고 있죠. (웃음) 또 발음상으로는 '위하여'가 되요. 서로를 위하고 이끌어가는 멘토링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고학년을 중심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공부 열의가 높은 학생들을 추천해서 1학기에 8명이 모여 시작했고, 지금 7명이 함께 하고 있어요.

어떻게 공부하나? 일주일에 4번 모여요. 월·수는 온라인 동영상으로 토익공부를 하고, 화·목은 자격증 공부를 해요. 지금은 얼마 후에 있을 유통관리사 준비를 하면서 오답노트와 문제풀이를 하고 있어요. 유통이나 경제부분 신문 스크랩을 해서 각자의 생각을 발표하고 피드백하는 스터디도 해요. 모든 과정에서 반복학습과 복습을 하고 멘토들이 주기적으로 학업능력을 체크하다보니 다들 실력이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팀의 특별한 점 일단 모이는 횟수부터 달라요. 다른 팀의 2배니까요. 함께 정한 공부 방식을 잘 수행하고 있고 팀워크도 다른 팀이 부러워할 정도예요.

활동 이전 VS 이후 일주일에 4시간.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지만 그냥 흘러 보냈다면 정말 아깝게 느껴졌을 시간이죠. 의무감, 책임감으로 책상에 앉아 함께 공부하면서 어느새 공부에 익숙해졌고,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어 뿌듯해요. 흐지부지 흘러가는 시간이 없어지고, 체계적인 시간 관리가 가능해졌어요.

세가지 TIP 첫째, '똑같이 주어진 1시간, 남들과는 다르게 보내겠다'는 마음가짐! 그러나 공부 열정이 있고 적극적인 팀원들과 함께 하세요. 둘째, 학과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자! 학과 취업캠프나 특강도 함께 들으면 큰 효과가 있어요. 셋째, 무리하지도, 가볍지도 않은 목표를 잡자! 목표가 너무 과장되면 좌절하기 쉽고 너무 느슨하면 성취감이 낮아요. 나에게 꼭 필요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적절한 목표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학년들이 모였기 때문에 선배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아요. 학습 멘토링과 함께 학교생활 전반에 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전공 공부도 서로 피드백해주면서 많이 의지 되고 도움이 되죠. 혼자 하면 미루고 귀찮아서 안 하게 되기도 하는데, 팀원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다른 팀원들을 보면서 서로 자극을 받고 힘도 얻어요.



07

내가 잘 할 수 있는 봉사

전공학문 연계 사회봉사

전공과 연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서 단순한 선행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적이고 자발적인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생들의 전공역량을 키우고 인성 및 품성을 기르는 훈련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Program 07. Tip

● **개요** 전공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 ● **목적** 단순한 선행활동이 아닌 전공영역에서 행해지는 봉사경험으로 전공학문의 목표를 강화하고자 함 / 학생의 자발적인 사회봉사 프로그램 참여로 변화를 주도하고 다음 세대를 움직이며 일깨우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 ● **추진 방향(방침)** 지역사회와 전공학문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교수와 학생이 함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 학과나 전공의 특성과 연계성을 갖는 독창적인 사회 봉사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와 전공학문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상호간 이득이 될 수 있는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 **선정 규모** 10팀 내외 (팀당 참여인원 : 5명~15명 내외(지도교수 포함)) ● **지원 단위 ① 교과목** : 교과목 담당 교수의 지도로 수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 ② **학과(전공)** : 학과(부) 또는 전공 일부 교수의 지도 아래 추진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 ③ **단과대학** : 단과대학 수준에서 추진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 ● **지원 규모** 각 50~250만원 ※ 사업 선정 및 지원 금액은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의·치·약 계열은 대상에서 제외 ● **모집시기** 5월 ● **활동시기** 6~11월 ● **문의** 학생지원과 062-530-1083

08

이번 학기엔 경북대, 내년엔 부산대

학생교류

나 자신과 세상에 눈을 뜨는 경험을 위해 꼭 해외로만 나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국내 다른 대학의 학생이 되어 그 학교의 강의를 수강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쌓는 기회도 있다. 서울대·경북대·부산대 등 주요 국립대를 비롯해 조선대·순천대·광주과학기술원 등 지역 대학, 중앙대·고려대 등 수도권 사립대에서 한 학기 이상 교류학생으로 지낼 수 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대학교는 다른 교육환경과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충분하다.

Program 08. Tip

1. 영·호남(경북·부산·울산대) 학생교류

● **모집학과 및 인원** ① **모집학과** 전학과(의·치대 및 수의대 제외) 울산대학교(의·치대, 약학대, 수의대, 사범대, 간호대 제외) ② **모집인원** 경북대 40명, 부산대 20명, 울산대 10명 ③ **모집대상** 재학생 및 복학 예정자(8학기 및 졸업 최종 학기 수강자는 제외) ● **모집시기** 1학기 : 1월 초 / 2학기 : 7월 초 ● **교류 수학 기간** 한 학기(연장 희망자는 선발 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 결정) ● **지원 자격(최소 2학기 이상 이수자에 한함)** 기 이수학기의 성적 총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 **혜택** 수학기간 중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 제공하고 기숙사비는 학생 본인 부담 (단, 울산대학교는 기숙사비 면제) ※ 방학기간 중 기숙사 이용료는 학생본인이 별도부담 ● **문의** 학생지원과 062-530-1104

2. 기타 대학 학생 교류

구분	주요협정내용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서울산업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순천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 일반학생교류 및 학점상호인정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울산대학교	- 영호남 교류(학생지원과 주관) - 학비면제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대학교 대불대학교, 동신대학교 조선대학교, 초당산업대학교 한려산업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군산대학교	- 학생(대학원생 포함)교류 및 상호학점 인정 - 계절학기만 교류
중앙대학교 동국대학교 고려대학교 울산대학교	- 학생교류 및 학점교류 -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류

● **지원자격 (최소 2학기 이상 이수자에 한함)** 학사과정 지원자는 기 이수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3.0 이상 인 자 / 대학원생 지원자는 기 이수 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3.5이상인 자 /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학기당 취득학점** 정규학기 : 개인의 제한학점 범위 내 / 계절학기 : 6학점 이내 ● **모집시기** 1학기 : 7월 초(하계계절학기 6월 초) / 2학기 : 1월 초(동계계절학기 12월 초) ● **교류 수학 기간** 통상 2학기 (계절학기 제외) ● **승인절차** 타 대학 교류안내문 공고 → 소속 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 학사관리과 신청서 접수 → 학사관리과 자료 검토 → 교류대학에 추천 → 교류대학으로부터 승인 통보 → 해당 대학에 통보 및 알림방 개재 ● **문의** 학사관리과 062-530-1063

드림캘린더로 설계하는
나만의 통섭인재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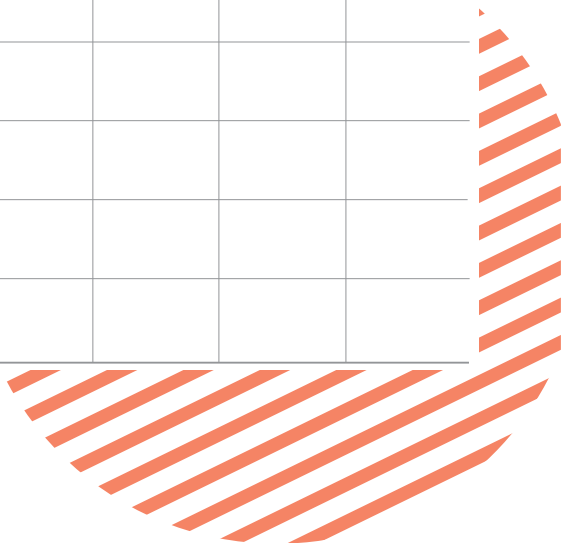
나만의 동성인재 드림캘린더

114~115p 캘린더 일정을 참고로 자신의 프로그램 참여 일정을 설계해보세요.

프로그램 / 운영기간 (월)	1	2	3	4
올곧은 인성함양 프로그램 학생지원과 062-530-1072				
자기계발을 위한 코칭리더십 집중 캠프 프로그램 학생지원과 062-530-1104				
국토대장정 학생지원과 062-530-1074				
지리산 종주 학생지원과 062-530-1074				
남도문화유산기행 학생지원과 062-530-1074				
전공멘토링(여수) 여수캠퍼스 교학팀 061-659-6204				
전공학문 연계 사회봉사 학생지원과 062-530-1083				
학생교류 학생지원과 062-530-1104 / 학사관리과 062-530-1063				



5	6	7	8	9	10	11	12



“취업지원과와 친해지면 좋은 일 생겨요”

“우리 과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도와주려고 안달난 사람들이예요. 부지런히 우리 사무실을 드나든 학생들은 꼭 좋은 기회를 잡게 되죠. 취업지원과 프로그램을 열심히 한 여학생은 총장 추천 정보를 얻어 대기업에 입사했고, 3학년 취업서포터로 활동하며 처음 취업로드맵을 그려봤던 남학생은 졸업도 하기 전에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이곳저곳 기웃거리다 보면 금방 한 학기, 일 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성공적인 취업은 구체적인 진로설계로부터 출발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취업 서포터
취업지원과 이득연 선생님



취업지원

Dream Manual

성공취업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광주캠퍼스 1백도 층과 여수캠퍼스 학생회관 3층을
부지런히 드나들 것을 권한다.

진로 적성탐색부터 취업캠프, 현장실습,

이력서 작성과 면접훈련까지,

취업지원과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즐기다보면

어느새 당신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취업포털 <http://capd.jnu.ac.kr>

광주캠퍼스 취업지원과(백도 1층)

취업지원 062-530-1105~8 / 진로교육 062-1110~2

여수캠퍼스 취업지원팀(학생회관 2·3층) 061-659-6232, 6233, 6237



성공의 비결,
즐거게
진행하자!



취업지원 드림캘린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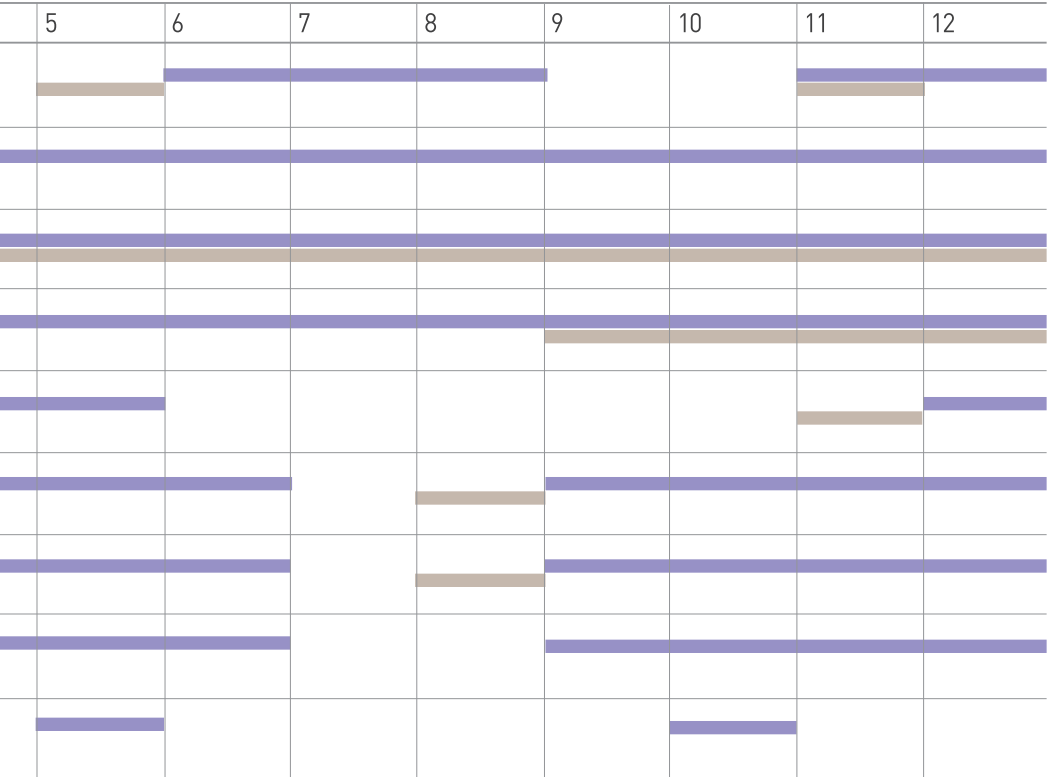
관심있는 프로그램의 시행 시기를 놓치면 후회막급이다. **꼼꼼한 일정챙기기는** 실속있는

프로그램 운영기간 (월)	1	2	3	4
취업에이스 프로그램 취업지원과 062-530-1111				
기업체 채용 행사 취업지원과 062-530-1105				
심리검사 및 진로적성탐색검사 학생상담센터 062-530-3785 / 여수 교학과 취업지원팀 061-659-6237				
취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취업지원과 062-530-1106 / 여수 교학과 취업지원팀 061-659-6237				
취업보장형 단기취업교육 프로그램 취업지원과 062-530-1110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취업지원과 062-530-1111 / 여수 교학과 취업지원팀 061-659-6237				
생애와 직업탐색 취업지원과 062-530-1111 / 여수 교학과 취업지원팀 061-659-6237				
One stop 취업코칭 프로그램 교학과 취업지원팀 061-659-6233, 6237				
청경! 도전100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면접 경진대회(여수) 교학과 취업지원팀 061-659-6233, 6237				

● **1학년 · 2학년 나의 매력을 발견하자! 자기 탐색기**

심리검사 및 상담을 통한 자기탐색 / 영어회화 제2외국어 등 여학공부 시작
동아리 봉사활동을 통한 리더십 및 나눔을 실천 / 구체적인 진로목표 설정

프로그램 고수가 되는 중요한 덕목!



제공된 드림캘린더는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 3학년 취업 내공 쌓기! 구직 능력 강화기

학점 외국어 성적관리(학점 3.5 이상, 토익 750점 이상)
/ 외국어 회화 능력 강화(삼성전자 OPIc 5단계 이상) /
직무에 맞는 현장실습, 자격증 획득, 공모전 참여

● 4학년 합격까지 이제 한 걸음! 적극적 구직 활동기

매일 채용정보 탐색, 채용설명회 및 기업탐방 / 취업스
터디 활동 / 입사지원서 작성 및 면접 훈련, 구직 활동

01

자기계발활동 및 취업 진로 설계를 한 곳에서

경력 및 직업개발시스템

교내 학생 참여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보고 참여 후 자기계발활동기록부로 관리할 수 있고, 학생이 교수 및 전문가와 온라인상에서 상담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으며 전공 분야 진로 및 취업한 동문들의 취업처 및 취업스펙을 확인한 후 진로 설계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이다.

Program 01. Tip

● **시스템 내용** ① 각종상담 : 지도교수 상담, 전문가와 상담, 심리검사 ② 학생역량강화 프로그램 - 취업지원과 : 취업교과목, 현장실습, 취업경쟁력강화프로그램 등 / 학생지원과 : 리더십프로그램, 사회봉사단, 장학금 신청 등 / 국제협력과 : 세계교육기행, 해외연수,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 / 기초교육원 : 공부일촌 한울학습, 이뿃고-교학상장, 다독다독 등 / 언어교육원 : 외국어능력향상 프로그램 등 ③ 자기계발활동기록부 - 신청 및 접수, 온라인 확인, 자기계발활동기록부 출력 ④ 취업통계조사 동문DB관리 - 취업현황 조사, 취업동문 DB구축, 취업을 상시 조회(대학, 학과별) ⑤ 기업체관리 - 기업체 정보, 실시간 채용 정보, 채용설명회 및 상담, 취업추천, 아르바이트 ● **원스톱 시스템** 프로그램 신청 → 프로그램 참가 → 결과 확인 ● **이용방법** 경력 및 직업개발시스템(<http://capd.jnu.ac.kr>)에 접속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및 수학계획서, 커리어로드맵 작성 → 다양한 학내 프로그램을 탐색하고 참여

02

컨설팅은 개별로, 취업활동은 뭉쳐서 취업에이스 프로그램

학교가 나를 에이스로 키워준다.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 개인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인 취업 스킬을 기르고, 같은 직종을 희망하는 팀별로 모여서 함께 스테디를 한다.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취업 주전 선수가 되어보자.

Program 02. Tip

● **개요** 대기업 입사지원 자격을 갖춘 4학년 및 졸업생을 선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 **대상** 4학년, 졸업생 ● **선발 방법 및 선발 인원** 이공계(토익 600 점 이상, 학점 3.0 이상), 인문계(토익 700점 이상, 학점 3.0 이상) 포함 200명 내외 ● **모집 시기** 5월, 11월 ● **운영 기간** 6월~8월, 12월~다음해 2월 ● **신청 방법** 경력 및 직업개발 신청 ● **활동 내용** 자기소개서 및 면접 개별 클리닉, 취업스터디, 입사지원서 및 이미지 컨설팅, 직무적성검사, 기업분석 발표대회, 취업멘토링, 기업체 탐방 등 ●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취업 스테디 활동 / 기업분석 자료 수집 및 발표 ● **참여 학생 혜택** 취업담당자의 개인별 취업 관리(취업추천 우선권 부여) / 취업 시즌 대기업 지원시 개인별 컨설팅 실시 / 직무별 스테디룸 지원 및 우수 활동팀 포상 / 취업정보 공유 및 취업한 선배와의 멘토링 시스템 구축 ● **문의** 취업지원과 062-530-1111 <http://cafe.daum.net/cnuace>

취업에이스로 취업했어요

김지혜_ 경영학과_ 2010년도 참가자 · 훔플러스 취업

학교 프로그램 달인 1학년 때부터 공부일촌, 세계교육기행, 취업캠프, 차세대CEO과정 등 수많은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서울대 교환학생으로도 다녀왔고, 경영대 동아리 '네오펍' 회원으로서 토론 대회 '호락호락' 운영팀장도 맡고, CJ공모전에서 우수상도 받았죠. 경영대에서 진행하는 취업 멘토링과 취업 에이스의 팀장을 맡고 있어요. 처음엔 힘들어서 하나를 그만둘까 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취업 에이스 여름방학을 앞두고 초기에는 면접·자기소개서 특강, 인적성시험을 보았어요. 방학 이후에 다시 인적성시험을 봐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방학 동안 동기부여가 잘 됐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성과발표회도 처음엔 좀 귀찮았는데, 잘 하는 팀들을 보자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혼자 하면 지치거나 포기하기 쉬운데, 프로그램 안에서 팀으로 활동하면서 서로 다독여주는 게 좋아요.

영업·마케팅팀 취업분야에 따라 10여 팀이 구성되었는데 저는 영업·마케팅팀이에요. 함께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정말 큰 힘이 돼요. 우리 팀은 매일 신문스터디를 하고, 일주일에 두 번 자기소개서 피드백, 인성면접 스타



디, PT·토론 스터디를 해요. 방학에는 집중적으로 토익을 파고들었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8시 40분부터 정오까지 정말 독하게 공부했더니 팀원들 9명이 평균 850점을 넘기는 기적이 일어났어요.(웃음)

경험이 취업 준비 1~2학년 때의 다양한 경험이 좋은 스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르바이트, 해외 인턴 등 그 시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경험이 많잖아요. 시기별로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일찍부터 영어나 학점에만 투자해서 나중에 자기소개서에 적을 내용이 그것뿐인 게 더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발표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미리 익혀두는 것도 좋겠죠.

삶의 에너지, 다이어리 남들도 흔히 쓰는 거지만 저에겐 좀 특별해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생각을 정리해서 마음을 다잡다보면 에너지가 다시 솟는 기분이 들거든요. 평균 세 달에 한 권씩 다이어리를 쓰는데요, 신기하게도 다이어리를 바꿀 시기쯤 되면 제가 목표로 했던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걸 발견해요. 끊임없는 자기암시와 촘촘한 실천계획이 그런 마술을 부리는 것 같아요. 가끔은 혼자 소름끼쳐서 놀라기도 해요.

취업의 TIP 1학년 때는 학교를 찾는 유명 인사들의 특강을 꼭 챙겨 들으세요. 인생의 큰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1~2학년에는 아르바이트 경험도 자기 사업이라 생각하고, 좀더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강의를 듣고 세계교육여행, 공모전, 해외 인턴에도 도전해 보세요. 3학년쯤 되면 리더나 기획자로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4학년 때는 친구들과 함께 구체적인 취업준비를 하는 취업 에이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되겠죠?



03

취업에 필요한 모든 걸 한번에

기업체 채용 행사

학생들의 취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취업 연중행사이다.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증권, 두산, 우리은행, CJ그룹, SK텔레콤 등 190여회의 채용설명회와 채용상담이 이루어지며 입사지원서 컨설팅, 면접준비 특강, 이미지 메이킹 등 실질적인 구직 스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Program 03. Tip

- 대상 재학생 전체
- 시기 연중
- 내용 기업 채용설명회 및 채용상담 / 입사지원서·면접 특강 및 컨설팅 / 호감가는 첫인상 만들기 / 취업 성공모델 따라잡기 / 기업체 인적성검사 / 취업영어 특강
- 문의 취업지원과
062-530-1105



Program 04

실질적 구직기술 배우는 '취업박람회' 현장



04

내가 몰랐던 나를 알아보자

심리검사 및 진로적성탐색검사

진로검사, 성격검사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탐색과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기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취업지원과 학생상담센터에서 정해진 시간에 검사가 가능하다.

Program 04. Tip

● 대상 재학생 전체 ● 모집인원 및 선발방법 수시 ● 모집시기 및 운영 기간 수시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활동내용 각종 심리검사 및 진로적성 탐색 검사 실시 ① **진로적성** Holland 적성탐색검사 (직업적 성격유형을 R(실제적), I(탐구적), A(예술적), S(사회적), E(기업적), C(관습적) 모형으로 측정) / 생애진로검사 / 적성진단검사 ② **성격/인성** MBTI성격유형검사 :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편안한 심리유형 파악하도록 도움 / 성격진단검사 : 책임감, 안정성, 사회성 등과 같은 성격요인과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요인을 함께 측정하여 현재 상태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 ● 문의 학생상담센터 062-530-3785 / 여수 교학과 취업지원팀 061-659-6237

05

원하는 취업 스킬 기르기

취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기업 채용 시스템에 맞춘 체계적인 취업 스킬 향상 교육프로그램이다. 기업체 인사담당자 및 취업전문 컨설턴트를 초청하여 다양한 취업특강 및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Program 05. Tip

● 대상 재학생 전체 ● 모집인원 및 선발방법 해당 프로그램별 인원 선발 ● 모집시기 수시 ● 운영기간 수시 ● 신청방법 경력 및 직업개발시스템(<http://capd.jnu.ac.kr>)에서 신청 ● 활동내용 ① 면접능력증진 프로그램 인성면접, 토론면접, 영어면접, 프레젠테이션 면접 등 유형별 면접지도 ② 효과적인 토론 및 PT스킬 강화 프로그램 자기표현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통해 면접 대비 ③ 기업체 모의 인·적성검사 모의 SSAT, 직무 유형 탐색 검사 ④ 기업별 맞춤형 모의면접 기업체 인사담당자 초청 맞춤형 모의면접 ⑤ 취업시즌 맞춤형 특강 자기소개서 작성법, 이미지 메이킹 및 면접법 특강 ● 문의 취업지원과 062-530-1106, 여수 교학과 취업지원팀 061-659-6237

06

열정으로 당당하게 도전하자

취업보장형 단기취업교육 프로그램

취업준비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계디자이너과정, 고급 품질·생산관리과정, 웹디자이너과정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시킨 후 중견기업에 취업 알선하여 취업률을 높인다.

Program 06. Tip

● 대상 전년도 8월 및 올해 기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모집 인원 광주캠퍼스(설계디자이너과정 40명, 고급 품질·생산관리과정 40명), 여수캠퍼스(웹디자이너 과정 30명) ● 운영 시기 9월 ~ 12월까지 240시간 집중교육 후 교육 수료자는 중견기업 취업알선 ● 신청방법 경력 및 직업개발시스템(CAPD)에서 8월말 ~ 9월초에 신청 ● 문의 취업지원과 062-530-1110

07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취업준비에 앞서 자기 탐색의 시간과 경험쌓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1, 2학년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 교과목이다. 자기분석, 직업탐색, 커리어플랜 작성법, 진로상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학부(과)에서 운영하여 전공 특성에 맞는 진로설계를 하도록 돕는다.

- 대상 1~2학년 재학생 ● 모집시기 2월, 8월 (1~2학기 수강신청 기간과 동일)
- 운영기간 2학기 ● 신청방법 수강신청 ● 활동내용 대학생활지도, 조기 진로탐색, 체계적인 경력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문의 취업지원과 062-530-1111

08

생애와 직업탐색

3, 4학년들의 구직능력 강화와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위해 채용 전망과 취업전략, 입사지원서 작성법, 기업 인·적성 검사, 직무 이해 및 면접 유형별 대처법 등 체계적인 취업준비를 돕는 명품 교과목이다.

- 대상 및 모집인원 3~4학년 재학생으로 학기별 300명 ● 모집시기 2월, 8월 (1,2학기 수강신청 기간과 동일) ● 운영기간 1, 2학기 ● 신청방법 수강신청 ● 활동내용 기업채용 동향 이해와 기업채용 전형에 맞춘 취업스킬 강화교육 ● 문의 취업지원과 062-530-1111 / 여수 교학과 취업지원팀 061-659-6237

09

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상담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설명회 및 상담을 유치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업의 채용정보와 자기에게 맞는 기업에 입사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 대상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 ● 시기 경력 및 직업개발시스템 참조 ● 활동내용 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상담 참가 ● 문의 취업지원과 062-530-1105/ 여수 교학과 취업지원팀 061-659-6221

10

현장실습

학생들이 재학 중 일정기간 사회 및 기업현장 체험을 통해 실무능력도 쌓고 학점도 받는 교과과정이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진로결정 및 취업에 도움을 제공한다.

- 대상 재학생 ● 운영 기간 계절제 : 하계, 동계 8주 실습(5학점) / 학기제 : 방학~학기중 24주 실습(15학점) ● 신청방법 경력 및 직업개발시스템 (<http://capd.jnu.ac.kr>) 참조 ● 문의 취업지원과 062-530-1107

11

목표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보자

One stop 취업코칭 프로그램

취업 코칭을 위한 취업 상담 컨설턴트의 수시 상담 활동을 통한 여수캠퍼스 학생들의 취업준비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Program 11. Tip

● **목적** 취업상담 프로그램의 접근성 제고, 학생별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여수캠퍼스 학생들의 취업을 제고
● **대상** 전 학년 ● **운영인원** 학기별 250명 총 500명(학기 중 상시) ● **운영 기간** 3월~6월, 9월~12월(상시운영) ● **신청 방법** Job cafe(학생회관 303호)에서 신청 접수 ● **활동 내용** 개인별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 진로 설정을 위한 정보 및 구직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 기업별 채용정보제공 /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서·자기소개서 클리닉 운영 / 기타 취업준비에 필요한 정보제공 ● **문의** 여수캠퍼스 취업지원팀 061-659-6233, 6237

12

취업률 100%에 도전하자

청경! 도전100

이력서 · 자기소개서 · 면접 경진대회

이력서 · 자기소개서 · 면접 특강, 이력서 · 자기소개서 클리닉 및 맞춤형 개인지도, 모의면접 경진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취업 스킬을 향상시키고 취업률 100%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이다.

Program 12. Tip

● 대상 졸업생 및 재학생 ● 시기 매년 5,10월 ● 혜택 최우수상 2명 등 총 10명 시상, 경진대회 수상자에게 취업추천 우선권 부여, 참여학생 도전점수 부여 ● 문의 여수캠퍼스 취업지원팀 061-659-6233, 6237

● 여수캠퍼스 취업지원 공간

“성공취업 궁금하다면 학생회관 3층 Job Cafe로 오세요!”

먹고, 쉬고, 놀고, 재충전하는 공간인 학생회관. 이 곳 3층에는 특별한 Cafe가 있다. 에스프레소 향기나 카라멜 마끼아또의 달달함은 없지만 취업을 향한 열기와 진지함이 넘치는 'Job Cafe'다.

취업지원팀의 친절한 선생님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고민을 해결해준다. 진로검사, 성격검사, 인·적성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을 상담기록부에 신청하면 스케줄을 잡아 연락해준다. 검사 후에는 상담전문가의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심리검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회당 2점의 도전점수가 부여된다. 기업체들의 변화하는 채용동향을 담은 다양한 취업 정보 책자들도 읽을 수 있다. 이전에 진행했던 면접특강을 동영상 CD로 볼 수 있고, UCC공모전 수상 작품 등의 DVD 상영도 한다.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재학생, 졸업생 누구나 출입 가능하다. 심리검사 및 상담은 방학을 포함해 연중 이용할 수 있다. Job Cafe 문턱이 낮도록 드나든 당신, 성공취업의 꿈을 이루리라.





선생님의
자기소개서
양식을 흠뻑 읽어라!

CJ 제일제당 입사

임미란_ 불어불문학과 (2011년 2월 졸업)

자기소개서

1. 입사지원동기 - '20살에 서점경영을 시작하다'

20살 때 어머니께서는 암 판정을 받으셨고, 아버지께서는 심장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부모님 대신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서점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경영하실 때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초·중·고생 개강이나 방학 시즌이 되면 인근 학원에 가서 직접 책 목록을 받아와 미리 교재 준비를 해놓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매장에 앉아서 고객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어 고객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그곳에 가면 나를 특별 대우해준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어린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객의 이름과 간략한 정보를 기억하여 'OOO님' 하고 이름을 불러드리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들과는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학생들과는 공부하면서 느끼는 고충을 저의 학창시절을 회상하며 공유하였습니다. 소설책에 관심이 많으신 고객과는 대학에서 배웠던 교양을 바탕으로 작가와 문학에 대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 서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고객들께 심어줄 수 있었고, 매출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운영을 하게 된 뒤 1년이 지나자 전년도에 비해 매출이 약 20%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서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책과 식품은 품목이 다르지만 영업을 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함과 저만의 영업 전략을 토대로 CJ제일제당 식품영업 분야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2. 입사 후 이루고 싶은 목표 -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황금배열'

광주에 있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CJ제일제당이 설탕사업으로 시작한 회사인 만큼 설탕 매대 점유율이 타사제품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또한 웰빙트렌드에 맞추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진 올리고당 코너에서는 광고영상을 진열대 앞에 틀어놓고 매장 바닥에 스티커를 붙여놓아 지나가던 고객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식용유 코너에서는 백셀유가 고객의 눈높이에 잘 맞는 3~4번째 줄에 진열되어 있어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다른 품목에서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장류를 살펴보면 진열된 수량이나 홍보 면에서 타사제품과 비교했을 때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다사다는 신제품인 '산들'만 눈에 띄는 곳에 있고 기존 제품은 매대 하단에 따로 있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CJ제품이 더 많았지만 진열상태 때문에 타사제품이 더 돋보이는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추석시즌에 맞춰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곳이 많이 있었는데, CJ제품은 품목이 제한적이었고 홍보가 잘 되지 않아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품목을 하나의 세트에 함께 넣어 실속적인 세트판매를 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을 놓친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업 전략은 효과적인 상품진열로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주력상품은 해당 매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동량이 많은 곳에 진열하여 자연스럽게 고객의 소비를 유발시키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CJ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3. 지금까지 겪었던 일 중 어려웠거나 실패했던 경험, 대처방법 - '－를 +로 만드는 전략'

2007년 신학기가 시작될 무렵 근처에 다른 서점이 생겼습니다. 버스 한 코스도 되지 않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매출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매년 참고서가 개정되어 나오면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전년도 3월 달 매출과 비교하였을 때 매출액은 비슷하였지만 영업이익은 약 15%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3가지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개강 시즌에 맞춰 인근 학원에 가서 책 목록을 받아와 미리 교재 준비를 해놓고 학생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학교 별, 학원별로 진열을 하였습니다.

둘째, 저희 서점에 없는 책을 찾을 경우에는 고객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에 문의하여 알아보고 구하기 힘든 책은 유통 경로를 파악하여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맞추어 구입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여 단골 고객을 확보하였습니다. 현금으로 구매 시 구매금액의 5%, 신용카드나 상품권으로 구매 시 2%를 적립해드려 일정 포인트 이상이 되면 책을 구매할 때 적립된 만큼 차감해드렸습니다. 영업이익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해 드려 실속과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3가지 전략대로 운영을 하고 나니 급감했던 영업이익이 차츰 상승세를 보이면서 1년 후인 2008년 신학기에는 약 20%까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전략만 잘 세우면 외부적인 요인으로 손실이 생기더라도 내부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4. 본인을 설명할 수 있는 카피나 슬로건, 그 이유 - '컨디션 파워'

CJ제일제당의 숙취해소음료인 '컨디션 파워'의 광고에서처럼, 저의 경쟁력은 철저한 자기관리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저만의 자기관리법입니다.

일례로 개인적인 일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서점을 보게 되었는데, 한 고객이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제품 손상을 서점의 관리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객의 적반하장격인 태도에 화가 났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공손한 태도로 정황을 조리 있게 말씀드렸더니 고객께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시고 사과하셨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단골 고객이 되어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처럼 유쾌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 남들과 다른 저만의 경쟁력입니다.

GS건설 입사

최수옥_ 전기공학과 (2008년 졸)

자기소개서

1. 자기소개(성장과정, 성격의 장점 및 보완점 등)

“지치지 않는 정신력과 밝은 성격의 소유자.”

학업문제로 일찍이 부모님 곁을 떠나 타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성실함을 바탕으로 학창시절 12년 동안 결석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3년간 풍물패 “하니”라는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2학년때 선배들로부터 신임을 얻어 동아리 회장으로 선출되어 후배들과 동기들을 이끌었고, 학교 축제 및 각종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선생님과 친구들은 모두 최고의 공연이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동아리 회장으로서 회원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후배들에게는 다정함을, 동기들에게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저에게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고, 세상을 항상 즐겁게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주었습니다.

“주변을 밝게 만드는 나의 미소.”

매일 아침 학교 건물에 들어서면 묵묵히 청소를 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주변에 아랑곳하지 않고 청소만 하시는 아주머니께 어느날 부터 저는 환한 미소로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동안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보시더니, 나중에는 아주머니께서도 웃으면서 저에게 인사를 해주셨고, 지금은 아침을 아주머니께 하는 인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늘 웃고 있는 저를 보고 뭐가 그렇게 좋냐며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안 좋을 것도 없지 않냐며 되묻곤 합니다. 낙천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즐거움을 느끼며 일을 할 때, 느끼는 보람도 크고, 행복해집니다.

“시간을 소중하...”

저는 자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고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기억해야 할 일이 생기면 메모를 하였습니다. 매일 같이 오늘 해야 할 일과 내일 해야 할 일을 메모지에 적었고, 하루가 끝날 때는 메모해놓은 사항을 보면서 하루를 돌이켜보았습니다. 자주 깜빡하는 버릇을 고치기 위해 시작했던 메모는 이제 습관이 되었고, 메모하는 습관은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곤 합니다.

2. 학교 생활에 대하여 (동아리/학회/리더경험)

“앞선 사고를 통한 도전으로 최고의 성과를.”

“년 정말 아물다” 저의 2006년 학과 학생회장으로서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한해동안 뜨거운 열정과 희생정신으로 학과 학생회장의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학우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1년간 있었던 모든 행사에서 역대 최고의 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 한 학과의 학생 대표자로서 내가 아닌 학우들과 학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였고, 학과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오늘, 여차피 해야 할 일이면 즐겁게.”

2006 전남대학교 중앙감사위원장. 지난 몇 년간 이루어지지 못한 총학생회 감사를 제가 이루어 냈습니다. 과거 감사에 관한 자료들은 전무한 상태여서 직접 발로 뛰며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감사를 시작할 무렵 감사위원들의 사퇴로 인하여 어려움도 겪었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고,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혼자라도 꼭 이루겠다는 신념으로 6명의 감사위원을 믿고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감사를 철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중앙감사위원장으로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모든 감사 결과는 학교 언론을 통해 보도 하여 학우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나의 작은 실천으로 서로에게 행복을.”

“백혈병 환자가 혈액이 급히 필요한데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줄수 있으세요?” 갑자기 저에게 걸려온 전화의 내용입니다. 병원이 학교에서 멀었지만 곧바로 달려가서 헌혈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한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보람이 컸습니다. 환자의 부모님의 후사를 정중하게 거절한 후 가지고 있던 헌혈증을 모두 드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헌혈

을 하게 되었고, 헌혈증은 환자들을 위해 기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헌혈을 30회이상 하게 되었고, 올해 6월 헌혈 유공 표창을 받을 예정입니다.

3. GS건설 지원동기(역량을 중심으로 기술)

“百聞이不如一見 이요 百見이不如一行이다.”

제 맘과 노력이 깃든 건물을 짓는 것이 제 꿈이고 제 목표입니다. 제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곳, 바로 GS건설입니다. GS건설 입사를 위해 고민하던 중에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인턴사원 채용공고가 제 가슴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건설을 선도해온 GS건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맥가이버 최수옥” 제가 나타나면 모든 일이 해결되고, 꼭 필요한 존재라는 의미로 후배들과 친구들, 선배들이 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GS건설의 맥가이버가 되겠습니다. Best Partner, First Company 제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 복무시절 유격조교 생활은 저에게 강한 승부근성과 업무 추진력을 길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온갖 힘든 훈련을 마쳐야 선발되는 훈련을 통과하여 임무를 수행하였을 때 비로소 제 자신이 최고의 위치에 서있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에서의 8개월여 간의 회사생활은 새로운 세계로의 도전이었습니다. 자재팀의 일원으로서 생산라인에 자재공급이 멈추면 안 되었기에 자재 수급에 최선을 기하였습니다. 일하는 도중 자재관리의 미비점을 발견하고, 보다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개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고에서 라인으로의 자재 공급시간을 단축하였고, 매월 실시하는 재고 조사의 준비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한 제 역량을 GS건설에서 펼쳐 보이겠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하여 GS건설에 걸맞는 전문 설비 시공인이 되겠습니다.

4. 희망 직무 및 입사 후 포부(희망직무의 성공적 수행을 가정하여 기술)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에 내 손길이 닿은 등불을.”

“그 일은 최수옥 씨에게 물어보면 해결해 드릴 겁니다.” GS건설에 꼭 필요한 사람, 전기 설비 시공분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항상 솔선수범의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가장 많은 일을 수행하면서, 전기 설비 시공 전문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많이 배우는 과정의 사원의 위치를 거쳐 GS건설 전기 설비 시공분야에서 최고가 되겠습니다. 제 이름 최수옥의 알파벳 이니셜은 CSO입니다. Chief Safety Officer. GS건설에서 전기 시공 분야의 최고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빠른 거북이입니다. 결코 지지 않는 정신력과 도전정신으로 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세계최고의 건설회사 GS건설이 될 수 있도록 밀거름이 되겠습니다.

꿈을 이루는 것은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다.

생각만 가지고 이루어 낼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합니다. 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꿈을 이루게 해줄,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가슴속에서 두근두근 뛰고 있는 강인한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펼쳐 보여야 할 때입니다. 근시안적인 태도가 아닌, 멀리 바라보고 하나하나 준비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제 자신뿐만 아니라 회사의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노력하고, 도전하는 자세로 GS건설이 신뢰받는 Best Partner, First Company 가 될 수 있도록 초석이 되겠습니다.

드림캘린더로 설계하는
나만의 취업도전
프로그램



나만의 취업준비 드림캘린더

146~147p 캘린더 일정을 참고로 자신의 프로그램 참여 일정을 설계해보세요.

프로그램 운영기간 (월)	1	2	3	4
취업에이스 프로그램 취업지원과 062-530-1111				
기업체 채용 행사 취업지원과 062-530-1105				
심리검사 및 진로적성탐색검사 학생상담센터 062-530-3785 / 여수 교학과 취업지원팀 061-659-6237				
취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취업지원과 062-530-1106 / 여수 교학과 취업지원팀 061-659-6237				
취업보장형 단기취업교육 프로그램 취업지원과 062-530-1110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취업지원과 062-530-1111 / 여수 교학과 취업지원팀 061-659-6237				
생애와 직업탐색 취업지원과 062-530-1111 / 여수 교학과 취업지원팀 061-659-6237				
One stop 취업코칭 프로그램 교학과 취업지원팀 061-659-6233, 6237				
청경! 도전100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면접 경진대회(여수) 교학과 취업지원팀 061-659-6233, 6237				

Dream Plus

장학금

자기계발활동기록부

도전점수

다양하고 폭넓은 장학금

장학금

재학생 66%에 혜택,
연간 규모 410억 원

“가난은 열정을 이기지 못한다.”

전남대학교는 학업과 비전 찾기에 열정을 쏟는 학생들을 장학금으로 격려한다. 재학생의 66%에게 장학금의 혜택이 돌아갈 만큼 전남대학교의 장학금은 다양하고 많다. 장학금 규모는 연간 410억 원에 이르고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등 재원과 수여 성격이 다양하다. 국립대학의 낮은 등록금과 함께 우수한 장학혜택은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지원이다.

01

교내 장학금

- **등록금 재원 장학금**

- **우수 장학금:** 입학 및 재학중 성적우수 장학금
- **법정 장학금:** 국가유공자 및 자녀 장학금,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 장학금
- **복지 장학금:** 아동복지 및 소년·소녀가정청소년 장학금, 신입생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우수(가계곤란) 장학금, 장애학생 장학금,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장학금, 농어촌고교출신신입생 장학금
- **특별 장학금:** 체육특기자 장학금, 영호남교류학생 장학금, 가족 장학금, 학·석사 연계과정 장학금
- **근로장학금(학부), 교육조교 장학금(대학원)**

- **발전기금재단 장학금**

용봉장학금, 용봉우수장학금, 대신장학금, 동원장학금, 기타 지정·미지정 장학금

- **단과대학 장학금** 단과대학 자체지급 장학

- **특성화사업단 장학금**

BK장학금(대학원), 바이오하우징장학금, 광역경제권선도사업장학금 등

교외 장학금

- **정부산하기관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I, II),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근로장학금

-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

농어업인자녀장학금, 후계인력양성장학금

-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선발하는 장학생으로 총 20여 종

- **장학재단**

금호아시아나 장학금, 광주은행 장학금, 정수 장학회, 미래에셋 장학금, 동창장학회 장학금, GS칼텍스 장학금 등 80여 종

도전 장학금

- **내국인**

도전정신이 투철하고 진취적인 학생을 선발해 교육프로그램 등에 참여시키고 교육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이들이 초년생에게 도전의식과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멘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능력을 향상시켜 적극적인 학교생활과 다양한 학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질 높은 유학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장학금

미래국제재단 장학금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면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봉사정신이 남다른 재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 지원자격 : 성적우수 학생(학점, 가정형편, 봉사정신 평가)
 - 활동내용 : 빈곤층,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학습지도 역할
 - 지원금액 : 월 실적에 따라 지급(연 540만원~720만원)
-

용봉·청경 인재육성 장학금

개교 60주년인 2012년까지 교직원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60억 원 장학금 조성운동' 을 전개, 모아진 장학금을 우수학생 장학금 및 기숙사비 지원 등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사용할 예정. 2011년 1월 현재 교직원과 동문, 대학 주변 상인 등 총 536명이 참여해 8억7천7백여 만원을 조성.

여수캠퍼스 학업능력향상 지원금

기존 성적 위주의 장학금이 아니라 도전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하는 지원금

- 신청자격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평균평점이 2.750이상이며 도전점수 등록자
 - 지원금액 : A등급 150만원, B등급 100만원, C등급 50만원
 - 선발시기 : 6, 11월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후 학년별 지급대상자 선발
(횟수 제한없음)
 - 선발기준 : 도전점수 고득점 및 여수캠퍼스 교육역량강화사업 참여자 우선 선발
- ※ 자격 충족시 타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장학제도 문의

광주캠퍼스 학생지원과 062-530-1103, 1075, 1073, 1084

여수캠퍼스 교학과 061-659-6202

대학에도 학생기록부가 있다고?

내 경력 관리하는 자기계발활동기록부

고등학교에만 학생기록부가 있는 게 아니다. 대학에도 학생활동기록부가 있다. 나의 학내외 활동과 다양한 경력을 기록, 관리하고 이것을 학교가 공적으로 인증해주는 '자기계발활동기록부'가 그것이다.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실천하면서 차곡차곡 대학생활의 결실을 쌓아보자.

02

● 대상 : 전남대 재학생 전체(1~4학년)

● 왜 필요한 거죠?

기업은 학업성적과 어학성적은 물론 인턴십, 아르바이트, 자격증, 공모전, 봉사활동, 해외연수 등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호한다. 따라서 저학년 때부터 자기계발활동기록부를 적극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한다면 성공취업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 무엇을 기록하나요?

영역	영역별 활동내용	최대점수
학점	-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 반영	250
외국어 영역	-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의 공인시험 점수	250
취업/자기계발	- 교내외 각종 교과과정 외 활동 참여사항	150
활동 영역	(취업프로그램 및 학술활동 참여, 각종 서포터 활동, 조국순례대행진 등)	
수상 및 공모전 영역	- 대학내(단과대 이상), 국내외 입상자	100
인턴/현장실습	- 국내외 인턴십/현장실습, 해외연수 - 국외교류(학점취득이 있는 경우만 인정)	100
봉사활동	- 학내외, 국외 봉사활동, 현혈활동	50
자격증	- 전공관련 및 전공외 자격증	50
진로상담	- 진로지도교수 및 모든 교수와의 상담	50
총점		1000

● 어떻게 기록하나요?

전남대학교 경력 및 직업개발(CAPD)사이트(<http://capd.jnu.ac.kr>) 자기계발활동기록부 해당사항 입력 → 신청(증빙서류 업로드) → 각 소속 단과대학에서 발급(OS센터 자동발급기)

● 어디에서 활용되나요?

교내장학생·국외파견자 선발 및 학교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기계발활동기록부가 필수적이다. 특히 4학년은 자기계발활동기록부를 통해 취업추천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학교에서 인정해주기 때문에 기업체 취업서류 제출 시 중요한 보충자료로 활용가능하다.

여수캠퍼스에만 있다

쌓을수록 힘이 되는 도전점수

자기계발활동기록부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여수캠퍼스만의 경력 관리 시스템. 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영어·전공·직업능력 등)의 참여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 받고, 그 점수에 따라 장학생 선발, 취업 추천 등에서 우선 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03

- 대상 : 여수캠퍼스 재학생(학부 1~4학년)
- 무엇을 기록하나요?

분야	분야별 활동내용	최대점수
외국어영역	- 모의토익 참가, 모의토익 점수 향상, 정규외국어시험 참가, 정규외국어 시험 성적 향상, 대학내 토익특강 수강	400
전공	- 전공스터디그룹 참가, 그룹장·총무, 우수활동	175
취업	- 진로(심리) 검사, 취업프로그램 참가, 취업동아리 활동, 취업특강 참가, 취업서포터즈 활동, 자격증 취득	275
입상·봉사	- 대학내 입상자(단과대 이상), 국내 입상자, 국외 입상자, 봉사활동	150
총점		1000

- 어떻게 입력하나요?

- 도전점수 등록 : 확인 서류를 본부 4층 교학팀에 제출
- 도전점수 확인 : 경력 및 직업개발 홈페이지(여수) 도전점수 메뉴에서 확인

- 도전점수 활용 분야

- 장학생 선발, 학업능력향상지원금 지급, 취업 추천, 국제 프로그램 참가 대상자 선발

- 기타사항

- 자기계발활동기록부와는 별도 관리·적용되므로 자기계발활동기록부와 중복되는 항목의 경우 중복 입력이 가능하다.
- 여수캠퍼스 학내 각종 프로그램 참가시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다.

- 문의

여수캠퍼스 교학팀 061-659-6201, 6204 (영어, 전공 프로그램 담당)
 여수캠퍼스 취업지원팀 061-659-6233, 6236 (취업 프로그램 담당)



전남대학교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TEL_062) 530-5114 FAX_062) 530-1189
<http://www.jnu.ac.kr>



학교프로그램 정복, 고수가 되고 싶은가?

고수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고수가 되고 싶다면 일단, 'CNU 드림매뉴얼' 을 가까이하라!
정보를 챙기고, 실속있게 활용하면서 인맥을 넓혀가다 보면
어느새 고수가 되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